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⑧

REPORTS ON COOPERATIVE OF PAJU BOOKCITY

2004. 1. - 2006. 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CITY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⑧**

2004. 1. - 2006. 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 문

자료집⑧에서는 출판도시가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출판도시 1단계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출판물유통센터인 북센 및 이채쇼핑몰 등이 완공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이 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 축제 및 국제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단계 사업 완성을 앞두고 입주기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입주기업체협의회(가칭)를 결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5년 베를린 건축 전시회 및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초대는 세계 출판인들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지금까지 세계각지에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출판도시를 찾아오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2016년 현재 (사)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조직통합 및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시금 초심의 마음가짐을 잡습니다.

1단계가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2단계 책과 영화의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하였듯이 2017년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출판도시가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은

차 례

서문	3
2004년 건축전시장이 된 출판도시, 줄을 잇는 방문객	6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9
● 인쇄 발간된 자료	15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31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45
2005년 세계가 주시하는 출판산업의 집적화 도시로 떠올라	52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55
● 인쇄 발간된 자료	61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71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87
2006년 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92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95
● 인쇄 발간된 자료	103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113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125

2004년

건축전시장이 된 출판도시, 줄을 잇는 방문객

2004년은 건축과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54개사(임대입주자 포함 1백여 개사)가 입주를 완료했고, 20여 개 사의 사옥건축이 힘차게 진행되는 등 출판도시가 점차 제 모습을 갖춰가는 해였다.

또한 출판도시의 핵심지원시설 중 하나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완공되어 출판도시 입주사 회의, 건축심포지엄 등 각종 회의와 파주어린이책한마당, 출판도시 가족송년음악회 등의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세계생명문화포럼 등의 외부행사도 적극 유치했다. 특히 센터 입구에 출판도시 건축전시장이 설치되어, 출판도시를 견학하려는 학생들과 건축가, 일반인을 포함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출판도시 현황을 설명하는 중요한 시설로 자리했다.

최첨단 자동화물류기지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복선이 완공되었고, 대형쇼핑몰인 파텍의 이체가 완공, 9개 영화관과 푸드 코트, 편의점 등이 들어서 입주사를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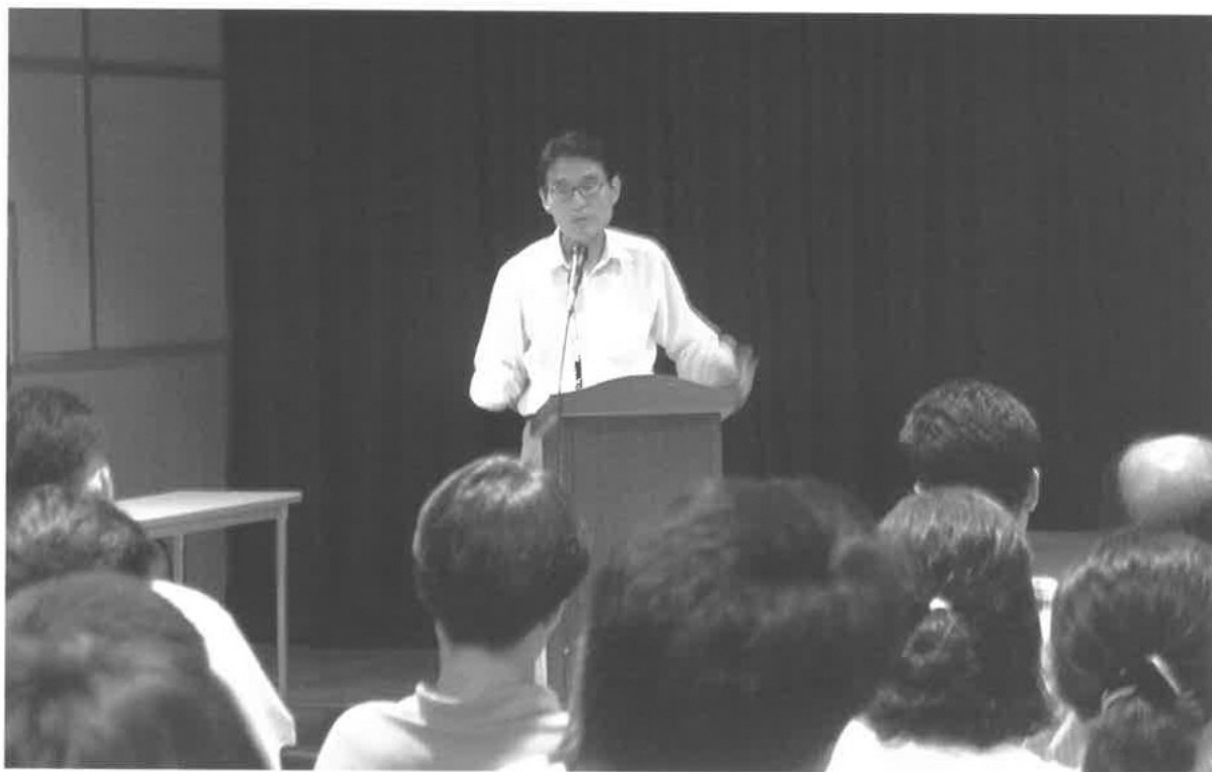
입주사 사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업무를 진행하여 80여 개사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를 갖추었으며, 문화, 상업, 유통시설들이 건축 중인 주거시설과 함께 도시 지원시설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2004년

2004년 주요행사

01.09	민음사 입주기념식
02.01	제14차 정기총회
02.13	출판도시 입주시 대표 및 임직원 토론회
03.22	구내식당 '노을의 집' 개업
04.03	돌베개 입주기념식
04.28	약업신문 입주기념식
05.06	파주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
05.14	신원에이전시 입주기념식
05.17	푸른숲 입주기념식
06.01	사계절출판사 입주기념식
06.07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 및 독일출판계 인사, 주빈국 조직위원장 등 방문
06.09	케이디미디어 입주기념식
06.18	주요 언론사 문화부장 초청 간담회
06.24	파벵 이채쇼핑몰 준공식 및 기념음악회
06.25	상지사P&B 입주기념식
06.28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북센 준공기념식
08.26	2004파주어린이책한마당 파주시 설명회
10.01	2004파주어린이책한마당 기자설명회
10.14	2004파주어린이책한마당 전야제 겸 개막식
10.15	한일출판교류세미나
10.24	은석교 준공식 및 원로출판인을 모시는 출판도시 설명회
12.28	출판도시 건축심포지엄 '파주출판도시에서 배우는 것'
12.28	가족송년음악회 '뜻깊은 2004 희망찬 2005'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① 2004. 06. 03 「2004파주어린이책한마당」 입주사 특별전시회 관련 설명회 개최



② 2004. 06. 07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 및 독일출판계 인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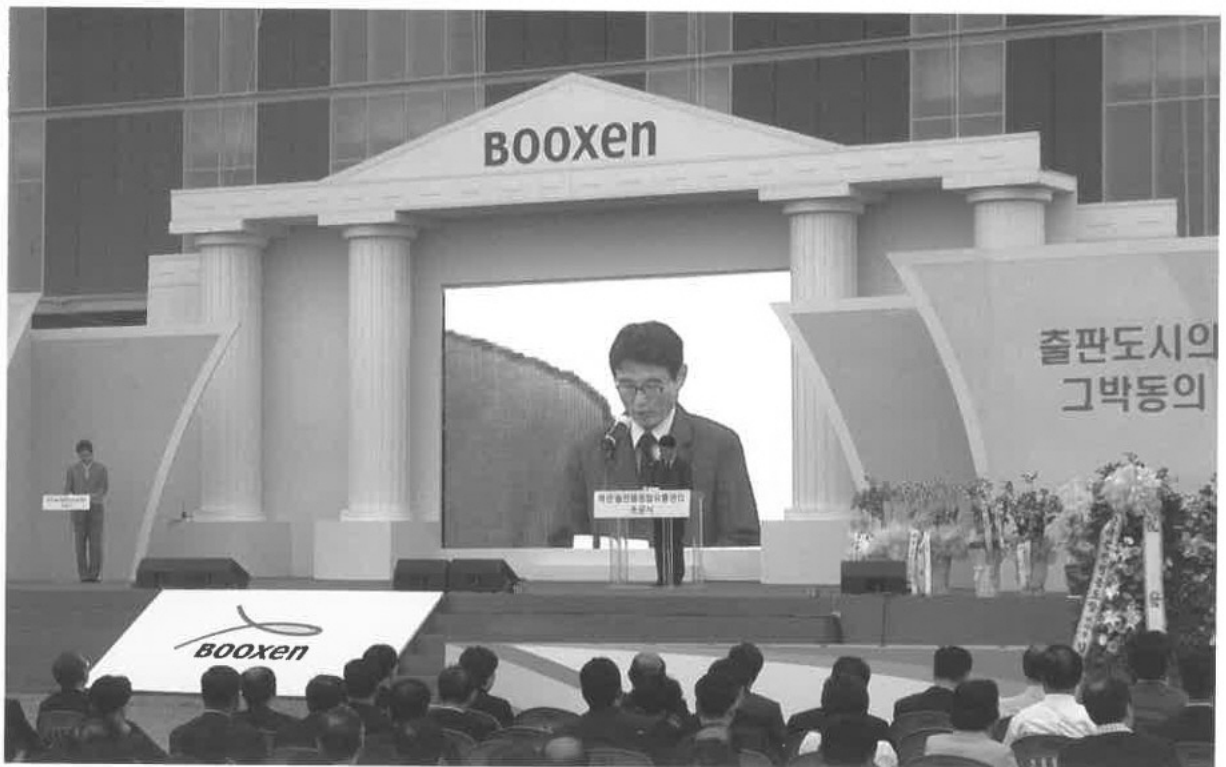


③ 2004. 06. 18 주요 언론사 문화부장 초청 간담회 개최





④ 2004. 06. 24 파텍 이채쇼핑몰 완공



⑤ 2004. 06. 28 출판유통업무의 표준화 · 자동화를 위한 출판물종합유통센터 북센 준공기념식 거행



6 2004. 09. 29 어린이책잔치 개막




7 2004. 12. 28 '파주출판도시에서 배우는 것'을 주제로 출판도시「건축심포지엄」 개최

인쇄 발간된 자료

제14차 정기총회 서류

2004년 2월 10일(화) 오후 3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❶ 제14차 정기총회 서류 (2004. 02. 10)

목 차

1. 정기 총회 회순	3
2. 2003년도 사업보고서	5
3. 2003년도 결산보고서	21
4. 2003년도 잉여금(결손) 처분(안)	53
5. 감사보고서	57
6. 2004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63
7. 2004년도 사업계획서(안).....	67
8. 2004년도 수지예산서(안).....	81
9.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93
10. 2004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97
11.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101
12. 임원 선임의 건	105

제14차 정기총회 회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축 사

— 의사록 서명이사 및 서기 감찰 지명

— 제13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 보고사항

1. 2003년도 사업보고

2. 감사보고

— 의안심의

1. 2003년도 결산 승인의 건

2. 잉여금(결손) 처분(안) 승인의 건

3. 2004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4. 2004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5. 2004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6.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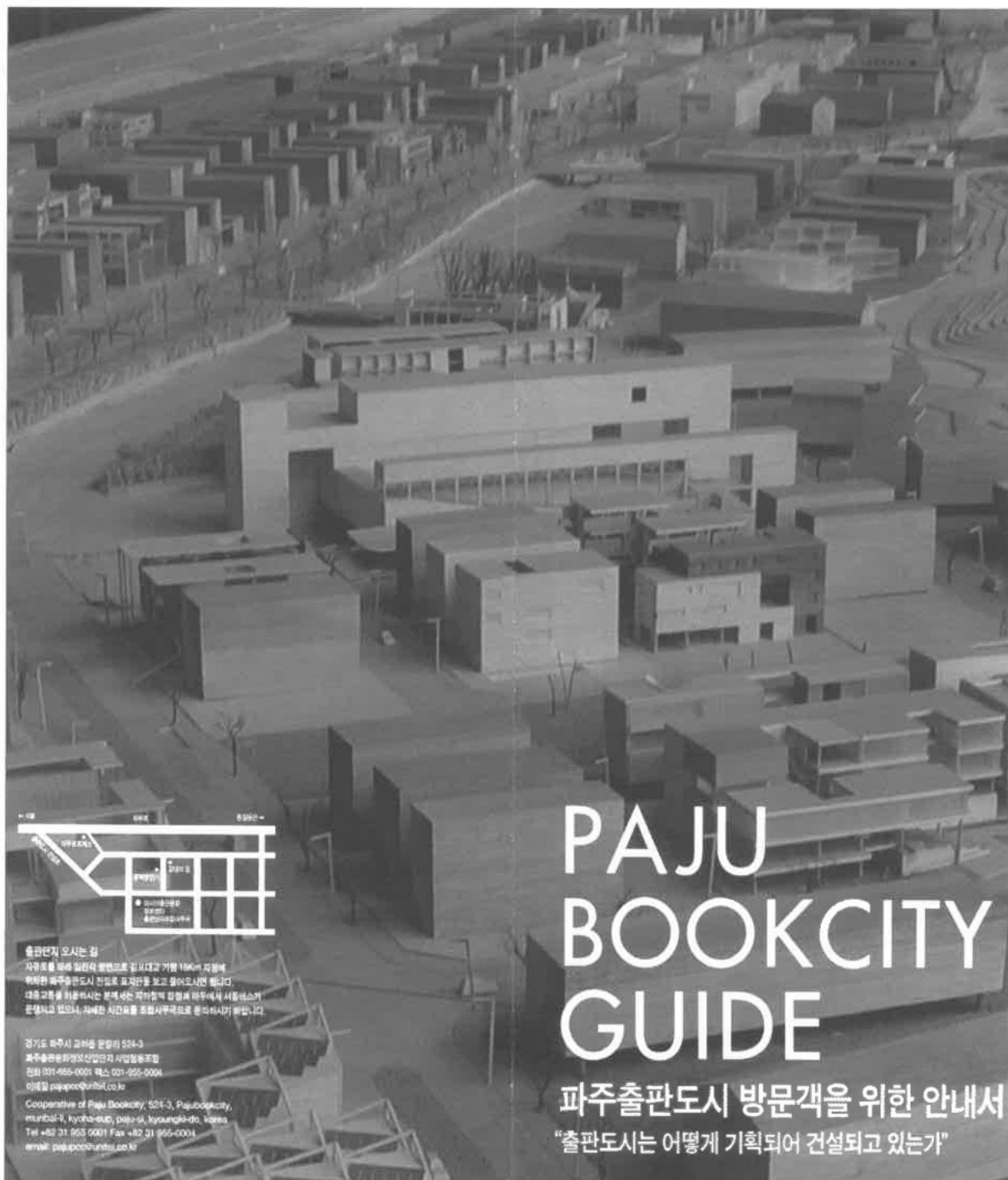
7. 2004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8.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9. 임원 선임의 건

— 기 타

— 폐 회



PAJU BOOKCITY GUIDE

파주출판도시 방문객을 위한 안내서
“출판도시는 어떻게 기획되어 건설되고 있는가”

출판단지 오시는 길

자영로를 따라 일원지 평면으로 넓이 대략 18Km² 정도에
확장한 파주출판도시 전입로 포장등을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께 대한 적정금액의 교통비 라우에서 시정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출판사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북주출판문화재단산업단지 사업장동조합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이메일 pajucoop@nhanet.co.kr

Cooperative of Paju Bookcity, 524-3, Paju Bookcity,
munbal-ri, kyohka-eup, paju-si, kyunggi-do, Korea
Tel +82 31 955 0001 Fax +82 31 955 0004
email: pajucoop@nhanet.co.kr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도시

도사나 건국을 가리켜 '시대와 가운'이라 한다. 인간의 실, 특히 도처적 실이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 도시오 건국물이라 하는 것이다. 서론은 여러 우라와 어느 도사나에서 국경되는 부조적의 도사에게, 불균형한 도처에게, 나열한 것을 얻어, 지극한 건국물의 접합을 얻는 것은 제국된 우리의 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란 것이다. 이것은 확고한 도사 공간은 다시금 큰 것과 우리의 실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다. 반면 도처의 도사나 건국은 답답 없이 역순한 것과 도사로서 우리를 제국할 것이다. 어떤 도처의 가와 생가에는, 우의 것이라, 어느 인체의 가에도 비비적의 가와 도사로서 우리를 돌리게 되는가.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자 한다. 공동성 을 상상하게 하므로, 각자 개인의 국국민을 우리를 통해 공동의 선을 마련해서 그것을 공적인 세우는 데는 소홀하거나, 아니면 어느 관심을 두지 않은 집고있다. 공동성의 상상이나 살의 제국 같은 실로써 접합된 우의 건국물과 어느 건국물인 양을 주지하고자 한다. 열일 상상물과 그와 어찌한 공적인 제국과, 통속적인 국치와 모순적, 그리고는 사구문화의 우물발현 유급, 국과 이를 불상사태에 이르도록 독재정치로 결집된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 치되는 도처와제국에서 연립제국에 결집을 칠을 이루는 정신적인 혼란. 가처간의 혼란을 가져왔고, 도사적 서술에는 어느 도처 우리의 학으로 어느 건국물인 양을 주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illegible]

가니 제작을 담당할 염두에도 두었다. 즉 백전단은 일단 건축일과 마찬가지로 힘을 기울여 설계하고, 그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철 유비로 다시 시작한다. 설계를 할 때에도 그렇다. 그 건축물이 세워지려고 하는 곳의 환경과 풍토, 그 안에서 살게 될 사람의 성격, 직업, 가족 구성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하는 자료들을 대충 충분히 고려하고 유익이 가치있는 설계가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백전단은 설계도 이와 대조한다. 이렇게 지루한 설계작업을 끝내고 나면, 자재를 조달하여 설계대로 세워 주는 건물을 세우는 작업이 끝난 곳에 와서야 끝나지만, 그러나 백전단은 이 건축 못지 않게 건축 못지 않게, 아니 더욱더는 건축보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백전단은 얼마만큼 건축하는 일과 유사하다. 목사나 기거비고 추진해 온 그 기거하는 해안마을의 정성이 많이 들어 있으며, 승인과 건축의 안일 또는 승인과 도시의 안일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

북시티라는 한권의 크고 아름다운 책 출판공정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국가 산업단지로 하는 거대한 국가의 기록을 아끼아 않았다. 국가의 정책적 배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출판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형식으로 국가산업단지 시점을 쓴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갈 여가면서는 '산업단지'라는 무가치하고 건조하고 무성적 경험을 하는 건 흔하고 크고 아름다운 세계를 도입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대가 뒤에까지 보시라는 것이, 한 권의 크고 아름다운 세계를 편집하는 셈이다.

어떤 디자인은 서울대학교 현대미술관의 창간회 교수들이 맡았다. 책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그것을 통해 독자에 전달하는
은 산인사출판사를 제로1 편집하는 도시에갔었으므로, 우리가 창간회 교수들에게서 무뎌졌 것은 우리 출판사의 전례적인
데이로였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분포-공식한 다음 산업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동안 우리 출판사의 영역 상성
에 비하면 똑같은 언어나 또는 수학적 지평의 준비에 있어서는 열화하고 그 이상이었으므로, 우리 출판사의 데이로를 모
으고 분석한 문헌에서 모으는 수학적 지평의 준비에 있어서는 열화하고 그 이상이었으므로, 우리 출판사의 데이로를 모
으고 분석한 문헌에서 모으는 수학적 지평의 준비에 있어서는 열화하고 그 이상이었으므로, 우리 출판사의 데이로를 모

그렇기 위한 모듬을 국책하기 위해 어떤 디자인도 중요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건축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우리 시대의 뛰어난 건축가 인문학·수호상 두 분야를 건축과다나아보도록 발탁한다. 그 두 분은 영국의 건축가인 찰스턴과 콜로리언 씨 이글 교수와 또다른 젊은 건축가 김동규, 김영준씨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섯 건축가가 솔선해서 건축지침을 작성한다.

[illegible]

도 접근 것이 그의 삶이든 읽은 일이라든가, 우리는 하여야 한다의 도를 만들든, 이 도에서 한때까지 그리는 우리의 도는 문화에 제 미묘함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확대재현을 도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판사의 공간에서 참다운 책의 문화가 펼쳐질 것이야, 새로운 아날로그의 도를 볼 수 있고, 앞으로 이런 특별한 도가 점점 더 되어 우리가 한 번만 작은 산업구조의 발전에 일하게 될 수 있을 수 있겠다. 이 도의 실감한 이사와 출판문화정보원에 모인 인간성의 중심은 잠시 우리들의 삶에 몇 차례의 잘 이루어지고 있을 바라고 기대한다.

출판과 건축의 만남

우리는 복사기를 기화하고 추진하면서 출판의 일상에서 늘 적용해 왔던 해면돌기의 원칙을 끊임없이 영두에 두었다. 즉 해면도는 일도 건축과 마찬가지로 활용이 설계되고, 그 설계가 마음에 안 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설계를 할 때만 해도 그렇다. 그 건축물이 세워지고 하는 곳의 환경과 풍토, 그 안에서 살게 될 사람의 성격, 직업, 가족수 등과 집을 지을 때에 도달할 수 있는 재료물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연구 없이 가치는 설계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해면돌기의 설계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듯 지루한 설계작업이 끝나고 나면, 자재를 조달하여 설계도에 맞추어 건물을 세우는 해면돌기의 힘든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해면도는 일도 건축 못지 않게, 아니 때로는 건축보다 훨씬 힘들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해면도는 알리아임으로 건축하는 일과 흡사하다. 복사기를 기록하고 추진해 온 그 가져오는 해면돌기의 정신이 깔려 있었으며, 출판과 건축의 만남 또는 출판과 도시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2004년 8월 출판도시 아사카리 마을

출판도시의 발자취 15년의 대역사

1989

1989. 9. 5. 우리 출판인들은 책을 통해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정부당국은 물론, 언론계, 문학계, 학계 등 사회 각계와 적극적인 상형 속에 출판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1991. 1. 8. 출판문화산업

단지 건설을 위해 범 출판계가 참여하여 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을 결성, 경기도로부터 조립설립을 인가 받았다. 1991. 7. 10. 출판단지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구상 지령을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를 완성시켰다. 1994. 7. 1. 대통령에 주재하는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이기통 이사장이 대통령에게 출판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출판단지 건설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진언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같은 날 오후 문화체육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부지인 파주시 문발리 제천부지에 파주출판문화산업보존단지를 조성하는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1995. 10. 20. 파주출판문화산업보존단지의 명칭을 공식화하여 이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 영문식 행사를 정관계를 비롯한 언론계, 문학계, 학계 등 6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1997. 3. 31. 1996년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공람에 이어 수도권광역개발특별법 제정 공람 지역으로 삼의의결을 받아 전 출판단지 48만평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를 받았다. 1998. 11. 20. 건설교통부 서 울재정관리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단지조성공사 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선정하여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을 가짐으로써,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책의 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기원했다. 1999. 6. 30. 단지기 반시설공사의 진행과 더불어 별도로 파주출판단지조성에서 1996년 사업지구 산업단지 매입, 문화시설용지 매입, 상업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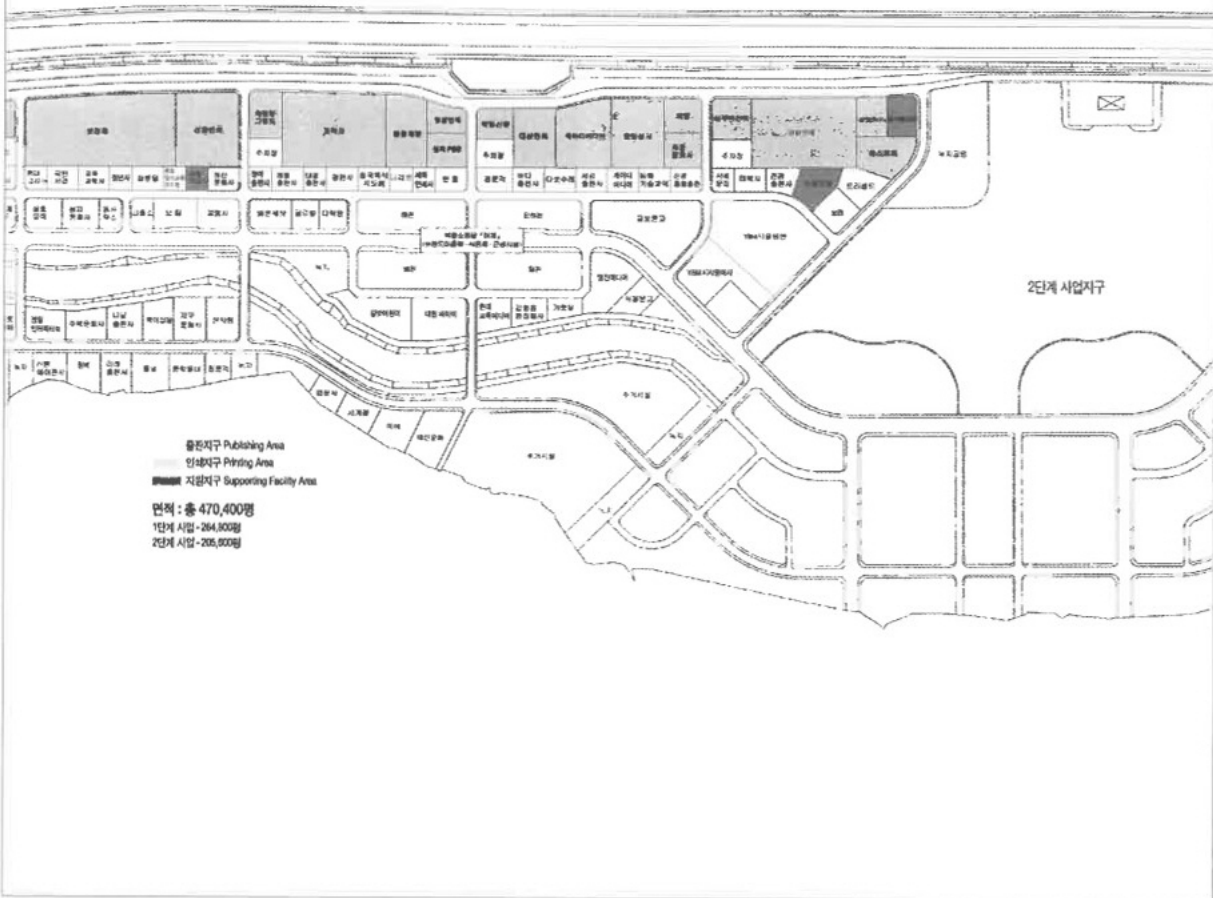
출판도시 건설계획 당시 조감도(왼쪽)와 200년의 1로 축소된 출판도시건설모형(오른쪽).



위대한 계획서 서명(왼쪽)과 출판도시 건축공예대모형.

매입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어 이차지구 산업단지 매입을 완료함으로써, 일단계 개발사업 승 25만여평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1999. 9. 9. 출판도시의 건축관련 도서관 등 전시기능과 각종 이벤트기능, 회의기능, 사무공간 등을 수용할 연면적 242평 규모로 전망대를 갖춘 파주출판도시 Inroom을 개관했다. 2001. 6. 15. 출판도시 건축을 위한 설계 지침을 완성하고 정부로부터 건축비 50%를 국고보조금 지원을 획득하여 건립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대영의 서점 지구 일주식 사육건축의 첫 삽을 뜨는 출판도시 건축착공식 행사를 가졌다. 2002. 12. 24.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고층연구동이 완공되어 동센터 대회의실을 비롯, 이벤트홀에서 출판도시의 핵심시설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기공식을 성대히 개최했다. 2003. 6. 3. '다시 파주복합도시를 말한다. 풀 주제로 우리가 출판도시를 계획했던 당시에 수립, 추진했던 도시적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간점검하고, 도시가 완성된 후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대로 논다. 파주출판도시 도시건축 한아단을 개최했다. 2003. 10. 10. 출판도시에서 개최된 2003 파주어머날 북 한아단은 연인원 1만여명이 대거가는 대 성황을 이루었다. 더욱이 출판도시가 건설중인 과정에서 계획된 행사에 일평균 6만여명의 관람객이 수거되는 출판도시 관광 추위대해 책의 도시가 집중된 큰 국민의 관심도를 기능적 화기에 증명했으며, 완공 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출판도시의 미래상을 보는 듯했다. 2003. 12. 22.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선도할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 실현과 도시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 및 국제적 수준의 복합문화연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을 담당할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설립됐다. 2004. 5. 출판도시의 활성화를 무라나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초석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완공됐다. 이 센터는 국내외 북베아를 비롯한 국제출판문화교류와 연구·저술·번역 활동을 지원하고 전시·교육·회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출판도시의 핵심시설로 자리잡게 된다.

2004



출판도시의 미래

세계적인 책의 도시

출판도시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48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문 화산단지이다. 이 도시는 1989년 국가발전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지 지를 확보하여 21세기 국제화사태 의 주체적 문화대중 능력을 배양하고 불합리한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를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뜻있는 출판인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5년동안 추진한 결과,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 도시는 일관된 방침에 따라 입주 주체들이 스스로 개발해 직수입에서부터 건축설계지침, 조경지침, 건물및육의충보물지침 등을 수립하여 지켜 나감으로써 환경을 논쟁에 두고 있다. 파주출판도시의 가장 큰 목표는 출판기획, 편집에서부터 인쇄, 유통,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하나로 묶어내 대한민 국의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이 도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이자, 아름다운 세계 에 내놓을 수 있는 건축이 넘치는 곳이다. 때문에 관광객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영국 해럴드의 하이마와이와 벨기에 레퀴, 네 달랜드의 브레드포드 등 유명 책마을과는 성격은 다르지만 이들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판문화산업은 물론 세계적인 출판도시로 발돋움하여 세계인이 즐겨찾는 문화관광도시가 될 것이다.

출판문화산업도시

출판도시는 인간과 자연, 문화와 산업이 잘 어우러진 책의 도시로서 기획, 생산, 유통 등 출판산업의 세 요소를 집적화함으로써 경제적인 사회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문화산업도시이다. 출판도시에는 출판사 110개사와 인쇄사 21개사, 출판유통회사 2개사, 자류유통(제본 등) 총 150여개 출판관련 산업체가 건물물 지어 입주 할 예정이며, 임대료 입주하는 회사까지 총 600여개의 출판관련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출판도시에서 도서를 기획, 편집하여 바로 열 인쇄를 통해 인쇄 및 제본, 제책을 완료한 후 출판물유통유통센터를 통해 전국의 독자들에게 일괄의 책을 보드 지 령하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특히 출판사들끼리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서로가 경쟁함으로써 책의 질이 약 30%이상 높아지고, 또 관련업체의 집적화를 통해 물류비용 또한 30%정도 절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60%이 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파주출판도시의 한 모습(왼쪽)과 출판도시의 한 모습(오른쪽)이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건축전시장

출판도시는 저마다 스토리가 있는 독특한 건축물로 채워지는 하나의 커다란 건축전시장이다. 한 건물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담은 공간으로 서, 그리고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전체가 하나의 건축 전시장을 연출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 도시에 서는 건물물 배치하고 채우기에 앞서 비움을 먼저 생각한다. 이것은 채우기를 우선하여 온 종래의 도시 만들기와 그 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건물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기는 장소가 활기 넘치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장소가 건축을 만들어 낸다. 모든 건축생태는 공동성에 기초한 출판도시 건축생태지침에 따라 책을 만드는 공간으로서의 건축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과 방문객들을 배려하고 출판도시만의 문화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출판도시에는 현재에도 건축에 관심있는 국민들이나,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건축관련단체 들의 건학이 있을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건축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출판도시의 한 모습(왼쪽)과 출판도시의 한 모습(오른쪽)이다.

생태환경도시

출판도시 주변지역은 두 강이 합류하는 천혜의 자연생태 보고이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합류하여 서해에 이르는 거대한 강 하류의 저습지, 현재 도래지이며 갈대군락 등 전형적인 강변습지 식생이 나타나는 곳으 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석유연료에 바탕을 두고 자랄까 문화가 중심이 된, 무질서한 스 버가 지배하는 사람의 산업화시대가 20세기 후반에 생활수준을 급격하게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나, 환경을 파괴한 주범이었다. 이 를 반성하면서 이 도시는 자연과 인공의 모순을 극복하여 원시자연과 첨단과학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이며 생 태계를 보전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 도시는 미래적인 기호수와 콘크리트의 고수부지가 아니라 갈대와 억새가 맞서는 생태 을 가꾸고, 물과 흙이 만발하게 되는 야생의 자연 속에 세워진다. 한강의 습지와 인근 삼척산의 자연이 이 도에서 섬 세하게 연결되어 자리잡는다. 특히 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갈대생태계를 자연 그대로 살려, 그 속의 습생 동식물들을 보호, 보전 하는 데 도시의 성격을 짓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갈대와 억새가 맞서는 생태계를 가진 출판도시(왼쪽)와 자연친화적이며 생태계를 보전하는 출판도시(오른쪽)이다.

공과 예절이 흐르는 교육도시

출판도시는 인간이 대접받고 또 인간을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속에서 살 수 있는 성향이 기초하고 있다. 이는 곧 출판문화공동체적 삶을 의미한다. 새롭게 건설되는 신 도시 개발의 바람직한 모델로서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만족감을 느끼는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각각 개인의 욕구를 지배하고 공동의 선을 마련하여, 그것을 공경의 세우는데 전력을 다한다. 또한 이 도시는 출판문화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구비한다. 각종 전시회를 비롯, 공연 등 각종 문 화행사도 많이 열리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나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게 할 것이다. 이 도시의 영원한 테마인 '책'을 통하여 미래를 찾아낸 많은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게 하고 자라도록 힘을 주게 될 것이다.



출판도시의 한 모습(왼쪽)과 출판도시의 한 모습(오른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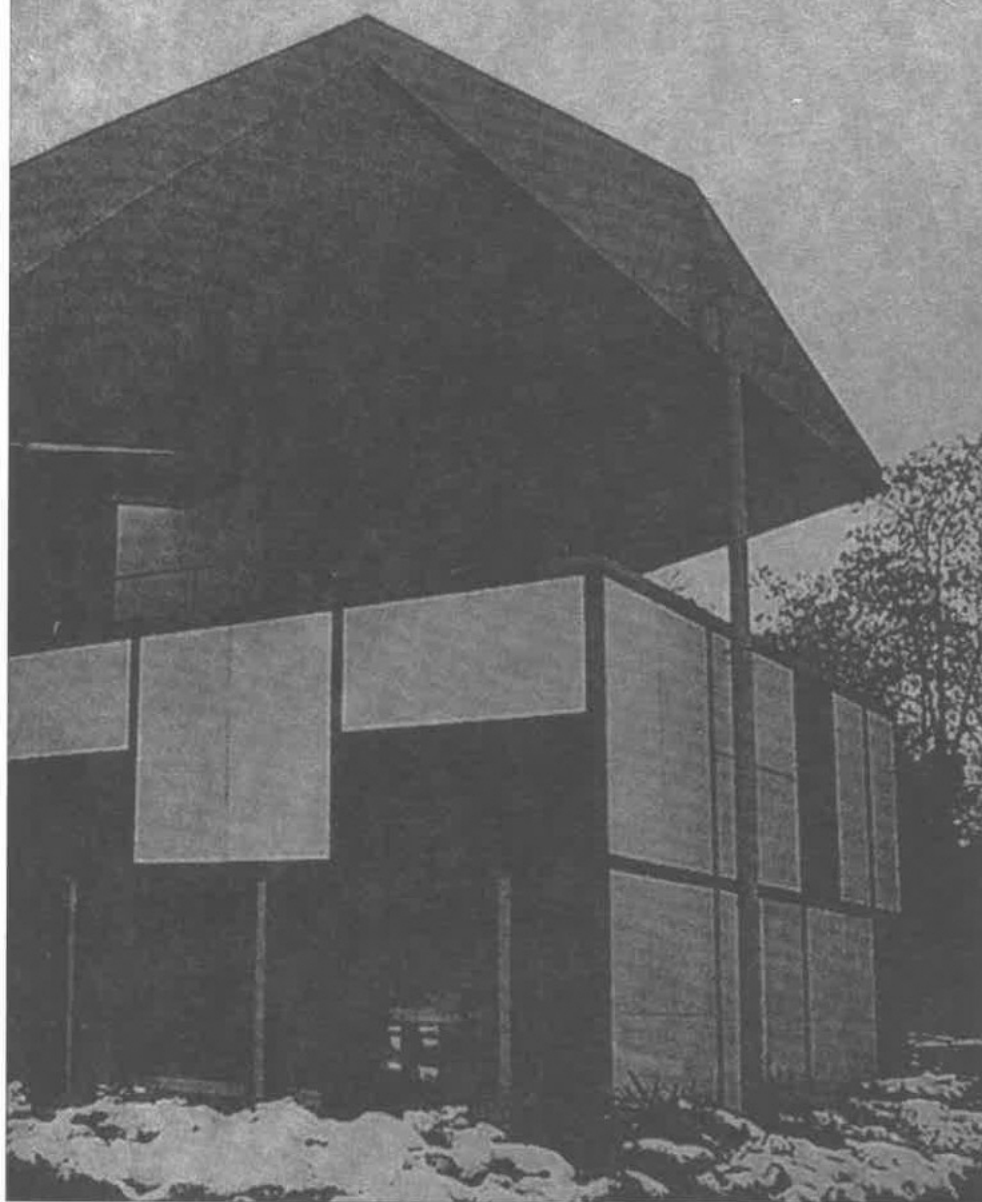
핵심지원시설

출판·문화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와 교육기능 등을 수행하여 도시 활성화 및 출판문화산 업 진흥을 담당할 핵심 복합문화연구 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완공되었다. 이 센터는 부지 5,400평에 지하 일 층, 지상 사층 연건평 3,800평 규모로 지난 2001년 유월 착공하여 2004년 10월 건물이 완료되었다. 또한 출판도시가 국가산 업단지로 지정받은 수 있도록 한 경제적 핵심시설인 출판물유통유통센터는 출판도시 남쪽 일구역 2인2천평의 대지에 1인5 천평 규모로 지난해 말 착공하여 착공하여 건축이 임박하여 마무리된 자용화 시설로, 금년 유월 완공되었다. 이 생 터는 선진국으로부터 벤치마킹한 최첨단 자용화 출판물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출판물유통업의 구조화, 자용화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구조 속에서 출판사와 서점의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고, 출판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안정, 정확하게 공급하는 다목적 서비스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출판도시의 중심상가인 이세소망들이 부지 5천여평에 연면적 2만여평 규모로 금년 유월 완공되었다. 이 상가는 서울 및 수도권에 광역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주변관광객 흡수, 나아가 출판도시 전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설로 영화 관을 비롯, 건강센터, 제트클럽, 난타전용극장, 세계음식테라스, 해외명품점 등이 입점한 대형 쇼핑센터이다. 이밖에도 배선 을 중심으로 한 부지 2,500평의 상가 중 점자상가가 일부 완공되었고, 나머지 상가들도 금년 건축을 예정하고 있다.

Exploring Architecture of the World
for Paju Book City

출판도시 건축 기행
1999-2003



❶ 출판도시 건축기행 I (1999-2003) (2004. 08.15)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축기행은 계속돼야 한다

오늘 지금, 한국의 공간환경(空間環境)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나는 우리의 공간환경의 위기적인 상황에 관해, 1989년 "사회와 사상" 7월호에 실린 최병두 교수의 글을 읽은 기억이 난다. 때는 마침 출판도시를 기획하면서 이 사업 추진의 주체를 설립하는 준비에 한창 골몰하던 때여서, 한국의 공간환경에 관한 나의 관심은 각별했던 터였다. 그 이전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글을 읽고 난 이후 지금까지, 곧 안으로는 출판도시를 추진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온 15년이었고, 밖으로는 우리 사회가 진행해 왔던 무분별한 도시화, 무계획하게 국토를 난도질해 대는 폭력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15년이었다.

우리의 도시화와 자본주의화 과정은 상당량 물질적인 부를 축적했지만, 최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모순들을 심화시켰으며, 이 모순들이 공간환경의 위기적 현상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한국 공간환경의 위기적 현상들은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체계의 정당성을 위협할 정도로 우려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15년 전의 이같은 최 교수의 경고는 오늘의 우리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문화의 현실을 다시금 반성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출판도시가 우리시대에 어떤 의미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이제까지의 건축기행의 자료를 한데 묶어,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밟았던 건축기행의 흔적을 회고의 자료집으로 남기고자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비상업적인 출판이고, 한낱 자료집이지만, 매우 소중한 뜻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애써 주신 김영준 선생과 강혁 교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건축기행은 건축에의 공부이고 도시를 배우는 것이며 역사를 배우는 일이었다. 출판도시를 지속 가능한 가치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판도시의 건설은, 산악지대를 달리는 기차에 비유한다면, 이제 꽤 숨가쁘게 올라왔던 오르막 고비를 지나 제 속력을 얻어 평야를 가로질러 달리는 모습이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출판물종합유통센터 그리고 이체소평몰이 속속 개관함으로써 이 도시의 공공적인 시설과 지원시설들이 알차게 들어서면서 도시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는 있지만, 다양한 50여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다. 어주해 온 식구들만 일천여 명에 이른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차분한 마음자세로 이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학습의 길을 떠나야 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새로운 건축기행을 기획할 것이다. 건축기행은 계속돼야 한다.

2004년 8월 15일 출판도시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건축 기행 · 목차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문 · 이기웅	3
1 9902	9
Rothenburg / Weissenhof Siedlung / IBA / Hansaviertel / Potsdamer Platz / Karow Nord / Ökosiedlung / Insel Hombroich / Bredevoort / Antwerpen / Lille / La Villette / Barbizon / Evry / La Défense / Frankfurt	
2 9907	95
Zürich / Basel / Belfort / Besancon / Lyon / Geneve / Lausanne / Bellinzona / Monte Carasso / Lugano / Como / Milano / Verona / Vicenza / Venezia / Treviso / Firenze / Siena / San Gimignano / Roma	
3 0002	173
Eze / Nice / Cap Martin / Monaco / St. Paul de Vence / Cannes / Aix-en-Provence / Marseilles / Avignon / Nimes / Arles / La Grande Motte / Aigues Mortes / Montpellier / Carcassonne / Montolieu / Barcelona	
4 0007	235
Helsinki / Stockholm / Oslo / Malmö / Copenhagen	
5 0307	299
Moscow / St. Petersburg / Prague(Praha) / Bruno / Budapes / Zagreb / Split(Spalato) / Duvrovnik / Ljubliana / Mostar	

출판도시 오시는 길

지하철 & 저층버스

입장역: 2.6호선 청량리역에서 1번 출구 부근에서 저층버스가 출발합니다.

정당시 약 30분 소요, 평일 15:40 / 15:40 / 15:40 / 17:55

* 출판도시 저층 버스로 사거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시간표와

승차지점 등은 반드시 사전에 문의, 확인하여 주시기요,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

TEL 031-955-0001

일반버스

8번 버스(파주지역, 1일 1회), 200번 버스(일산, 파주지역 1일 1회)가 운행 중으로

완정구간 등에 관하여 8번 노선 031-941-3136, 200번 노선

031-941-10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3호선 대림역에서 출판도시 진입로까지 자유로울 확고 원상시 약 15분이 소요되며

2.6호선 청량리역에서는 약 30분이 소요됩니다.

승용차

서울, 일산 등에서 자유로울 확고 파주, 원산 방면으로 오시다가 길목에서 지점 15km

지점에 위치한 파주출판도시 진입로 표지판을 보고 우회도로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현황포럼 | 출판도시문화재단

전화 031-955-0001 | 031-955-0050

팩스 031-955-0004 | 031-955-0054

이메일 papapcc@hursel.co.kr 홈페이지 www.papabookcity.org



석양에 붉게 물든 책의 마을,
출판도시로 초대합니다

출판도시 책마을 안내도

④ 석양에 붉게 물든 책의 마을, 출판도시로 초대합니다 (2004, 10)

출판도시는 이런 곳입니다

출판도시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 48만 평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문화산업단지로, 21세기 국제화시대에 주체적인 문화 능력을 기르고 불협화음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이루고자 뜻있는 출판인들이 모여 만들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의 메카입니다. 국내 유수의 출판사, 인쇄사, 제책사, 지류회사, 저작권중개사, 유통센터 등 출판관련 업체 수백 개가 한 곳에 모여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최상의 환경을 갖추어가고 있는 이 도시는, 또한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이자, 아름다운 세계에 내보낼 수 있는 건축미 넘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장에서 잠시 벗어나 출판도시를 거닐며 북 카페와 각종 시설, 상징물 등을 둘러보시고 책의 마을 중심을 흐르는 갈대갯강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바람을 온 몸으로 느껴보세요. 책의 마을, 출판도시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출판문화공동체인 출판도시의 헤드쿼터로서 출판문화에 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연구와 교육, 공익성 문화행사 개최,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2004년 완공된 복합문화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부지 5,400평에 지하 일층, 지상 사층 연건평 약 3,900평으로 국제적 규모의 각종 시설과 야외무대를 겸비하여 한국 출판문화의 활성화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독특한 공간구성 등이 높게 평가되어 2004년 제14회 김수근건축문화상(설계자 김병윤)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층별 시설 안내

센터는 2개의 동으로 나뉘며, 센터 입구에서 심학산을 등지고 있을 때 정면 오른쪽이 교육연구동, 왼편이 전시정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동

B1 선본기(별의 정문), 주차장
1F 출판도시 사무국, 카페-인포데코,
카페테라-노출의 집, 대학의실, 이랜드출
2F 워터 프린트(물)의 정문, 한국산업단지공단,
출판유통진흥원
3F KT센터, 한국전자출판협회, 오아시스룸

전시정보동

1F 다목적홀
2F 원작방 박물관, 아시아광장(아외무대), 전시홀
3F 영상전시홀 A, 출판도시문화재단 사무실(별관)
4F 영상전시홀 B

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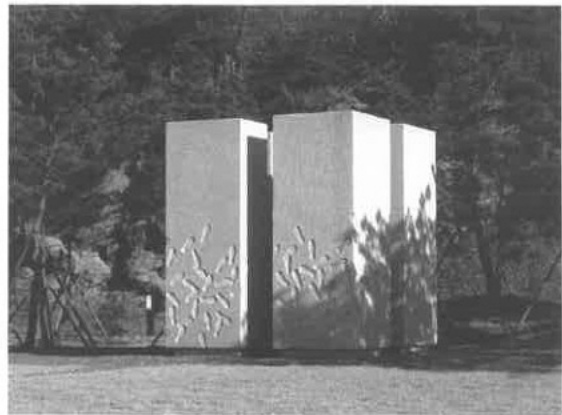
평일 09:00~19: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09:00~17:00

센터 시설을 대관·활용에 관한 문의
출판도시 사무국 TEL 031-955-0001

출판도시 단체견학 신청

20인 이상은 단체견학으로, 사전에 예약, 방문하시면
출판도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안내를 해 드립니다.
최소 방문일 2주 전에 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출판도시에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지혜의 빛 1

'지혜의 빛' (전수현 작, 300x300x350cm 기종
12.5톤 4개, 총60톤, 화강암, 조형)은 21세기의
가능성과 변화, 그리고 남획이 하나 되어 살아남
지혜를 상징한 조각 작품입니다.

한옥 2

전라북도 정읍에 있던 200년 이상 된 살림집(김정수
가족 별채)을 이전 하여 건립한 것으로 전통한옥에서
볼 수 있는 선조들의 건축적 지혜가 출판도시의 각종
건축물에도 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해송아름문학비 3

아름문학자가 그 마해송 선생의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비입니다. 장경다리 다담관, 비워 같은
심자, 61개의 작은 불이 빛나는 기둥들이 만들어진
공간으로, 발발과 울림, 울림과 소리, 아린이를
사랑하는 영혼이 오셨습니다.

몽길교 4

어려운 역경에서도 나라와 민족은 물론 세계의
평화를 깊이 염원 청년 민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의사의 아호에서 이름을 따온 다리입니다.

운석교

온갖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 출판의 길을
열어온 한국 출판의 성장물 위하여 꿈과 마음을
비차신 출판계 원로님들께 헌정하는 다리입니다.

몽락발전기 5

환경, 생태 우선의 대안에너지로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갈대갯강의 보호와 함께 현실 속의
에너지원으로서 도입하였습니다.

심학산 6

여부터 맑은 문인을 배출한 이곳 파주시 문발리
일편은 물론 멀리 북해 산까지 내다보이는 해발
193미터의 심학산은, 수몰이 우거진 산으로 맑은
약수가 흐릅니다.



Guide Map of Paju BookCity

책의 마을 출판도시 안내도

연화당 아트 북 카페 '황기 있는 책방'과 '갤러리 문터스'

TEL 031-955-7000~5 | 홈페이지 www.youthreading.co.kr |

오픈 10:00~18:00 | 휴무 일사 휴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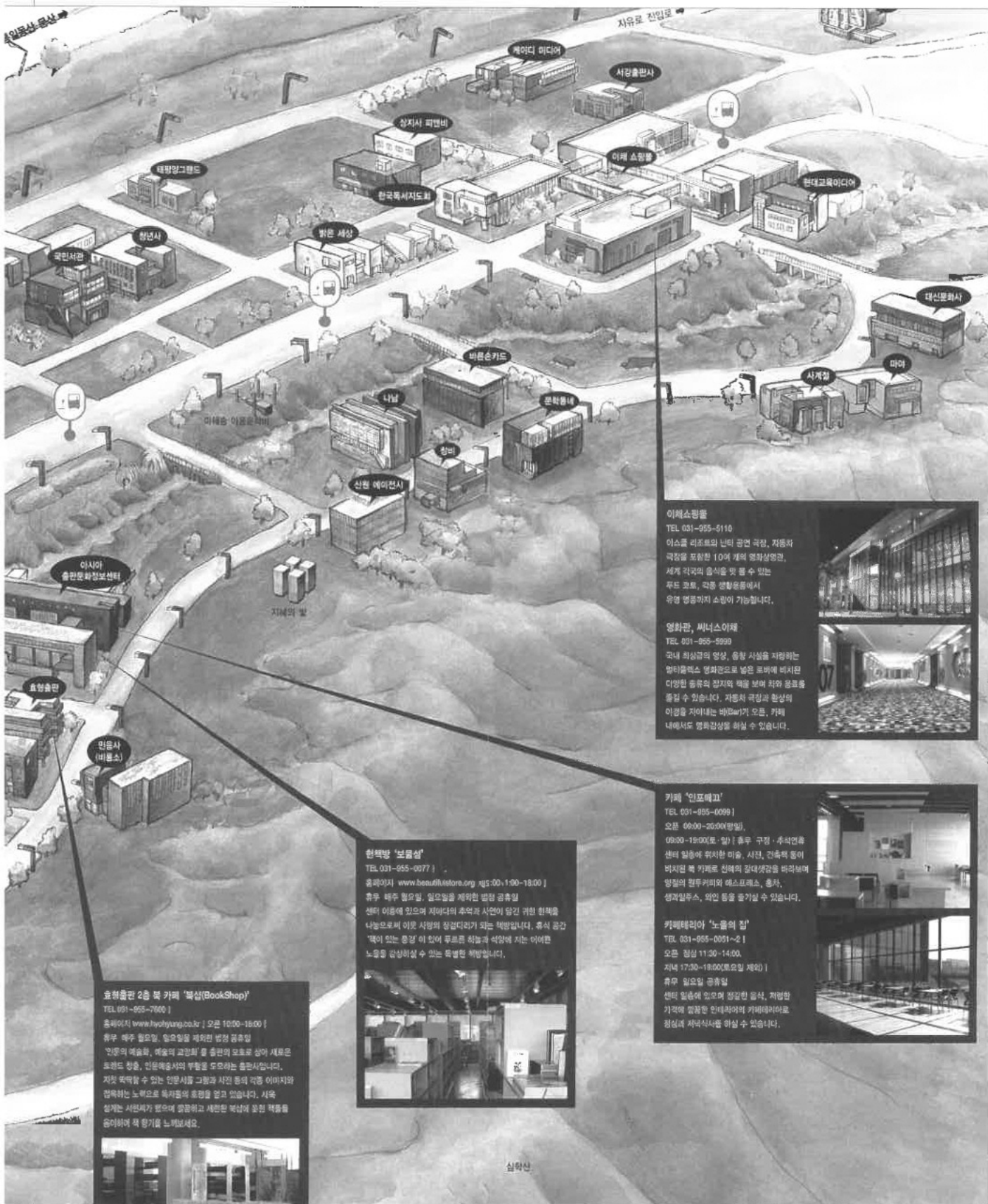
중서당 미술과 사진 등의 시각예술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 등, 아름다운 명소를 책으로 담아내는 작업에 열정을 쏟는 출판사, 열화당의 아트 북 카페에 열려있습니다. 서점에서 찾기 힘든 구판도시를 비롯한 열화당의 모든 책과 외국 예술서적을 판매하고 있으며, 책 속의 예술작품을 실제로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와 파릇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국은 물론이려나 책이 열려와 감동하기 좋은 일거양득입니다.

한식당 '갈래의 집'

TEL 031-955-7101

출판도시의 간이 한식당으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풍성한고 맛있는 식사를 자랑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이해소형물
TEL 031-955-5110
이소형 리조프의 님의 공연 극장, 작품과 국경을 포함한 10개 개의 영화상영관,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푸드 코트, 각종 생활용품에서 유명 명품까지 쇼핑이 가능합니다.

영화관, 씨너스아재
TEL 031-955-5999
국내 최상급의 영상, 음향 시설을 자랑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 넓은 로비에 배치된 다양한 종류의 영화와 책을 보며 차와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택과 극장과 할당의 여가를 지어내는 바(Bar)가 오픈, 카페 내에서도 영화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인포메코'
TEL 031-955-0099 |
오픈 09:00-20:00(월요일)
09:00-19:00(토요일) | 휴무 구경 · 추석연휴
센터 일층에 위치한 미술, 사진, 건축 등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는 카페로 신예의 강대강을 바라보며 양질의 커피와 에스프레소, 샌드위치, 생과일주스, 와인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노출의 집'
TEL 031-955-0001-2 |
오픈 점심 11:30-14:00,
저녁 17:30-19:00(토요일 제외) |
휴무 일요일 공휴일
센터 일층에 있으며 정갈한 음식,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인테리어나 카페테리아로 장식과 재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한복방 '보물섬'
TEL 031-955-0077 |
홈페이지 www.beautifulstore.org | 05:00-19:00 |
휴무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센터 이용에 있으며 저마다의 추억과 사연이 담긴 한복을 내놓으셔서 이웃 사랑의 정이 담긴 기부도 가능합니다. 휴식 공간 '책이 있는 공간'이 있어 무료인 화날과 석양에 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실 수 있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효형출판 2층 북 카페 '북샵(BookShop)'
TEL 031-955-7000 |
홈페이지 www.hyojung.co.kr | 오픈 10:00-18:00 |
휴무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
'인문의 예술관, 예술의 교점'을 중점의 모토로 삼아 새로운 도전도 청춘, 진취적정신자의 부활을 도모하는 출판사입니다. 저와 함께할 수 있는 인문서를 그림과 사진 등의 각종 이미지와 함께하는 노력으로 독자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실용적인 서적이 나오며 출판된 책상에 놓인 작품을 읽어보며 책 향기를 느껴보세요.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출판단지조합 : 2004. 4. 20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출판국 세무과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시범세검면신청의 건

2004. 1. 7.

1. 귀 시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1개 입주사의 건축공사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준공인가권 토지사용을 받았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인 동 산업단지(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31조(감면신청)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도서에 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지방세감면 신청서 1부, 붙.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4-13호
수 신 : 육군제3182부대 헌병대장
참 조 : 수사과장
제 목 :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2004. 1. 13.

1.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국보방위에 여념이 없으신 귀 부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 부대의 헌수 15550-699호(2003. 12. 29.)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파주시와 공동으로 2003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2003 파주어린이 책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장 정문에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입장객의 출입을 위한 매표 및 행사 안내 등의 시설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3. 이 키오스크를 지난 2003년 12월 15일 16:30분경 제5895부대 89호 군용트럭이 접촉사고를 일으켜 매표소 3곳과 매표소간 책한마당 홍보게시판 설치물 등 키오스크가 보수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전도, 훼손되었습니다.

4. 이에 이 키오스크의 재설치를 위해 본임의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서 1부, 붙.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배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금지급을 신청합니다.
2004 년 1 월 12 일

신청인 (2인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 (신청인표시에 기재함)	성 명 : 파주출판단지조합 이사장 이 기 용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115940-0000012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38블럭 1 직 업 : 출판인 대 리 인 : 심병 이 합 주 주 소 :
피해자	성명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법인등록번호 : 115940-0000012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단지 38블럭 1
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기재합니다)	발 생 일 시 : 2003년 12월 15일 발 생 장 소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25m 주도로 가해자 소속 : 육군 제5895부대 사 고 내 용 : 파주어린이 책 한마당 키오스크 훼손
신 청 액	요 양 원 원 장 배 비 원 특입배상 원 위 자 료 원 장해배상 원 재산손해 19,340,420원(VAT포함) 유족배상 원 기 타 원 계 19,340,420원
위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내역 금액 지급일자 지급자 - - - -
사전 지급 신청액	내역 금액 사용 키오스크 재설치비 19,340,420원 「파주어린이 책 한마당」 행사비용으로 인상부하하기 위한 비용
첨 부 시 료	- 사고개요 1부, - 키오스크 설치도면 사본 1부, - 견적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사 고 개 요

- ▶ 일 시 : 2003년 12월 15일 16:30분경
- ▶ 장 소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5m 도로상
- ▶ 가해자 : 육군 제5895부대 상병 이승혁
- ▶ 피해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031-955-0001)

▶ 사고 내용

- 위 사고는 육군 제5895부대 89호 차량이 2003년 12월 15일 부대 전방지역 임무를 수행한 후 부대를 복귀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 내 25m 주도로를 주행하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과 파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한 2003 파주어린이 책 한마당 행사 시설물인 키오스크를 접촉하여 훼손시킨 사고임.
- 동 사고로 키오스크에 설치된 매표소 3곳과 매표소간 책한마당 홍보게시판 설치물이 보수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전도, 훼손됨.
- 동 시설물은 파주시와 당 조합이 매년 개최되는 파주어린이 책 한마당의 주요시설물로서, 금년 10월달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계속 설치해 놓은 상황이었음.
- 현저 공사가 진행중인 출판단지 내 도로에 평소 군용차량 출입이 빈번해지고 일부 차량은 과속도 일삼고 있는 실정임.

① - 파주출판단지 지방세감면신청의 건

② - 국가배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04-3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E-mail: pajupec@unitel.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4-47호
수신: 파주소방시장
참조: 소방행정과장
제목: 소방파견소 청사 확보에 대한 회신

2004. 2. 27.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한 소방, 방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서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 서의 소방행정과-580(2004. 2. 17.)호 관련 회신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귀 서의 파주출판도시 내 소방파견소 청사 확보추진에 따른 협의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시급히 필요한 사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청사 신축에 따른 예산 등 제반 여건이 여의치 않음을 통보 드립니다.

아울러 소방파견소 신축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 받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04-3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E-mail: pajupec@unitel.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4-89호
수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참조: 고객지원부장
제목: 가격 정산 자료 재요청

2004. 4. 22.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귀 공사의 서울(구)553-6029(2004. 3. 26.)에 대해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 조합 제2004-82호(2004. 4. 9.)를 통해 2004년 4월 17일(토)까지 용지공급 규정에 명시된 산업용지 조성원가 공급규정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정산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에서 우리 조합의 가격정산 자료 요청에 대해 아무런 회신이 없어 실업주사와의 협의변경 계약 및 정산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요청 드리오니, 4월 26일(월)까지 가격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04-3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E-mail: pajupec@unitel.co.kr

출판단지조합: 제2004-92호
수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참조: 고객지원 부장
제목: 기토지사용승낙사 필지지번 변경의 건

2004. 4. 22.

1. 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에 여념이 없으신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공사에서 준공인가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의 필지지번 변경 및 토지사용자를 변경하고자 별첨과 같이 「준공인가전토지사용승인」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준공인가전 토지사용신청서 1부.
2. 이행합의서 1부.
3. 토지사용승낙 신청에 대한 동의서 1부.
4. 대지위취도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매매토지 준공인가전 사용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이기용	사업자등록번호	128-82-02734
	업체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전화번호	031-955-0001
	주 소	경기 파주 교하읍 산남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8블록1		
사업명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1단계)	시행기간	1998.10.21.~2003.12.31.	
시행면적	875,341㎡	사업진도		
신 청 내 용				
사용신청 대상토지				
소재지	지번	면적(㎡)	지목	지정용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문발리 일번	별첨	53,678.9	광장용지	산업용지
사용신청용도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용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4년 4월 일				
신청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귀하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 3 - 소방파견소 청사 확보에 대한 회신
- 4 - 가격 정산 자료 재요청
- 5 - 기토지사용승낙사 필지지번 변경의 건

이행합의서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귀하

출판조합은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하 "출판조합"이라 한다) 간에 98.08.31. 및 99.03.30일자로 토지매매계약 체결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이하 "파주출판단지"라 한다)내 시범지구 및 2차지구토지 중 사용요청토지에 대하여 토지대금 완납된 토지권 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출판조합은 출판조합계산인 파주출판단지내 시범지구 및 2차지구토지 중 사용요청토지에 대하여 본인 입주사가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협의사항을 제출한다.

- 출판조합은 사용요청토지에 대한 건축중 또는 건축후 건축주의 부도 등으로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제 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제 3자권리 승계포함)의 인수자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범지구 및 2차지구 토지에 매매계약체결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여 귀 공사에 인도하였으나, 만일, 출판조합 또는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직접 원상회복하는 것을 승낙하며 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
- 귀 공사가 직접 원상회복하는 경우 매매계약체결로 인하여 출판조합 또는 건축주에게 지급된 반환토지대금을 귀 공사가 당해토지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에 우선 충당하고 이를 공제한 부분을 반환하는 것에 이의가 없기에 확인한다. 이때, 원상회복비용의 산출은 귀 공사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출판조합은 귀 공사의 미 수납 토지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 건축 착공 또는 준공하는 입주사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귀 공사에 통보한다.
 - 건축확공입주사가 귀 공사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장정을 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건축준공입주사가 귀 공사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첨부 1. 파주출판단지내 시범지구 및 2차지구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
2. 인감증명서 1부, 끝.

2004년 4월 일

대금한납전 토지사용승낙신청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홍, (인)
등록번호 115940-0000012
경기 파주 교하 신남 파주출판단지 39-1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4-162호 2004. 6. 21.
수신 : 파주시장
주소 : 건설과장
제목 : 파주출판도시 여름철 폭우대비 재난대책 점검요청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도시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자연배수가 불가능하여 펌프강제로 강제로 기배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입주사에서 실제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지어내게 됩니다. 개발사의 사측건축이 활발해짐에 따라 건축물의 옥상과 화장간 외부공간이 넓어지고, 이에 따라 폭우에 흡수되지 못하고 관로에 지표수(우수)가 집중되게 됩니다. 이는 하절기 집중호우가 내리면 지표아래 관로의 용량이 많아지게 되고 나아가 유수지와 갈대밭강이 범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범람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천문과 지하실묘의 유수유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우수가 배수관로를 역류할 수 있어 개발사가 침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출판과 인쇄산업의 특성상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파주출판도시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용된 수리개척의 기본내용을 비전문가인 입주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며 그에 따라 대비할 것은 태비하고, 점검할 것은 같이 점검하며 재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의 설계내용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수문대책과 판원펌프장의 가동기준과 펌프용량의 여유율과 각종 안전장치 내용 및 비상연락망 등 운영의 방법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입주사와 우리 조합에게 통보내지는 설명하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재의 배수강우량과 그 이상으로 폭우가 올 경우 개발사가 취할 수 있는 대처요령에 대해서도 충분히고 남달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비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작은 노력도 모아 발생가능한 재해의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해가 발생될 경우 피해당사자로서 재난관리의 책임한계를 정확히 알고자하며, 재해예방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철저한 감독을 요청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4-180호 2004. 6. 30.
수신 : 육군3182부대장
주소 : 작전참모군보실장
제목 : 파주출판도시 건축물 고도 확인에 관한 사항 협의요청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으신 귀 부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귀 부대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출판도시는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 중흥을 위한 핵심기지로써, 순조로운 건축진행과 함께 성공적인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출판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입주업체들의 이익 창출은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산업도시가 될 것이며,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절경도시라는 기존의 파주시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시키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 도시는 귀 부대에서 건축물 고도원칙을 일괄적으로 협조해 줌으로써, 각 필지별로 목적에 합당한 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귀 부대에서는 지난해 최종 건축물 고도협의에서 자유로 인접 인접지구는 10m 높이로, 나머지 출판지구는 15m 높이로 일괄적인 고도원칙을 조정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일괄 협의에서 누락된 출판도시의 핵심 자원이었던 주차장 부지와 파출소 부지에 대해 10m 높이로 협의된 범위안에 위치한 주차장부지 4개소와 15m 높이지역 내에 위치한 파출소부지에 대한 건축물 고도를 아래와 같이 주변의 건축물 높이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건축허가를 위해 붙임의 확인서 발급을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순번	지번	당초높이	조정높이	비고
1	문원로 530-2	8.0m	10.0m	주차장
2	문원로 507-5	8.0m	10.0m	주차장
3	문원로 500-7	8.0m	10.0m	주차장
4	문원로 498-5	8.0m	10.0m	주차장
5	문원로 520-8	8.0m	15.0m	파출소

붙임 : 출판도시 건축물 고도 확인서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6 - 파주출판도시 여름철 폭우대비 재난대책 점검요청

7 - 파주출판도시 건축물 고도 확인에 관한 사항 협의요청

파주출판도시 건축물 고도 확인서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소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건축물 고도와 관련하여 아래 필지의 경우 일괄 건축물고도 협의에서 일부 필지가 누락되어 아래와 같이 고도를 확인합니다.

- 아 래 -

순번	지번	당초높이	조정높이	비고
1	문발리 520-2	8.0m	10.0m	주자장
2	문발리 507-6	8.0m	10.0m	주자장
3	문발리 500-7	8.0m	10.0m	주자장
4	문발리 498-6	8.0m	10.0m	주자장
5	문발리 520-8	8.0m	15.0m	파출소

2004년 월 일

육군3182부대장 (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FAJU BOOK CITY
413-81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599-0000 팩스(031)599-0004 E-mail: pajucoop@naver.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 2004-2호
수신 : 파주시장
제목 : 파주출판도시의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 요청

2004. 7. 26.

파주출판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귀 시에 감사드리며,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우리 입주자들은 현재의 단지 내 공공시설의 인수 및 관리책임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입주자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단의 국가산업단지는 개발사업이 준공되고 사실상 주민입주가 시작되면 국가 및 지자체에서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사업시행자에게 조치를 요청하여 입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원활한 행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파주출판도시의 경우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 시 및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누가 현재의 관리주체인가를 놓고 논란이 많고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주요 진입도로의 개통 지연 등으로 불편 또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파주출판도시가 조성되고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각종 세금도 모두 부과하여 귀 시에 납부하는 세금도 적지 않으며, 파주출판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고용창출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단순히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에도 단지 내 쓰레기 수거, 납품 진입도로의 조속한 개통, 하수처리장의 적기확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도로의 유지관리 등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고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우리 입주자들은 산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귀 시는 단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부리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시의 발전에 따른 자치단체로서 기본적인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까지 여겨집니다.

귀 시는 그간 파주출판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파주시의 일원으로 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지만 위와 같이 산업단지의 편리화 관련한 문제들은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로서 마땅히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우리 입주자들은 기업 활동에 전념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오니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FAJU BOOK CITY
413-81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599-0000 팩스(031)599-0004 E-mail: pajucoop@naver.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4-2호
수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 출판진흥과장
제목 : 출판단지 내 지류유통업체 입주 관련 의견 회신

2004. 8. 10.

1. 귀 부의 무관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출판진흥과-4584호(2004. 7. 30.) 관련입니다.

2.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를 맞아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출판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되는 국가산업단지로서, 이러한 목적사업의 성공을 위해 동 단지에 출판을 비롯, 인쇄, 제본, 제책, 출판유통, 책표, 지류 등 출판관련 산업체 150여개사가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출판단지에는 출판산업의 핵심적인 원자재 조달업체인 지류유통업체의 입주가 시급한 실정으로도 우리 조합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귀 부로 요청한 출판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지류도·소매업체 예의입주 승인 요청에 대해 불일 자료와 같이 입주 당위성을 설명 드리오니 수용하시어, 아래의 지류유통업체가 하루 빨리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업체명	지번	면적(m ²)	비고
전영지업	498-10	1,930.4	
대림지업	514-9	727.1	
이화지업	525-1	1,774.4	
서울지류유통	535-2	3,417.8	
지지아이	535-3	2,556.0	

붙임 : 출판단지 지류유통업체 입주당위성 설명자료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출판단지 지류업체 입주당위성 설명

□ 지류업체 현황

업체명	지번	용지면적(m ²)	비고
전영지업	498-10	1,930.4	입주완료
대림지업	514-9	727.1	
이화지업	525-1	1,774.4	
서울지류유통	535-2	3,417.8	입주완료
지지아이	535-3	2,556.0	입주완료

□ 지류업체 입주 배경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되는 국가산업단지임
- 이러한 목적사업의 성공을 위해 동 단지에는 출판을 비롯, 인쇄, 제본, 제책, 출판유통, 지류 등 출판관련 산업체 150여개사가 입주를 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현재 산업용지로 분류된 지역에 지류도·소매업체가 입주하게 된 것은 출판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 관리기반체제 등이 수립되기 전, 즉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인 1991년 출판관련 산업체가 이업종(異業種)간 협동화사업으로 출판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선(先)분양한 것임.
- 조합에서 당초 개발계획 수립당시, 출판산업의 핵심적인 원자재인 종이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지류유통업체의 입주를 포함시킨 것임.

□ 입주 당위성 설명

- 특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출판 및 인쇄관련 업종의 집적화 단지로 종이제품 공급업체의 입주가 필수적으로, 산업단지 관리기반

8 - 파주출판도시의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 요청

9 - 출판단지 내 지류유통업체 입주 관련 의견 회신

계획상의 입주대상업종인 필트, 종이 및 판지 제조업(221)의 입주보다 실질적으로 출판 및 인쇄에 필요한 종이를 공급하는 업체인 지류도소매업체의 입주가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제지업체로부터 원자재인 종이를 공급받는 인쇄사는 운전자실을 갖춘 극히 일부 대형인쇄사뿐이며, 출판단지에 입주하는 출판사 및 중소인쇄사에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지류도소매업체의 입주는 당면한 것임.
- 지류유통업체를 통해 원자재인 종이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출판기획, 인쇄, 제책, 제본, 유통 등의 원스톱체제를 갖추므로써 양질의 책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독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지류유통업체 입주 현황

- 2004. 5. 현재 출판단지에는 서울지류유통, 지지아이, 진영지업 등 지류유통업체가 입주를 완료하여 한걸사, 민음사, 장비, 동녘 등 27개 출판사와 보진재, 화성프린팅, 도봉금강, 희망, 대신문화, 에스퍼티, 신일문화, 케이디미디어, 약업신문, 삼지P&B, 천일문화사, 태평양그랜드 등 12개 인쇄사에 출판 원자재인 종이를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 출판단지에는 출판사 80여개사, 인쇄사 10여개사가 더 입주할 예정으로 원자재 공급업체인 지류유통업체의 입주는 필수적인 일.

□ 요청 사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입주대상업종에 필수적으로 입주해야할 업종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는 업종처용이 필요함.
- 이에 당초 출판단지 건설계획 수립당시 기 분양된 지류유통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앞으로 조합에서는 중 지류유통업체의 입주에 대해 당해 사업자에 한해 그 업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것임.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 2004 - 201 호
수신: 파주시청
참조: 수도환경사업소장
제목: 파주 곡릉천하수정리치장 건설과 관련한 의견

2004. 8. 21.

이제 끝났던 듯이도 한숨 쉰이었습니다. 귀 청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파주시가 시행하는 파주시 곡릉천하수정리치장의 건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위 하수처리장의 수해와 입장에서 그리고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진 주민으로서 비교적 중도적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파주시와 파주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각 대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양 기관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각각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연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회복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완전한 회복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할 수가 없었으며, 이는 비단 우리 세대만의 사할뿐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개발을 시달로 한강하구의 잘 보존된 생태계의 추가적인 손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늦었지만 우리가 당초 제시했던 원론적인 해결방안의 수용을 다시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우리는 원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판도시의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곡릉천하수정리치장까지 6km의 차질관을 통해 가압으로 보내져서 처리 후, 방류수를 다시 역으로 출판도시까지 6km를 흘러보내 출판도시의 유수자를 통해 한강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압의 차질관은 유수보수의 어려움도 예상되며 관점함부의 파손 등으로 보안을 요할시될 우려가 있을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적과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소지역별로 자체적인 소규모의 처리시설을 분리 설치하여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출판도시의 경우 현재 1단계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임시배수처리시설(중계처리장 부지)이 위치한 부지에 처리용량을 증설하면서 임시시설을 영구시설로 전환하여 해결하고, 2단계지역은 개발단계에서 2단계지역에 소규모처리시설을 단계로 설치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어 최종 결정을 하여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4 - 231호
수신: 경기도지사
참조: 교통정책과장
제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대중교통망 신설 및 주변 노선 연장 운행 요청

2004. 8. 27.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 지방자치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귀 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관내 교하읍 문발리 일대 48만여평에 조성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산업단지로서 1998년 11월 1단계 26만여평의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12월 단지 내 기반시설공사가 완공된 가운데 출판 및 인쇄 등 관련 업체 100여개사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말까지 추가로 약 400여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3. 이처럼 본격적인 건축전행과 입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활동에 가장 필수적인 대중교통망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20여편의 자체 서불서비스를 투입하여 입주시 임직원들의 출퇴근을 비롯, 금융업무, 거래처와의 업무, 고객들의 내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주인구 증가로 인해 자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어 입주업체들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인 경기 불황속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가야할 국가산업단지가 고립된 설치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입주시 뿐만 아니라 입주를 앞두고나 건축 중인 입주 예정사로 부터 거센 항의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4. 이에 출판단지에 입주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시 임직원들의 연명으로 출판단지 대중교통망 개설 및 주변 버스노선 연장운행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회자를 갖고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인 서명록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4 - 251호
수신: 파주시청
제목: 파주 곡릉천하수정리치장 건설공사 중지 및 전면 재검토 요청

2004. 9. 17.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 시에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진행시키다 중단되었던 곡릉천하수정리치장 건설과 관련, 천연기념물에 대한 환경영향을 판단하는 문화재청에서 현재까지를 보호하기 위한 심사를 소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귀 시에서 방류수의 우회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귀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는 우리 단지에서 배출된 오수를 이 처리장까지 보낸 후 다시 갈대장강으로 흘러드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우리가 출판도시 건설에서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갈대장강에 다량의 하수를 방류함으로써 습지에 서식하는 각종 습생 동식물들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우리 스스로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 결과적으로 유수지인 갈대장강의 법적소유와 관리책임은 귀 시에 있겠지만, 수백억원에 투입해도 단기간에 한해 현재의 갈대장강에 하수정리치장의 하수를 대량으로 방류하려는 귀 시의 처사는 민간차원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무관하게 짓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출판단지의 온발배수처리장 바로 앞의 한강 역시 곡릉천과 다름없는 철사도래지로서, 이처럼 문화재청은 이런 곳의 철저한 조사도 없이 가까운 특성회로 이같은 안을 받아 들였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5. 따라서 곡릉천 하수정리치장 건설공사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리며, 발생지별로 분산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 10 - 파주 곡릉천하수정리치장 건설과 관련한 의견
- 11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대중교통망 신설 및 주변 노선 연장 운행 요청
- 12 - 파주 곡릉천하수정리치장 건설공사 중지 및 전면 재검토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경기도 파주시 고매동 연평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552-3001 팩스031-9552-9004 E-mail: pajucoop@netnet.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 2004-263호 2004. 10. 4.
수신: 파주경찰서 시장
제목: 파주출판도시 내부도로의 속도제한 하향조정 요청

귀 서에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인과 관련인들이 효율적인 업무 집합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주도로 개발에 착수했으며, 정부로부터도 적극적으로 유형무형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며 조성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개발과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본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유수의 건축가대내이로 초빙하여 독특하고 전문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코디네이터 등이 작성한 건축설계지침을 통해서 전체적인 개발의 기준을 잡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문화적인 가로의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적인 목표는 그 근저에 인간본위 사람위주의 도시건설이라는 당연한 당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적이지 않은, 차별화되어서는 그나마 찬란한, 사람위주의 도시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른바 "나눔과 느낌"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새우고자하는 것이 건축적인 테마인 것입니다.

특이한 외형적인 거리가 아니라 출판도시 안과 밖에서 느끼는 속도의 차이를 통해 출판도시를 꿈의 도시로 만들고자합니다. 출판도시를 기존의 관성과 타성에서 구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하여 차를 이용한 이동이 오히려 불편한 보행자 중심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공문 출판단지조합 제2002-106호(2002.5.14.)로 요청한 바와 같이 대로(폭25M)의 경우는 현재 70km/hr에서 40km/hr로, 기타 중소로의 경우는 50km/hr에서 20km/hr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주시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조정은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된 바 있으며, 현재 출판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잦은 교통사고를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경기도 파주시 고매동 연평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552-3001 팩스031-9552-9004 E-mail: pajucoop@netnet.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4-277호 2004. 10. 25.
수신: 문화체육관광
제목: 파주 곡룡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중지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출판단지조합 제2004-252호(2004.9.17) 및 천연기념물과 - 2004호(2004. 10. 05.) 관련입니다.

2. 귀 청과 파주시가 협력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곡룡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 우리 조합에서는 공사 중지 및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귀 청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문화재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통해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3. 어떻게 천연기념물에 대한 환경영향을 판단하는 귀 청에서 곡룡천 앞과 독간은 칠서도래지인 출판단지 문발배수취점까지 다양한 하수를 방류하여 습지에 서식하는 각종 습성 동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수백억원을 투입해도 난습기 습은 천하의 갈대밭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심도있는 결정이라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에 출판단지를 생태도시로 만들려는 우리 입주자들은 귀 청의 소극적인 결정 및 방류수의 우회라는 단순한 방법으로 공사를 속행하고 있는 파주시와 곡룡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5. 따라서 곡룡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전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출판단지 입주자 대표 및 임직원들의 연명으로 강력히 요청 드리며, 반성지표로 분산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부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아리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파주곡룡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중지 요청 민원인 명단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조철환 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경기도 파주시 고매동 연평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552-3001 팩스031-9552-9004 E-mail: pajucoop@netnet.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4-301호 2004. 11. 10.
수신: 문화체육관광
참조: 천연기념물과
제목: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지역(출판단지 갈대밭강) 생태환경 조사보고서 내용 공개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천연기념물과 - 2462호(2004. 11. 02.)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는 우리 조합의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 제10차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에서 재검토한 결과, 기 허가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사에서 차분한 불가함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우리 조합에서는 귀 청에서 허가한 파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따라 출판단지 내 갈대밭강에 처리수를 다량(11,900톤/일)으로 방류할 경우 생태계가 어떻게 훼손되는지에 대해 학제 및 환경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난 11월 3일(수) 출판단지 갈대밭강 보전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관한 전지한 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학제 및 환경전문가들은 갈대밭강 자체가 물이 흐르지 않는 늪지로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다량으로 방류할 경우, 늪지의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져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차피 전문가들이 방류수로 인해 갈대밭강이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 청에서 허가를 줬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허가되었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 입주자로서, 귀 청에서 제10차 문화재위원회에서 재검토한 당시, 출판단지 내 갈대밭강의 생태계 및 환경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출판단지 내 갈대밭강에 방류할 경우, 출판단지 내 갈대밭강의 생태계 및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에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방류지역 출판단지 갈대밭강 및 주변의 생태계 및 환경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경기도 파주시 고매동 연평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552-3001 팩스031-9552-9004 E-mail: pajucoop@netnet.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4-326호 2004. 11. 30.
수신: 조정설계 서안(주)
참조: 김응태 소장
제목: 출판도시 필지별 조경 설계비 처리 안내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우리조합에서는 귀사와 지난 2004년 4월 20일 출판도시 전체의 조정설계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하여 개발 건축물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발 입주사를 대신하여 "출판도시 조정설계지침서 작성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조합에서는 설계비 소액수 및 설계자료부터 필지별 조정 설계비를 대신 납부 받아 2004년 5월 7일 선금금으로 금 이현상책임설안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필지별 조정설계 용역진행이 지연되어 더 이상 정산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정 설계비를 납부한 건축가 명단을 보내드리오니, 건축설계회사에서 요청할 경우 선금금 범위내에서 서금제시서를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출판도시 전체 조정 설계비 납부 현황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13 - 파주출판도시 내부도로의 속도제한 하향조정 요청

14 - 파주 곡룡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중지 요청

15 -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지역(출판단지 갈대밭강) 생태환경 조사보고서 내용 공개요청

16 - 출판도시 필지별 조경 설계비 처리 안내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4-329호 2004. 12. 2.
수신 : 파주시장
참조 : 수도환경사업소장
제목 : 파주출판도시 임시폐수처리장 및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건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종말처리장관련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 즉각적으로 화신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귀 시의 공문에도 회신지연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해명이 없는 점은 유감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귀 시에서 지난 11월 20일자로 회신하신 내용중에서 아람에서 '당동수가 수로 및 갈대밭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하고자 함'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임시폐수종말처리장의 증설은 꼭 지중화 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임시폐수처리장에 대해서도 주변 인주사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상으로 시설할 경우 극심한 민원에 타락되게 되어 출판도시의 입주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5. 임시처리장의 지중화와 하수처리장 전반의 재설치는 파주출판도시 공장 입주에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개발 초기에 기반시설 공급계획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귀 시와 한국토지공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공문에 대한 회신의 지연과 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차질로 인해 행정처리미숙으로 인하여 출판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조합에게는 존속스럽기 그지없습니다.

6. 아울러 임시폐수종말처리장의 증설과 관련하여 준치기간, 냄새 및 소음 방지대책, 자상에 노출되는 시설물의 미관문제 해결방안 등을 사전에 우리 조합과 협의하여 파주출판도시의 전체 이미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사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4 - 336호 2004. 12. 10.
수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 출판산업과장
제목 :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리며, 출판산업과 - 73호(2004. 12. 02.) 편입합니다.

2.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단지 1단계 개발을 주도했던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가 일반적으로 개발되는 경형화된 국가산업단지의 한계를 넘어 자연과 인간, 문화와 산업이 살아 숨쉬는 출판문화도시 건설이라는 일관된 도시적 목표실현을 위한 단계를 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이 1단계 개발사업의 원형성 있는 노후를 통해 확보한 원형한 문화산업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불임과 같이 우리 조합의 의견을 제출하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단계 개발주체인 우리 조합은 1단계사업이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1단계는 물론 2단계까지 단지 전체 관리 및 운영방안 경험을 신속하게 경험하여 출판단지를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개발하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우리 조합과 2단계 개발계획을 협의 진행도록 한국토지공사에 관리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1부, 1부,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1. 1단계 개발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합을 실질적인 개발의 주체로 인정하고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당초 동일한 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1단계와 2단계는 동일한 하나의 단지처럼 개발하여야 한(개발주체를 고려한 다: 파주출판도시)
3. 1단계와 일관성 있는 도시 및 건축설계기준의 작성 및 적용
4. 토지의 분양은 1단계와 동일하게 조합을 통해서 일괄로 실시자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부처적자의 토지에 대한 욕심으로 개발의 지연과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건축설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단계별 초래. 1단계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분양이 공개경쟁입찰로 공급되어서 전체적인 일관된 개발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함.
5. 주차장 및 공공시설용지의 충분한 확보
6. 유사업종의 변경에서 영상산업과 출판업의 혼재에 따른 문제점 검토됨. 1단계의 출판사와 인쇄회사 사이에 연충장치 부재로 인한 소음, 냄새, 분진 문제 발생 사례(리원) 검토됨.
7. 토지이용계획상의 공공시설용지의 용도제한이 초기의 검토(연구보고서)와 달리 너무 한정적인 용도로 국한하여 지정하는 것이 문제임. 복합시설이 가능하도록 토지의 용도를 다양화해야함.(아시아센터는 문화시설부지로 국한하는 것이 문제/속박시설이나 도서관을 세울 수 있는 용도가 되어야 함)
8. 건축설계기준은 초기부터 조합, 건축가, 한국토지공사가 협의하여 단계별로 진행하여야함. 교량의 설계, 방파제 지상구조물, 단지 진입구의 상경관문, 조경과 가로시설물의 설계 등은 조합과 건축가디자이너가 사전에 단계별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9. 정확한 갈대밭강의 실태조사와 공사 중 보호 대책의 수립필요. 준공 후 갈대밭강의 유지관리 계획도 필요함.
10. 1단계 완충녹지는 평면상의 계획으로 단면계획상 그 효과가 미비함. 완충녹지를 다른 시설물로 계획하고, 완충녹지가 아닌 휴식과 공간 위주의 녹지로 전환필요
11. 개발계획의 주차대수를 관련 조례에 의하여 설계하여 절대주차대수가

- 부족함, 공공주차면적을 확대하고 개발주차대수의 기준도 검토하여 별도로 준수해야 할 것임.
12. 일반 산업단지와 차별화된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개발 후에도 적용되는 도시설계기준(지구단위계획)과 옥외광고물지침도 필요하며 이는 개발 중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준공 후 도시설계 지침이 세워질 때까지 적용되어야 함.
 13. 지구계 주변부는 개발 중이나 준공후에도 상용(토지형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한 피행방지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14. 도로의 기반이 연약한 흙위에 위치하여 도로가 주변 건축공사를 인허 너무 쉽게 파손됨.
 15. 도로 유휴지시스템의 변경 및 속도제한의 문제 등도 개발계획변경에서 검토됨
 16. 우수처리 시스템의 검토를 통해 오일된 노상의 물이 바로 수로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술검토 필요.
 17. 단지의 진입과 출입을 위해 분할 I.C.에 접속도로의 건설 및 연결계획

결론적으로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여타의 개발문제를 조합과 귀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부와 한국토지공사, 우리조합이 공동으로 검토위원을 열어 1단계 개발에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부의 예산확보와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 2004 - 346 호 2004. 12. 20.
수신 : 파주시장
발주 : 교통행정과장
제목 : 파주출판도시 도로점용허가조건 변경요청 및 주차단속 요청의 건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판도시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사와 인쇄사가 이업종간 협동과 사업을 위해 오래전부터 논의하기 시작하여 개발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책의 도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판도시가 친환경적이면서도 문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적인 모습을 성숙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판도시의 세계출판계와 건축전문가들의 전략코스이며 환경단체와 언론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3. 이 훌륭함만 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개발초기에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조합원들과 그 열망을 건축설계자집이란 규약으로 만들어 낸 건축가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이러한 열망과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파주출판도시가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규약은 개별사에게 속박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보면 이렇게 절제함으로써 출판도시가 대외적으로 차별화 되고 내부적으로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는 다시 개별사의 홍보에 큰 도움을 줄으로서 공동성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4.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도동, 교량난간, 옥외간판 등 가로 시설물도 모두 출판도시의 독특한 디자인을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귀 시의 도로점용허가에서 허가조건으로 제시되는 볼라드의 설치와 노면표시요구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설치이부를 포함하여 디자인의 내용까지도 출판도시 건축설계지침을 근거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조합실무진과 교통행정과의 지남침의에서 우리가 요청한 주차단속업무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시어, 출판도시의 효율적인 자차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실 것을 제차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문화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파주출판단지 연계 대중교통망 개설 및 주변노선 연장무형 협조 요청

1. 파주출판문화진흥법 제2004-231호(2004.8.27) 관련입니다.
2. 파주출판문화진흥법보안심판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를 본관리 일대 48평만에 조성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보안심판단지로서 1988년 11월에 1단계 26만평의 조성공사를 착공한 후, 2004년 9월 현재 출판사 및 인쇄사, 지류업체, 유통회사, 지원시설 등 관련 업체 100여사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는 추가로 4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예정입니다.
3. 파주출판문화진흥법보안심판단지는 20만평에 달하는 2단계 조성공사가 2005년부터 시작되는 등 출판한 거족건축과 입주가 시작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심판지 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대중교통망이 연계되지 않아 단지내 조항에서는 20여개의 자체 셔틀버스를 투입하여 교통편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상주인구의 증가 및 관련업체간의 연계 업무증가로 인해 특별한 교통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보안심판단지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파주출판문화진흥법보안심판단지와 연계되는 대중교통망 개설 및 주변 버스노선의 연장운행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수치가 바라며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

4. 이에 공주행차정보시스템관리자와 연계되는 대중교통망 개설 및 주변 버스 노선도 변경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치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판인명: 김민정

www.net.go.kr

문화관광부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사업 집행이자 반납 통보

1. 우리부 출 86510-291(2003. 10. 7) 및 구 조항 제2003-287호(2003. 12. 9)와
관련임다.
2. 구 조항에서 2003년도 한국다사화특별집금사업으로 추진한 "2003 파주 여러
책 한마당행사" 사업결과를 용평리와 같이 농림부 및 한국다사화이 홍보하였을 일로
한국다사화특별집금사업회 제25차(자본사업) 회의 규정에 의거, 한국다사화회 및 협회
의자에 대한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의처 : 본서 기획, 공.

붙임 : 문서사본 1부, 끝.




국립중앙도서관
2004. 1. 12
서울특별시 중구

12/02

/ www.nct.go.kr / 2018

문화관광

출판사문고장 

출판선문과

주소 서울로 82-1 문화관광부 출판사문과 / www.mct.go.kr
 전화 02-3704-5649 / tocho@mct.go.kr / 공계

- 40



*우리 국토 아름답게 - 우리 교통

건설교통부

수신자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파주출판단지사업조합

(경유)

제목 산업단지내 주거시설의 근로자 우선분양요청관련 민원 회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자 임종으로 권의하신 산업단지내 주거 시설에 대한 근로자 우선분양 요청 등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산업단지 내의 주거시설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해 설치하는 저원시설로 규모 등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를 고려하여 세칙을 수립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한 공급방법은 관련법인 주택법이나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공 급하고 있으니 그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



수신자

파주시

발신자

시행 협조계획과-2207 (2004.11.24)

우 427-712 경기도 파주시 관문로 88 (양양동 1번지)

전화 02-2110-8143/50 전후 02-503-7309 / msh30@moc.go.kr

전송

/ http://www.moc.go.kr

/ 공계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경기도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합장(파주,교하,문발 524-3)

(경유)

제목 민원처리상황 통지

편리한 대중교통문화정착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버스노선의 신설내지 기존 노선의 연장운행』 등을 요청하신 민원건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우리도 제2차에서 검토후 회신하도록 조치하였기 알려드립니다. 끝.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발신자

시행 2004.09.04

우 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화원길 63(연서동3가1번지)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249- / 전후 031-249- / 사무지 106@yeonggi.go.kr / 공계

"사랑해요 경기, 함께해요 2009년 경기행동의 해"



파주시수도환경사업소



수신자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조합 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제 목 통일동산하수처리장 및 임시 폐수처리시설 증설관련 회신

1. 우리시 하수정화장 건설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출판단지조항 제2004-329(2004.12.02)호와 관련됩니다.

2. 통일동산하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된 방류수는 유수지까지 관을 통하여 방류할 계획으로 수로와 갈대밭상에 방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할 예정이며

3. 현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 폐수처리시설(300㎡/일)을 운영중에 있으나 최근 공장입수 증가에 따른 오·폐수량 증가로 증설(350㎡/일)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 처리장 가동전까지(05.12.31) 임시적으로 운영 후 절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리장 건설지연에 따른 중복지와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임시 폐수처리시설을 폐기시설비로 시설하여 향후 소규모 처리시설에 재충분하고 소음 및 냄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반출조 일계를 설치할 계획으로

5. 임시 처리시설에 따른 냄새 및 소음방지와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할 것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주시수도환경사업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수도권환경사업소, 수도권환경사업소, 수도권환경사업소

시행 하수도과-333 (2004. 12. 10.) 접수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아문로 215(별관 1층) / www.paju.go.kr

전화 (031)940-8572 전후 (031)940-4839 / gochoi@paju.go.kr / 공계



경기도



수신자 발신처 청주

(경유)

제목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준수 적극 홍보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최근 산업단지내 신규입주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환경법령 미숙지 및 무관심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 및 사법처분으로 인한 기업경쟁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를 관리하는 귀 기관 및 조합에서는 입주업체 및 회원사에 대하여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시에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가동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할 환경오염배출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한 시설

나.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신청시기 : 배출시설 설치전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다. 환경관리인 임명 :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치시설의 정상적이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24조)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신고 : 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변경전에 하여야 함. 단, 사업장 명칭변경 및 명단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경찰청, 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수도권환경사업소, 수도권환경사업소, 수도권환경사업소

발신자

시행 2004.02.03

우 480-790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0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850-2854 / 전후 031-850-2879 / 6617ajit@yeonggi.go.kr / 공계

발신처 : 파주시, 모현시, 동두천시, 양주시, 가평군, 의정부시, 파주출판단지조합, 수도권환경사업소, 수도권환경사업소, 수도권환경사업소

수도권환경사업소, 수도권환경사업소, 수도권환경사업소

- ④ - 산업단지내 주거시설의 근로자 우선분양요청관련 민원 회신
- ⑤ - 통일동산하수처리장 및 임시 폐수처리시설 증설관련 회신
- ⑥ - 민원처리상황 통지
- ⑦ -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준수 적극 홍보요청



파 주 시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유)

제 목 파주출판도시의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요청 회신

1. 파주시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파주출판도시의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가. 입주사들이 주요 진입도로의 교통지연등으로 불필요한 많은 피해는 출판단지 내 도시계획도로와 동축진입도로는 2004.1.9일 사업준공인가에 따라 공용개시되었으며, 남측 진입도로는 사업시행자의 준공인가 신청에 따라 2004.7.7일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준공 인가되지 않았으나, 출판도시 입주사의 편익을 위하여 실질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산업단지내 각종 공공시설은 2003.12.10일 인수인계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사업시행자가 점검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정비중에 있고 정비완료후 인수인계가 완료되며, 입주사의 생활불편사항(쓰레기 수거, 하수처리장의 적기확보,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도로 유지관리등)은 우리시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 휴기실(940-2552)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



파주시청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인) 2004.08.04
공인도

협조자

시청 도시개발사업소-605 (2004.08.04.) 접수 ()
우 413-719 경기도 파주시 마동동25(시원관리공단 3층) / http://www.pajuro.net
전화 031)940-2552 / 전승 031)940-2519 / klsac@pajuro.net / 공개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인간성 회복의 도시로”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아픈 역사의 상처 퍼주는
거대한 다리미 역할 할것”

■ “6·25의 상처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파주 출판도시가 그 아픈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잘 퍼주는 거대한 다리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기웅(63·사진) 파주출판도시 사업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파주출판도시의 건설 배경에 대해 묻자 그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먼저 이야기했다. 한국전쟁 전에 태어난 그는 “우리가 갖고 있던 고유의, 좋은 것들, 즉 윤리, 풍속, 의복 등 모든 문화를 파괴하는 현장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했다”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파괴된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해 인간성이 파괴된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이 이사장은 파주출판도시를 ‘인간성 회복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한다. 그는 “파주출판도시는 단순히 책의 도시가 아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공간이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복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지난 88년부터 기획해

17년째 건설중인 파주출판도시가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파주 지역에 건설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그 설계 지점 가운데 하나인 ‘절재의 마’도 인간성 회복을 염두에 둔 것. 그는 “절제한 참고, 풀이고, 아끼는 마음을 말한다. 건물의 간판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을 담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절재를 통해 서서히 파괴됐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남북 대치의 땅에서 평화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이 도시는 한국의 자연, 한국의 문화, 한국인의 심성을 그대로 복원해주는 도시가 될 겁니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남북의 사람들이 반세기 동안의 격차를 좁히는 데 큰 힘이 되는 도시가 되겠지요.”

이승형기자

2

.....
Metro 지금

조형예술 진풍경 건축전시장 방불

시원하게 트인 자유로를 감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 갈대밭 사이로 거대한 건축전시장과 같은 도시를 만나게 된다. 47만여명 규모로 조성중인 파주 교하면 문발리 출판문화도시.

올해말 1단계(26만평) 완공을 앞둔 이곳 ‘북 시티’ 건물은 저마다 독특한 형태로 지어질 ‘방학’을 맞은 국내·외 건축학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40여개 회사가 풍자를 붙였지만,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될 즈음에는 출판사와 인쇄소 등 150여 출판 관련 회사가 세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출판업계 150곳 입주

이곳 출판문화도시를 천자연 적이고 조형미를 갖춘 도시로 꾸민다는 목표 아래 입주 업체는 자발적인 건축자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건축가 민현식·송효상씨 등이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다.

때문에 건물과 형태와 재질은 물론이고 도시내 다리와 가로등,

가로수, 간판까지 세심한 기준에 따라 들어선고 있다. 출판문화도시내 ‘북센’ 사육은 땅이 연속되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건물 지붕이 비스듬히 경사를 이루고, ‘동네’는 길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부에 기둥이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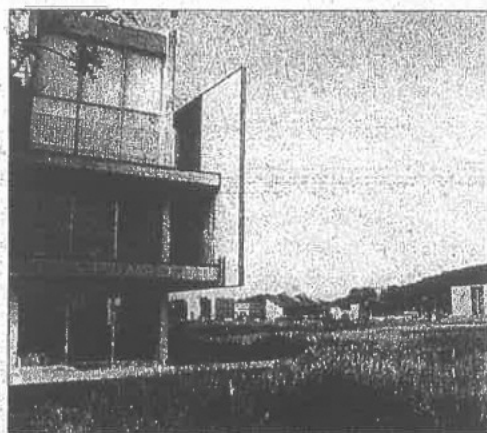
가로수·간판등 기준 엄격

‘올베게’는 인접한 3곳 건물과 조화를 이루게 지어졌다. 콘크리트와 나무가 적절히 배합돼 친근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한길사’는 외벽 마감에 감색 도료를 사용했으며 자세히 보면 책이 여러 권 꽂혀 있는 형상이다. 심학산 농산물 안고 들어선 ‘민음사’의 유통창고와 갤러리 건물은 남성적이고 강함 느낌을 준다.

출판문화도시에 들어서면 우선 가로등과 가로수, 그리고 갈대밭을 따라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셋강이 이색적이다.

가로등은 일정 부분만 녹이 손 뒤 더 이상 산화되지 않는 특수

연말 1단계완공 파주 ‘북 시티’



천지연적인 도시로 조성 중인 파주시 출판문화단지에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선고 있다.

공법을 사용해 인공적인 이미지가 전혀 묻어나지 않는다. 도로변 나무도 조성 당시 일대에서 자생하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아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해외건축가 견학 발길

출판문화도시는 원래 버려진 폐천 부지에 조성돼 곳곳에 습지가 많다. 이곳 역시 수풀과 함께 그대로 보존돼 있다. 도시를 따라 흐르는 셋강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출판문화도시 사업이 2단계까지 마무리되면 출판 관련업체 600여 곳과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 영상 만화센터, 문화산업 박물관 등이 들어서 세계적 ‘북 시티’로의 발돋움에 기대되고 있다.

협동조합 김근상 차장은 “이 도시는 인간성 회복을 위해 꾸며져 인간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국내외 물론 일본 등 해외 건축 전문가들의 견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shlee@kyunghyang.com

3

② 〈서부점점지를 평화의 특구로〉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인간성회복의 도시로” - 문화일보, 2004.06.25

③ [메트로지금] 연말 1단계 완공 파주 ‘북 시티’- 조형예술 진풍경 건축전시장 방불 - 경향신문, 2004.08.10

지난 6월 말 아시아 최대의 출판물 종합유통센터를 표방하며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 새롭게 문을 연 북센이 아직 원활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출판 물류의 선진화를 위해 각종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던 것과 달리 북센의 물류 자동화가 원활치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류 선진화의 대명사격인 네덜란드 북하우스를 포함 한 국내외 물류 컨설팅 그룹의 자문을 받아 연면적 1만 500평에 3층 규모에 세워진 북센은 물류동과 사무동으로 구성돼 최대 3300만권의 책을 보관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규모로 구성됐다.

흥송대 북센 대표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도 세계 수준급의 자동화설비 시스템을 갖추고 물류 경쟁력을 높였다고 공언했다. 개원 당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여하려다 김선일씨 살해사건으로 어쩔수없이 참석을 못했을 정도로 정부의 관심도 높았다. 정부의 문화출판진흥자금 100억원을 낮은 이자율로 빌려 쓰고 있기에 북센은 주식회사지만 공적인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현재 북센은 지방 서점에 출판물을 공급하는 도매사업에 비롯해 개별 출판사 영업과 물류 전반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제3자 물류'(3PL)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 물류 현대화와 자동화는 생각보다 쉽지

▶ 최대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표방 '북센'

물류 자동화시스템 불안... 주문·배송 말썽

"배송 低價 대형 유통질서 파괴" 비판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센에서 처리하고 있는 하루 물량은 도매사업 3만권, 개별출판사 물류 1만5000권, 인터넷 업체 인터파크의 3PL 방식 영업 4만권이다.

이 중 북센과 '인터파크'는 가장 많은 물량을 계약하면서 자동화의 불완전으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다. 인터파크는 북센이 문을 새로 열면서 일반 소비자의 주문 도서 배송을 북센에 일임했다. 하지만 북센은 소비자의 주문을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해 독자들은 제때에 책을 받아볼 수 없었다. 도서 주문과 북센의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서 출고와 배송 기능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인터파크는 7월 중순 이후 2개월 동안 3PL 방식을 보류했고, 지난주에야 다시 북센에 대행업무를 일임했다.

인터파크의 조성길 출판유통사업본부 팀장은 "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동률은 70%에 머물러 있다"며 "신속성이 생명인 인터넷 업체로서는 속이 탈 노릇"이라고 밝혔다. 북센의 이종호 3PL 사업본부 부장은 "북센이 도매업무를 주로 다뤄 B2C(개인)과 기업과의 거래 방식에 익숙하지 못해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라며 "시스템이 보다 안정되면 출판 물류 현대화의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하면 북센이 파주출판단지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경험을 쌓았던 개별 출판사의 물류대행 업무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출판사 영업은 다품종 소량 주문이 아닌 소품종 대량 주문이어서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도 있다. 이창연 서점조합연합회장은 "유통의 현대화를 주창하는 북센이 낮은 가격으로 책 배본 업무를 대행하며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북센이 출판유통 현대화에 나설 것 인지, 출판물 배본대행에 나설 것인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bali@segye.com



지난해 열린 파주어린이 책 한마당 행사의 어린이 도서전시장에서 한 어린이가 독서에 열중하고 있다.

"책과 친구해요"

'파주 어린이 책한마당' 15~24일까지
출판도시 건축·책교실등 문화체험도

올해 두번째를 맞는 파주 어린이 책한마당(운영위원장 이진복 동년 대표) 행사가 '출판도시에서 놀며 배우요'란 주제로 15일부터 24일까지 파주출판도시와 그 안에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등에서 펼쳐진다.

책 한마당 행사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책의 마술인 파주출판도시가 지향하는 문화와 산업, 생태환경, 건축도시의 교육적 환경과 출판산업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폭넓은 문화체험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갈대가 우거지고 화귀철새가 날아드는 새강이 흐르고 남북분단의 상징물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파주 출판도시에서 행사를 치를으로써 가족 단위의 나들이를 결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행사다. 각종 기념품도 부집하게 받을 수 있다.

개막식은 14일 오후 4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과 야외무대에서 치러진다. 주요행사는 다음과 같다.

▶출판도시 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건축학교=서예집 조성을 등 국내 대표 건축가 6명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판도시의 건축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다. 만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물과 공간' '미로와 피라미드' 등의 체험 학습을 통해 사람과 건축에 대해 쉽게 이해하게 한다.

▲어린이 책의 교실=인쇄사 보진재 사육에서 최철단 살비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한다.

▶어린이 도서전

양서를 선별해 분야별, 연령별, 주제별로 전시하며 종이로 이용한 설치미술가의 작품도 전시된다. 다양한 전자책도 전시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이 책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책마을 전시회

출판도시 입주사들의 특별전시회다. 출판도시를 체험한다는 주제에 맞게 입주사들의 다양한 어린이 서적이 전시된 물론 각 출판사 건물 내의 도서전시장, 다양한 책의 형태와 내용, 기획·편집, 재판 등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소개한다. 이밖에 '놀이한마당' '책문화한마당' 등 하루에 다 보기 어려운 점도로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되고 있다. 주최측은 셔틀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031)955-0050

편집=전근영기자 jmercury@

⑤ [박종현 기자의 출판25년] ▶ 최대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표방 '북센' - 세계일보, 2004.09.25

⑥ 책과 친구해요-15일~24일까지 '파주 어린이 책한마당' - 문화일보, 2004.10.06

“어린이책 한마당 구경오세요”

15~24일 파주출판도시서 열려

“신나게 놀고 재미있게 배우고 싶어요.”
‘2004 파주 어린이책 한마당’이 15~24일
경기 파주시 자유로 인근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다.

6만여명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룬 지난해
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이 행사의 주제는 ‘출
판도시에서 놀며 배워요’.

출판도시 체험프로그램으로 건축가와 출판
도시의 건축에 대해 알아보는 ‘어린이건축학
교’, 인쇄사 보진재 사옥에서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견학하는 ‘어린이 책의 교실’ 등이 마련
된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에서는 5000여종의 책을 분야별로 전시 판
매하는 ‘어린이 도서전’이 열린다. 센터 2층에서는 한채방 ‘보물섬’이 헌책
을 모아 베품시장을 연다. 고서와 화귀소장본도 전시 판매된다.

이곳에 입주한 30여개 출판사들이 자사 건물에 마련하는 특별전시도 열
린다. 국민서관과 들베개어린이는 그림책 원화전을 열고, 문학수첩은 해리
포터관을 마련해 마법사 복장과 캐릭터상품을 선보인다.

일부 프로그램 외에는 무료. 서울 합정역, 일산 마두역, 파주 금촌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031-955-0060~2, www.pajucbf.org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2005년

세계가 주시하는 출판산업의 집적화 도시로 떠올라

2005년은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시점으로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상주 인구의 증가와 함께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입주기업체들이 주축이 되어 출판도시의 도시기능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공공기관, 은행 등 각종 편의지원시설 도입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판도시 건설사업에 매진해 온 사업협동조합에서 분리하여 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가칭)를 결성하고 역할과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출판도시가 문화,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과 어우러진 다양한 행사를 기획, 고유사업으로 열어 가기 시작했다. 출판계 종사자들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연극과 음악회, 국제포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행사 등은 국내외적으로 출판도시에 대한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10월에는 출판도시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특별히 초대되어, 세계 출판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앞서 9월 베를린 건축전시회에도 초대되어 출판도시로서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건축물로 채워지는 건축도시로서 세계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다.

2005년

2005년 주요행사

01.11	출판도시 입주사 대표 신년하례식
01.27	제15차 정기총회
03.11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03.25	출판도시 도로와 갈대샛강, 자사 주변 청소
05.02	웅진씽크빅 기공식
05.23	나남출판사 입주기념식
06.03	세계사 입주기념식
06.08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장 겸 국제출판협회(IPA) 회장 아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방문
07.13	출판도시 2단계 건설관련 영상업체 설명회
09.06	2005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입주사 대표자 간담회
09.29	2005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및 오픈하우스 책마을전시회 개막
10.07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5', '스기우라 고헤이 잡지디자인 반세기'전
10.17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관련 독일 기자단 방문
10.21	플로리안 베이겔 교수 방문
11.22	바르셀로나 RAS 갤러리에서 출판도시 건축모형 전시회
12.01	을유문화사 창사 60주년 기념행사 및 도서전
12.26	심학산 살리기 결의대회 및 시민연대 서명운동 발대식
12.29	출판도시 송년회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① 2005. 05. 20 웅진씽크빅 사옥기공식



② 2005. 07. 13 출판도시 2단계 건설관련 영상업체 설명회를 개최



③ 2005. 09. 29 '2005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및 오픈하우스 책마을 전시회 개막



④ 2005. 10. 07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5




⑤ 2005. 10. 18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초청으로 한국관에 출판도시 건축모형을 전시

인쇄 발간된 자료

제15차 정기총회 서류

2005년 1월 27일(목) 오후 2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① 제15차 정기총회 서류 (2005. 01. 27)

목 차

1. 정기 총회 회순	3
2. 2004년도 사업보고서	5
3. 2004년도 결산보고서	21
4. 2004년도 잉여금(결손) 처분(안)	55
5. 감사보고서	59
6. 2005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63
7. 2005년도 사업계획서(안).....	67
8. 2005년도 수지예산서(안).....	83
9.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95
10. 토지대금 위탁관리상 발생된 차액 처분의 건	99
11. 2005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103
12.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107

제15차 정기총회 회순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축 사

—. 의사록 서명이사 및 서기 감찰 지명

—. 제14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 보고사항

1. 2004년도 사업보고

2. 감사보고

—. 의안심의

1. 2004년도 결산 승인의 건

2. 잉여금(결손) 처분(안) 승인의 건

3. 2005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4. 2005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5. 2005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6.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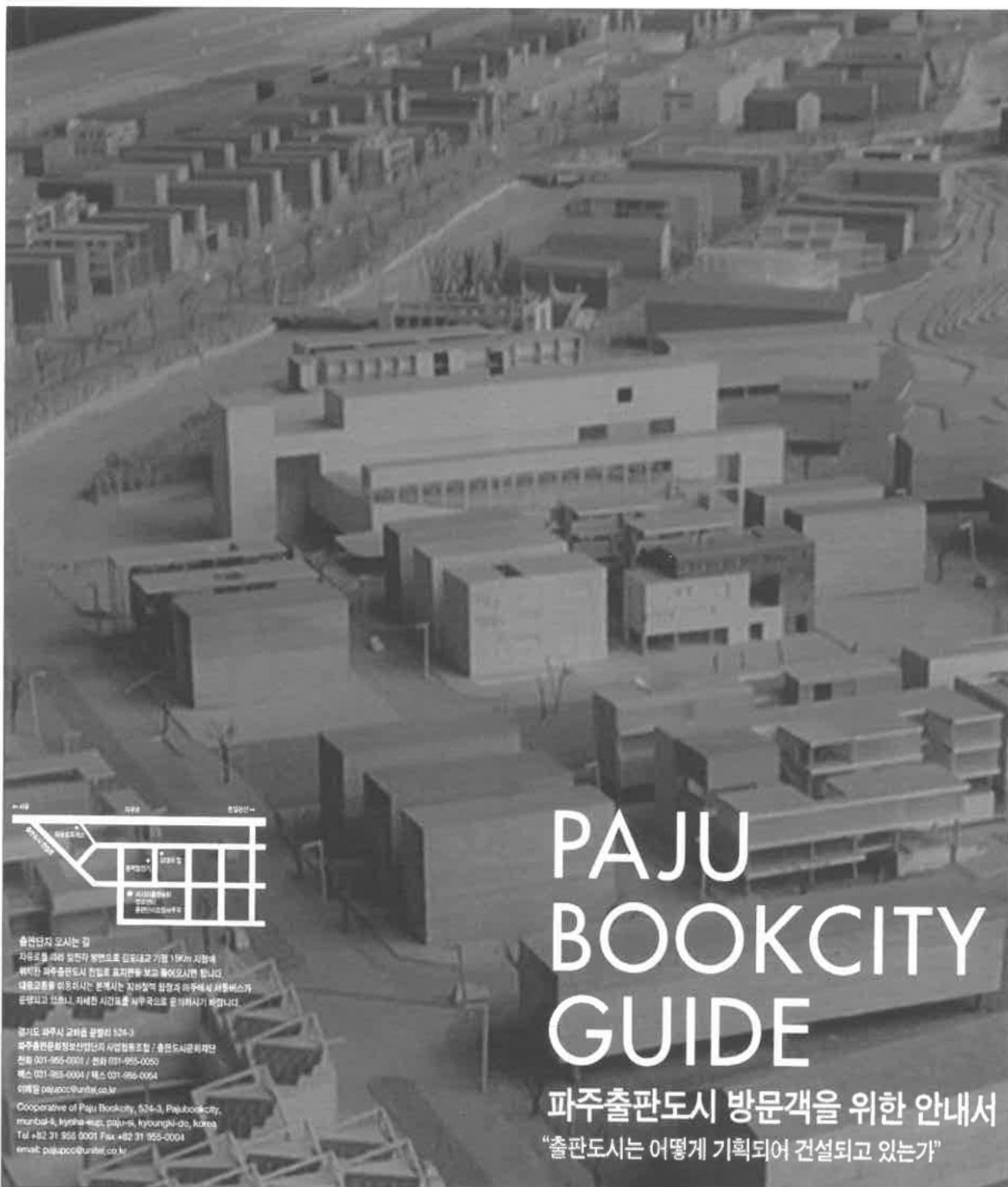
7. 토지대금 위탁관리상 발생된 차액 처분의 건

8. 2005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9.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 기 타

—. 폐 회



② Welcome to Paju Book city! (2005)

Plans for Book City

City to Recover the Lost Humanity Book City is located in the Paju area, viewed as the "land of promise." Located just 30 kilometers from Seoul, it is a publishing cultural community conveniently located near the Jeyu highway. From the beginning, the Book City project was planned and established as an industrial city related specifically to books. It is intended as a place devoted to planning, producing and distributing books by well-intentioned publishers.

Frequently asked questions while initiating the Book City project was why and for what purpose the city was being planned and built? Our answer is simple and clear: the city aims to recover the lost humanity. As such, Book City must be a space built for human being.

Cities and its architecture are often called "mirrors of the era." This may refer to how cities and buildings reflect the lives of mankind, especially that of urban life in its edgiest form. It is a direct reflection of our distorted lives: a mixture of chaotic urban planning, unbalanced infrastructure, unsightly buildings, and confusing signs. It is apparent not only in Seoul but in any city.

Such distorted urban scenes negatively impact our already arduous lives, creating a vicious circle where our environment exacerbates us endlessly. Why was such an urban setting created? Why and when did such unwholesome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come to surround us? We offer this answer to that question: it is due to the loss of a sense of community! It was a result of individuals pursuing their own personal desires, neglecting or becoming disinterested in creating common ground. The loss of community and resulting distorted lives are inherently related to Korea's modern, contemporary history which is scattered with traces of shackles.

Thirty-six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followed by a chaotic liberation period, the Korean War fought between kin, and an indiscriminate influx of Western culture upon a Korean society made stagnant by authoritarian rule since the founding of the state until the 1980's in the economic order of the world's soaring industrialization: all these contributed to bringing intense psychological confusion and disorder to the people's sense of values. We have arrived at a stage today where life in urban to rural areas is extremely distorted.

Community in Practice It is now time not merely to lament over the situation, but to find new alternative solutions. Would it be an overstatement to suggest that we have attempted to find realistic alternatives in the form of Book City? We hope not. As individuals devoted to publishing, we continuously seek to recover common values while planning such a project. In the midst of pursuing common values, we aim to provide a space that, simply, makes good books.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we seek to recreate community compacts (Hyangyak), pursued by Korea's forefathers, in forms appropriate for today. The Book City project places the utmost value in this "Community in Practice." This is based on the very simple principle of controlling personal, selfish desires in favor of considering common interests first. Since professional research, outlook and wisdom are necessary in determining what is the most valuable and useful for the whole; we have attempted to solve these problems by selecting people of outstanding qualities. This was, of course, the most appropriate approach.

Amalgamation of Publishing and Architecture In planning and pursuing Book City, we continue to keep in mind the principles of book making that we use everyday. Book making is similar to architecture in that it takes pains to design and if the design is not satisfactory, one begins again from scratch. Even in terms of design, just as a quality architectural design fully considers and researches the environment and climate of the structural site, personality, occupation and number of people who are to occupy the space, as well as the necessary building materials, book making has similar considerations.

When the painstaking design process is over, the difficult construction phase of book making, where the material is procured and the building is raised according to the blueprint, begins. However, book making at times requires just as much, if not more, expertise and time than building structures. Book making is indeed very similar to the process of

erecting buildings. The spirit of book making is instilled in the foundation for planning and pursuing Book City, which is an amalgamation of publishing and architecture.

A Huge and Beautiful Book called Book City We acquired a huge government project called National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in order to make a publishing community. Since it was important to attract the consideration of government policies, the project was recognized as a national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so that it could be realized after publishing receives recognition a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However, we have attempted to overcome the uninspiring characteristics of an "industrialization development" by incorporating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city." This is no different if we were editing a huge and beautiful book called "Book City" on a wide expanse of land.

Urban design was undertaken by a team headed by Dr. Hwang Ki-W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s the city would be newly establishing an entire industrial system for planning, producing and distributing books to readers, we asked Professor Hwang's team to devise industrial plans after collecting and systematically dividing and analyzing general data about the publishing industry. This was a difficult task since information about the publishing industry was vastly inferior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publishing, making data collection and planning that much more difficult.

A Great Contract As mentioned before, urban design was important in order to overcome the uninspiring and dull impression of an industrial development.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the next stage of construction, two outstanding architects of our time, Min Hyun-Shik and Seung H-Sang were selected as architectural coordinators. The two architects will work in conjunction with British architect Florian Beigel of the University of North London and two other architects, Kim Jong-Kyu and Kim Young-Joon, in preparing an Architectural Guideline for Book City.

All architectural renderings must follow this Guideline and a group of architects who will follow it faithfully were organized. A list of 30 prominent architects from Korea and 10 architects from various countries was formed. An elaborate planning for constructing the city was planned and undertaken, including dividing the city into sectors and appointing sector architects. It also was not an easy task to persuade tenants not accustomed to such a process to follow the plans.

Through this process "a great contract" was established between the tenants and the architects. It promises to suppress subjective architectural ideas and for architects to do their best to successfully build a city that harmonizes healthy publishing and architectural cultures. This contract has become a standard in all architectural activities within Book City and through this great contract the city's objectives are being realized one by one.

A Blossoming of a True Book Culture Correcting the picture stained and distorted by history is not easy, but we expect this city to aid Korean society's expansion and reproduction by making a new milestone in Korea's desolate urban culture. Witness a new ideal in urban culture. It is our hope that such a specialized city will serve as a model in boosting Korea's general development of industrial structures. The bronze figure of the patriot Ahn Jung-Geun that stands in the heart of the city, the Asia Publication-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 looks toward continued success of all our plans.

Yi, Ki-Ung

Chairman of Book City Culture Foundation



The Footprints of Book City

1989

September 5, 1989 Paju Book City Construction Committee Initiation Convention was held by publisher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through books and to build Book City under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every branch of society, including the media, cultural and educational sectors.

January 8, 1991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ublishing world, Industrial Cooperativ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Publishing Cultural and Industrial Complex was established and approved by Gyeonggi Province. **July 10, 1991** Conceptual material for the basic direction and objectives for constructing Book City were established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Environmental Planning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July 1, 1994** A breakfast meeting hosted at the Blue House by the President and the Chairman of Paju Book City, Yi Ki-Ung, expla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publishing world and cogently argued for the critical necessity of constructing a publishing complex. He succeeded in persuading the President to instruct appropriate ministries to cooperate in the city's construction. The same afternoo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nnounced in a press conference a detailed plan to establish the current Paju Book City. **October 20, 1995** An event attended by over 600 people from the media, cultural and educational worlds, "Paju Book City" was officially announced as the name of the publishing city. **March 31, 1997** Following the 1996 exhibition, the present 1,600,000m² space was designated and approved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y the Metropolitan Improvement Committee. **November 20, 1998** With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s approval for the execution of plans, Korea Land Corporation was selected to build the development. The Prime Minister attended a grand ground breaking ceremony wishing for success in building the world's first Book City. **June 30, 1999** Separate from constru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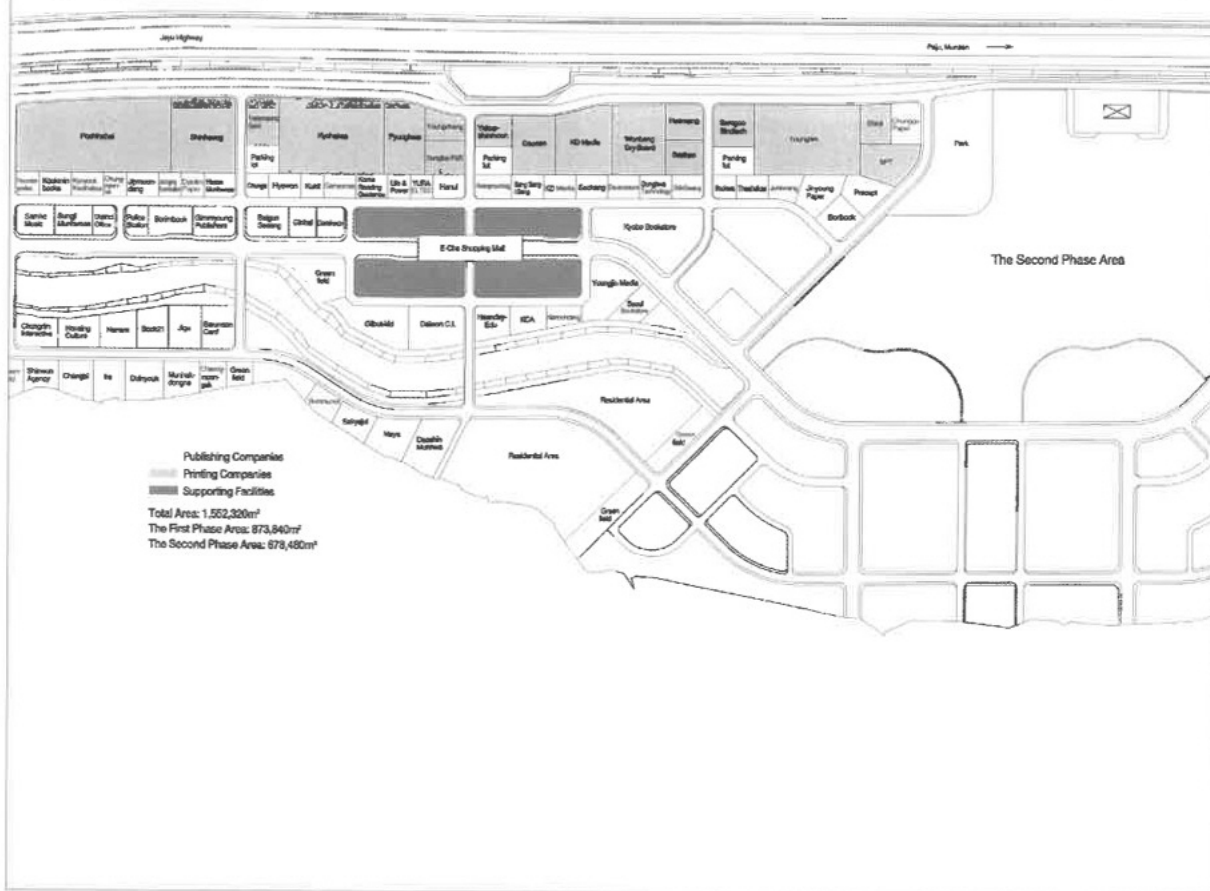
Bird's eye view (Left) & Scale model of Bookcity.



Signing Ceremony for called "The Great Contract (Left)" & Groundbreaking Ceremony of Bookcity.

tion work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Paju Publishing Cooperative commenced a full-scale development of Phase One totaling 873,840 m². **September 9, 1999** Paju Book City's information Center was open, including an exhibition of the basic design of the complex. The complex includes a bookstore, book cafe, conference room and library. **June 15, 2001** An Architectural guideline for the construction of Book City was completed. By receiving funding for 50% of the construction from the government, the building ceremony for the Asia Publication-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 and the pilot district was held. **December 24, 2002** With the completion of the Education and Research Building of the Asia Publication-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 a ground breaking ceremony for the Multi-Distribution Center for Publications was held at its conference room and the event hall. **June 3, 2003** A symposium was held with the theme, "Talking about Paju Book City Again," to examine whether the initial objectives were being properly executed and to investigate various plans for operation once the city is complete. **October 10, 2003** Over 60,0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2003 Paju Children's Book Festival held at Book City. This was a major success,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event was held while the city was in midst of being built. The well-attended event offered a glimpse into the kind of public attention the city will attract. **December 22, 2003** Book City Culture Found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and managing Asia Publication-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 a multi-purpose cultural center of international quality that will play a central role in assuring the realization of Book City's objectives in leading the 21st century. **May 2004** The building of Asia Publication-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 that will act as a cornerstone in propelling Korea's publishing culture and industry was completed. This center will serve as a central facility in holding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shing and culture, supporting activities such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ok fairs, research, writing, and translation. It will function as a site for exhibitions, educational functions and conferences.

2005



The Future of Book City

World-Famous City of Books & Publishing Book City expanding over 1,600,000 m² situated in Paju City in Gyeonggi Province. It secured a nucleus for national development in 1969 and a "central base for creat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was developed under the objective of nurturing the responsive ability of a key culture. During this internationalization period of the 21st century, the city seeks to modernize an unwieldy publication distribution system. The city in its current form is a result of 15 years of relentless pursuit by a cooperative of well-meaning publishers. By following a consistent course of action, the city's completion lies before our eyes as the tenants themselves established developmental plans and abided by guidelines ranging from architectural design, landscape, interior and outdoor signs.

The biggest objective of the Paju Book City is to combine the entire process from publishing plans and editing, to printing and distribution to develop Korea's publishing and cultural industry. Moreover, this city is also an ecologically friendly cultural space that breathes as one with nature and abounds with architectural beauty that can be proudly shown to the world. It is inevitable that it will be filled with an endless line of visitors. Although its character is quite distinct from famous book villages such as Water's Hay on Wye in England, Belgium's Redu, or the Netherlands' Breadvoort, through continued exchange with these cities Book City will develop not only Korea's publishing culture, but will be a landmark as a cultural tourist site frequented by visitors from all over the world.

Publishing-Culture and Industry City Book City was planned as a city where human beings and nature, culture and industry reside in great harmony and three elements of the publishing industry: planning, production, and distribution work to maximize the synergic economic effect. One hundred fifty companies in the publishing field, including 110 publishing houses, 21 printing firms, and 2 publication distribution companies will build and occupy buildings. Over 600 firms in the publishing industry will rent space. A one-stop system will be provided to plan and edit a book in a publishing house, go next door to print and bind, and then through a publication multi-distribution center provide high-quality books to readers more quickly at a lower cost. Also, publishing houses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to make better quality books. If quality of the books can be improved by 30%, logistic costs can also be reduced by 30% through grouping of related firms, making the final cost reduction to be over 60%.



Youlhwadang Publisher(Left) & Hangeulsa Publishing Company.

The Entire City as Architectural Exhibition Book City is also an enormous architectural exhibition center filled with unique buildings with its own stories. The shape of each single building is not important, compared to the harmony of the entire city as a space that contains our lives compatible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producing a harmonious architecture landscape. Thi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past practice of making cities that gave priority to filling space. Places that contain our lives bear greater importance than the shape of buildings, and from a certain perspective these places form architecture. Following the architectural design guideline of Book City based on community, all architectural activities serve not only as buildings for making books, but also as buildings that consider people who work, live and visit them. It provides a cultural experience unique to Book City. At present, the Book City is continuously visited by denizens, students studying architecture, and study tours from architecture-related groups. It continues to attract attention from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ommunities.



Sakyejeil Publishing Company(Left) & Munkhaldongne Publishing Company.

Eco-friendly City The surrounding area of Book City is a fertile environmental treasure of two merging rivers. A swampy area where the Han, Imjin, and Yesung Rivers merge and arrive at the Yellow Sea, it has conditions suitable for an environmentally-friendly eco-city. The area bears typical wetland life with visitations from migratory birds and thickets of reed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Western industrialization model of excess consumption centered on an oil-consuming automobile culture rapidly improved quality of living in the 20th century, it was also the major culprit in destroying the environment. As a way to correct this past, this city will be environmentally-friendly and conserve ecology by overcoming natural and man-made contradictions as a place where nature and state-of-the-art technology come together in harmony. Rather than the usual avenues or riverside areas of concrete, this city is built on the natural habitat of dividing river streams covered with different colored reeds, blossoming with wildflowers. The natural surrounding of the Han River's wetlands and nearby Mt. Shimhak delicately connect together and grow in this city. Greatest effort is being made to preserve the river streams intersecting this city and the streams' resident plant and animal life.



Reedy Wet Land(Left) & Architecture Workshop for Children of Paju Children's Book Festival.

Educational City The Book City is founded on the idea of wanting to always live in an environment, where people can feel like humans beings. This points to the life of a publishing cultural community. This means a city that is not only an appropriate model for city developments that are being newly built, but where people who live in it feel satisfied in their environment. In order to realize these aims, much effort will be made to suppressing individual desires and preparing and firmly establishing the ethics of community.

This city is also being equipped with various facilities that will elevate the publishing cultural development to another level. Along with all kinds of exhibitions, an endless stream of concerts and diverse cultural events will be held so that employees and visitors can enjoy various cultural experiences. This city's eternal theme of "book," will make young people dream of the future and give them the strength of wisdom.



Asia Publication Culture & Information Center(Left) & Book Distribution Center called "Boxoon."

Main Supporting Facilities Already complete is the Asia Publication-Culture and Information Center. Also complete is a central multi-cultural research facility tha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information about publishing and culture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and educational capacity, activation of the city and advancement of publishing and cultural industry. This center, standing on about 18,000 m² of land with the actual five story building size being about 13,000 m², began construction on June 2001 and was completed on May 2004.

The publication multi-distribution center, a critical central facility that played a huge role in Book City being approved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egan construction in January of 2003 and was completed in June 2004. It is an automated system that superbly blends a state-of-the-art facility and architectural beauty. This center, by importing the state-of-the-art automated publication circulation center benchmarked by a highly developed country, will be in charge of standardizing publication distribution duties, production through automation, circulation, and supporting rational management of consumption structure between the publishing houses and bookstores. It will also provide benefits to readers by providing low cost publications quickly, safely and accurately.

One of Book City's central business buildings expanding over 72,600 m² is the E-Cho Shopping Mall, which was completed in July 2004. This shopping mall appropriately meets the demands of Seoul and the wider metropolitan area, absorbing area tourists and further serves as a facility supporting vitalization of the entire Book City. It is a major shopping center that includes movie theaters, health spa, jazz theater, performance theater dedicated to "Nanta," a non-verbal performance show, food court and a luxury shopping experience with many high-end items. And additional 8,250 m² shopping center, with partial completion of the Ssamzie store. Plans for the remaining stores will be built within 2005.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52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촌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24-3
전화021-9251-5201 팩스021-9251-5204 E-mail : pajucoop@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항 제2005-11호

2005. 1. 10.

수신: 파주시장

참조: 교통정책과장

제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대중교통망 신설 협조 요청

1. 올후년 새해를 맞아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귀 시 관내인 교하읍 문촌리 일대 48만여평에 조성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산업단지로서 1998년 11월 1단계 26만여평의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3년 12월 단계 내 기반시설공사가 완공된 가운데 출판 및 인쇄사 등 관련 업체 110여개사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변 내로 100여개사가 건축 및 임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임대입주사를 포함하여 추후 약 400여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3. 이처럼 본격적인 건축진행과 입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활동에 가장 필수적인 대중교통망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22편의 자체 셔틀버스를 투입하여 입주시 임직원의 출퇴근을 비롯, 금융업무, 거래처와의 업무, 고객들의 내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근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자체 셔틀버스 운행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인 경기 불황속에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가산업단지가 고립된 섬처럼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입주시 직원이나 입주를 앞두고 건축중인 입주 예정사로부터 거센 불의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도 상근직원이 3천명에 이르며, 금년도 건축을 완료하고 입주할 회사가 유망기업(임직원 1천여명)을 비롯, 추가로 400여개사 입주를 예상하며 이들 전방에서 대중교통 노선확보는 출판단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출판단지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입주시 임직원의 산업활동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출판단지 대중교통망 개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급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에서도 경기도를 비롯, 전철교통부와 업무협약이 필요한 조처를 적극 협조도록 하겠습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52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촌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24-3
전화021-9251-5201 팩스021-9251-5204 E-mail : pajucoop@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항 제 2005-30호

2005. 2. 12.

수신: 파주시장

참조: 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제목: 파주출판도시 유지관리업무 진행 요청

평소 파주출판도시의 구현을 위해 몸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는 귀 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개별입주시의 입주가 상당히 이루어져 파주출판도시도 하루가 다르게 번드러지고 있습니다. 개별 입주시의 경우 입주에 필요한 모든 부담금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고 있으며, 귀 시도 출판도시의 개발을 초기부터 관여하여 출판도시의 입주가 서심스나를 일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출판단지 구축구축에 행정력이 세심하게 미치지 못하여 여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판도시로의 대중교통을 단시간 내에 확충하여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여야 하는 것과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와 녹지의 조성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도로와 나대지에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 및 행정대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둘째, 인도와 차도의 파손부분의 신속한 보수 그리고 자신도래의 보완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로표지판의 파손도 즉시 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가로등의 것은 전기불량, 녹지의 무단점용 및 임의주차 그리고 청소비용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가의 분상임주자등이 실내공기와 관련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교통소통을 방해하며 공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철부사전철조) 절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파주출판도시는 국가산업단지로서 많은 편제자의 방문이 있습니다. 충분한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줄여야 하는데, 간선도로의 공사가 진행중이던 출판도시에서 문산방향으로 또는 서울방향으로 나가는 길에 대한 안내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연구하여 효과적인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살내공사관련 무단 도로점용 현황사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52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촌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24-3
전화021-9251-5201 팩스021-9251-5204 E-mail : pajucoop@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항 제 2005-18호

2005. 1. 21.

수신: 파주시장

참조: 건설국장

제목: 파주출판도시 임시표지판 제거요청에 대한 회신

평소 파주출판도시의 구현을 위해 몸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는 귀 시에 감사드립니다.

귀 시의 공문 건설과-922(2005.1.15.)호와 관련하여, 파주출판도시의 도로상에 과속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서행유도 표지판을 철거하라는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아시다시피 파주출판도시는 단지조성공사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공사관계자 및 일반인의 도로사용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성공사 준공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도로 및 녹지 등이 관리관청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첫째 신호등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도로 및 녹지의 청소, 셋째 개별필지의 도로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쓰레기의 처리, 넷째 비포장구간과 포장구간 사이의 도로요율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조합원사의 입주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 도로가 일막하여 주변지역간의 교통 발생수요가 파주출판도시의 신장보다는 과속을 일삼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대형교통사고가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주시 관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도로관리 등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가피하게 자책적인 계도와 대가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여 임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

따라서, 무단으로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라는 지책을 하기 전에 불거지 하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파악하시고, 원인해결을 위해 좀더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52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촌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24-3
전화021-9251-5201 팩스021-9251-5204 E-mail : pajucoop@nate.com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항 제 2005-31호

2005. 2. 12.

수신: 파주시장

참조: 건설국장

제목: 파주출판도시 내 건축물의 준공검사에 조합참여 요청의 건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파주출판도시의 건설에 몸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는 귀 시에 감사드립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이러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와 자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환상적인 출판문화환경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출판도시는 한국의 출판문화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출판인들이 인쇄와 출판의 이업종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여 대한민국의 대표적 출판도시를 구현하려고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수시로 여러 어려운 과정을 겪었다는 의미이며, 그러하다 해인 상대방을 설득하고 때로는 관계기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하게 드러나 모두들 관심과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자신도 놀라고 있으며 자랑스럽게까지 합니다.

3. 이러한 성과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개발 초기에 무질서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했던 우리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설계지침의 작성이었습니다. 이 건축설계지침의 준수수는 개별 입주시의 상황이나 입장의 변화로 다 동의되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위반을 하려는 입주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건축설계지침을 준수할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우리가 들었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기타 실무적인 필요 때문에 우리는 파주출판도시 내 입주시의 건축공사를 준공할 때 조합의 사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건축설계지침의 준수여부와 기타 실무적인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귀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귀 시의 조속한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1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대중교통망 신설 협조 요청
- 2 - 파주출판도시 임시표지판 제거요청에 대한 회신
- 3 - 파주출판도시 유지관리업무 진행 요청
- 4 - 파주출판도시 내 건축물의 준공검사에 조합참여 요청의 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500-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259-0001 팩스031-9259-0004 E-mail : pajuco@unitel.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5 - 91호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참 조 : 자유로 확장공사 환경소정
제 목 : 출판도시 안내간판 설치요청 회신

2005. 3. 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리며, 파주(가) 6411 - 1292호(2005. 01. 21.)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자유로 북·포장공사와 관련 중앙분리대 녹지대에 설치된 간판 중 STA.6+120(내용 : 통일)의 판은 파주시입니다. 간판과 STA.8+980(내용 : 유턴표시) 간판은 우리 조합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며, STA.6+290(내용 : 2004파주어린이 책현마당) 간판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귀 공사에서 철거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500-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259-0001 팩스031-9259-0004 E-mail : pajuco@unitel.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5 - 92호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도시관리과장
제 목 : 출판도시내 안전표지판 설치와 관련 협조요청

2005. 3. 12.

1. 파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출판도시는 현재 60여회사가 입주 중 완료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대업주사를 포함하면 총 110여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30여회사는 건축공사가 진행중이고 이따금으로 대부분의 입주예정사가 건축을 착공하여 도시 전체가 커다란 공사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입주사들의 사업장 가동과 건축공사 현상이 어우러져 출판도시내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으며, 이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는 필수적인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판도시에서 차량들의 과속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안전속도 준수와 서행을 권고하는 입간판(별첨)을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몇곳에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광고물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제도홍보를 설치물이오니 개별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500-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031-9259-0001 팩스031-9259-0004 E-mail : pajuco@unitel.co.kr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5 - 129호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정보통신과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협조 요청

2005. 4. 13.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귀 시 관내 교하읍 문발리 일대에 조성되는 48인제 규모의 국내 유일의 국가출판산업단지로서 1998년 11월 !연제 25만여평의 조성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까지 출판 및 인쇄사 등 관련 업체 150여개 산 업체(임대 포함)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말까지 추가로 60여개사가 건축 및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완성된 후에는 임대업주사를 포함하여 약 400여개사에 상근 임직원만도 3만여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부터 주거시설에 14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3. 이처럼 건축과 입주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2005년 4월 현재 도시 내 상근 임직원이 4,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동사무소, 파출소 등 행정지원시설이 개설되지 않아 민원서류 발급 등 행정서비스 수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도시 내에도 동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 있으나, 귀 시에서 동사무소 개설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출판도시가 교하읍의 경제지역에 위치하여 귀 시의 선진복지행정서비스 제공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4. 이에 귀 시에서 출판도시 내 동사무소 개설방향이 확정되지 전이라도 귀 시의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를 출판도시의 핵심공공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500-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가)
전화031-9259-0001 팩스031-9259-0004 E-mail : pajuco@unitel.co.kr

출판단지조항 : 2005 - 133호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총무국 세무과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지방세감면신청의 건

2005. 4. 18.

1. 귀 시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사의 건축공사를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준공인가권 토지사용을 받았습니.

3. 이와 관련하여 국가산업단지인 물 산업단지가 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31조(감면신청)에 의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대금이 확정되어 대금을 완납한 토지에 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지방세감면 신청서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⑤ - 출판도시 안내간판 철거요청 회신
- ⑥ - 출판도시내 안전표지판 설치와 관련 협조요청
- ⑦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협조 요청
- ⑧ - 파주출판단지 지방세감면신청의 건

지 방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 명 (법인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합동조합	② 주 면(법인)	등록번호	115940 - 0000012
	③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감 면 대 상	④ 감면대상 내역	종 류	면 적(수 량)		
		표지	1개 필지 : 727.9㎡(면적)		
감 면 세 액	⑤ 소 제 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문발리 일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⑥ 감면세목	취득세	⑦ 과세연도	2005	⑧ 기 본
	⑨ 과세표준액		⑩ 감면구분	100%	
	⑪ 당초결정 세액		⑫ 감면을 받고자 하는 세액		
⑬ 감 면 신 청 사 유 지방세법 제276조에 의거					
⑭ 관 계 증빙서류					
지방세법 제27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2005년 4월 일					
신청인 이 기 용 (서명)					
파주 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주) 1. 감면대상내역의 종류란에는 표지, 건축물, 법인등기 등 과세처리의 종류 기재 2. 감면대상내역의 면적(수량)란에는 토지의 경우 면적(㎡), 동기의 경우 전수 등 기재 3. 감면구분란에는 100% 과세면제, 50% 내역감면 등 감면비율 기재					
21226 - 14611번 94.12.22.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확정한다면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우리 출판계는 물론이고 입주예정 관련업체에서는
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 금액으로 확정될 경우, 원천적으로 2단계 개발사업
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7. 따라서 관리권자인 귀 부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출판도시 2단계 용지
공급예가를 확인하시어 용지 조성원가 대비 공급예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합동조합
(가칭) 출판도시 2단계개발추진위원회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5 - 134호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 조 : 출판산업과장
제 목 : 출판도시 2단계 용지공급 예정가격 확인 협조 요청

2005. 4. 16.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월 변경·고시된 출판도시 2단계 21만여평에 대한
개발사업에 1단계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를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별도의 2단계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한다는 방침이며
1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사를 비롯, 출판사, 인쇄사 및 영상관련업체, 소프트웨어
업종 등 대상으로 출판도시 2단계 사업 수요요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3. 이 수요요소를 위해서는 한국토지공사의 2단계 공급용지의 분양예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구체적인 분양예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알아본 결과 공급예정가격이 평당
약 1백80만원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겠다고 합니다.(참고로 1단계의 조성원가는 약
75만원이었음)

4. 그러나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의 분양은 산업단지및개발제한구역법 제38조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에 의거 조성
원가에 분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같은 조성원가는 일반상업적인 차원에서 용지 조성
원가 상승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5. 귀 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도시는 지난 1998. 1. 8. 실시계획
승인·고시(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997-283)에 이미 민간 수용토지 약 2만3천평
(평당 약 2백4천원여 수량)이 수용되어 조성원가에 반영되었으며, 2단계의 기본성토도 1단
계 개발 시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2단계 용지분양가에 추가로
반영될 사항은 도시 내 도로포장, 조경, 기본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사비와 출판도시와 문
발IC을 연결하는 신규 진출도로 개설비, 군부대 방음벽 설치공사비, 자본비용 등의 조성
원가 상승요인으로 한정됩니다.

6. 그럼에도 한국토지공사에서 2단계 용지 분양예가를 평당 1백80만원으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합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9-402 21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4-3 (2층)
전화: 02-551-0001 팩스: 02-551-0004 E-mail: paju@paju.com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5 - 134호

2005. 07. 28.

수 신 : 육군제3182부대장

참 조 : 군보안장

제 목 : 교하읍 문발리 499-2 군사협의 적전성 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

귀 부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귀 부대 작전참모처-1863(2005. 7. 18)호 및 민원봉사과-9154(2005. 7. 19)호 관련입니다.

출판도시는 지난 1989년 이 땅의 뜻있는 출판인들이 책을 통해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
한다는 목적으로 정부당국은 물론, 문화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적극적인 성원 속에 위대한 저의 도
시 건설을 위한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1991년 1월 출판도
시 건설을 위해 범 출판계가 참여하여 출판문화단지 사업합동조합을 결성, 경기도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를 받았습니다.

조합설립당시 조합원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1사당 출자금 및 출자준비금 3천만원을
조합 가입비로 납부하여 그 기금으로 출판도시 개발을 위한 건축지침 및 환경지침 등을 수립하였으며,
경부를 비롯, 한국토지공사, 군부대 등과의 업무협의를 농동적으로 진행하여 출판도시가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제반 사업을 자진 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산업단지는 개발초기부터 출판단지조합이 개발의 주체로 참여하여 대대적인
지시사업으로 조성된 국내 유일의 문화국가산업단지로서 출판도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출판단지조
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토지공사는 1단계 26만 4천평 중 지난 2004년 2월 교하읍 문발리
499-2번지(1,249㎡)의 전하국 부지를 공공시설용지에서 산업용지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인접한 사
영여사의 매입의사에도 불구하고 공개 입찰을 통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이에 동 필지를 (주)에듀광(대표 박명진)이 분양받았으나 분양자인 (주)에듀광은 경영상
여유를 이유로 동 필지가 단지(본계)에 출판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재분업자인 이정차(삼성 BCM
대표)에게 부지를 임대하여 용도변경이 이루어졌고 임차인이 이정차가 귀 부대표로부터 지난 2005년 7월
18일 군사협의(붙임 #1)를 맺었습니다.

귀 부대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도시 1단계 고도화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입주
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귀 부대와 협의를 통해 지난 2003년 4월 귀 부대의 대전차전지를 위치를 변
경하여 설치하는 조건으로 군사협의(붙임 #2)를 받았으며, 그 동안 (주)교하읍(대표이사 양철우) 및 출판
도시 내 영화제작인 퍼니츠 이체(대표 장정진)의 근접한 개발적 군사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

9 - 출판도시 2단계 용지공급 예정가격 확인 협조 요청

10 - 교하읍 문발리 499-2 군사협의 적전성 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

을 통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동의도 귀 부대에서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조립은 귀 부대의 그러한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고 귀 부대의 조건 내용을 이행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4992 필지의 분양공고상(붙임 83) 고도는 8.0m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부대는 조건을 이행할 주체인 출판단지조합과 협의 없이 신성한 아정치에게 군사동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그동안 출판도시의 조성과 관련하여 기반시설이 격기에 공급되지 않아 가스를 인입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조합원의 주머니에서 지출하였으며, 귀 부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또다시 막대한 분담금을 조합원으로부터 각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가입은 고사하고 이제까지 출판도시 조성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이정치(삼성 BCM 대표)가 군사동의를 받은 현재 우리 조합에서는 더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을 각출할 명분을 상실하였으며, 입주시들의 대표기관인 우리 조합과 귀 부대와의 조건부 협약을 귀 부대 스스로 파기한 것에 대해 조건을 이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귀 부대의 불법 조치가 지난 2003년 4월의 조건부 동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준비하였던 대전자전지 병커구축 사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 1. 파주시 공문 사본 1부.
2. 조건부 군사동의 공문 사본 1부.
3. 분양공고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육 군 제 3 1 8 2 부대

위급 진행
우 편 : (411-78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사서함 110-1호 / 전화 (031)975-5245
직접처 작전참모 동원 회 명 호 담당자 대위 손 호 역

문서번호	작전 32322 - 030109	관 계		지 시	
시행일자	2003. 4. 8	전 시 간	일 자	관 계	
발 을	파주출판단지사업조합 이사장	수	번호	·	
참 조		서 리 과		공	
		담 당 과		함	
		심 사 과		심 사 일	

제 목 조건이행을 위한 협의요청 검토결과 통보

1. 관련근거 : 출판단지조합 제2003-31호 ('03. 2. 18) 조건이행에 관한 협의요청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조건이행에 관한 협의요청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가. 검토결과 : 대전자전지 위치조정 가능
 - 나. 추가조치 요구사항 : 조정 요청하는 위치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협의시 제검토할 예정임
 - 다. 세부 이행계획 포함사항
 - (1) 관계기관 협조 완료 (부지이용에 따른 추가임조)
 - (2) 공사추진 일정 (공정표)
 - (3) 소요예산
 - (4) 진지이전부지 설계도 (진입도, 유자제진지 배치도 포함)
 - ※ 자유로 통제가 가능한 위치 / 고도가 보장되어야 함
 - ※ 육군표준설계도(차량일대행 도우진지) 세부협의서 제공. 끝.



육 군 제 3 1 8 2 부대



" 세계로 도약하는 파주시 희망의 파주 "

파 주 시

우 413-719 파주시 아문동 215 / 전화 (031)940-4173 (행) 4173 FAX 031)945-8282
시민과 과장 정태열 담당자 김경희 Email : alex70@pajuro.net

http://www.pajuro.net

문서번호 시민07060- 2440

시행일자 2003. 2. 4.

(경 유) (공개)

발 을 서울 강남구 선서동 506

이거용귀하

참 조

제 목 군협의 작전성 검토 결과 통보

1.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에서 제출하신 군사협의 서류에 대한 군부대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리며, 검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아래 관련부대로 문의바라며, 조건부동의에 대하여는 붙임 이행각서를 작성(붙임 내용 참조)하여 시민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대 명	주 소	연 락 처
육군제3182부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사서함110-1호	975-5245

붙임 군 작전성 검토 결과 1부. 끝.



파 주 시

" 최고의 맛, 최상의 서비스, 서민 민족 "

작전성 검토결과

■ 결 론 : 조건부 동의

■ 조건부동의 내용

가. 1차진지(공원부지 15m성토), 2차진지(케이디미디어 옥상), 3차진지(교학사 옥상)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 1·2·3차 진지(2개호) 구축시 유자제진지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나. 2차진지(케이디미디어), 3차진지(교학사)가 위치한 건물은 현 위치에서 출판단지블록내 자유로변쪽으로 위치 변경하여 신축해야 합니다.

※ 세부위치 / 설계는 부대와 세부협의 하여야 합니다.

다. 건물옥상 외부 진입로 설치(옥상 주차장 형태로 병행 설계) 하여야 합니다.

라. 훈련 및 작전간 진지 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 2005-210 호
수신: 파주시청 건축과
참조: 담당자
제목: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99-2번지 (건축주:이정치) 건축심의 및 허가관련건

2005. 7. 29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출판도시에는 엄격한 설계지침에 따라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의 설계를 통해 조성되고 있으며 건축심의를 거친후 본격적인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설계디자인 및 건축자재, 건물외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각 필지별 건물의 용도는 건설교통부, 토지공사 등에서 작성한 사항입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건축주 이정치씨가 조합에 신청한 건축심의를 관련, 조합의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으니 건축심의 규정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 완료후 건축허가, 건축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공사에서 2004년 2월 24일 분양공고한 내용에 의하면 공급대상 토지(499-2번지)의 분양신청자격은 용도가 출판시설이며 출판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토지사용자로부터 이 부지를 일대한 이정치씨도 당연히 당해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아 래 -

항목	심의규정	이정치씨 설계내용	검토 의견
건물외용도	출판사	제본공장	1. 출판지구에 제본공장설치는 불가함 2. 용도변경이 통과되면 추후에도 출판지구에 인쇄 및 제본공장이 난립하여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짐

붙.

- 별첨: 1. 토지공사 분양공고문 사본 1부.
2. 파주출판도시 용도별 배치도면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 2005-213 호
수신: 제3보병사단
참조: 군보살장남
제목: 군부대 주둔지 인근 건물신축(설계)에 대한 답변 건

2005. 8. 2

파주출판도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귀 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사단에서 보내주신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6조와 9차단 작전참모지-76호에 의거 파주출판도시내 000건물 공사 신축현장에 대한 내용을 검토,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건물내부에서 군부대 방향으로의 부대관측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에서는 자주 건물신축시에 부대방향을 정문 및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 아 래 -

1. 지상3, 4층 배면에 위치한 중: 설의기설의 폐기장으로 앞뒤야간그릴이 설치되어 외부조망이 불가
2. 지상1, 2층 배면에 위치한 화장실 창은 중박에서 2미터 상부에 설치되어 외부조망이 불가
3. 1층 배면에 위치한 출입구는 엘리베이터 정결구로 비상사안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끝

- 첨 부: 1. 파주출판도시내 000건물 공사 신축현장 내외부 촬영사진 1부
2. 파주출판도시내 000건물 공사 평면평면도 및 입면도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12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5-215호
수신: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참조: 파주시청
제목: 교하읍 문발리 499-2번지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에 대한 의견

2005. 08. 09.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귀 공단 파주시청의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제0160014호(2005.5.10) 관련입니다.

귀 공단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출판도시")는 지난 1997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었으며, 동 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필지별 용도(불입 #1)를 명확히 하여 귀 공단이 관리하게끔 계획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출판업 용지에는 출판사가, 상업업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용지에는 인쇄사 및 인쇄관련업자가, 상업시설 용지에는 상업시설이, 주거용지에는 주거시설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하읍 문발리 499-2번지의 건축주(이정치)는 귀 공단 파주시청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제0160014호(2005.5.10))하면서 출판용도로 사용하되, 부분적으로 지분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이정치)는 파주시청에 분양계획하는 달리 제본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사용 용도를 설명하고 관련도면(불입 #2)을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파주시는 산업단지내 입주하는 업체의 입주자격은 귀 공단의 심사에 따라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파주시는 건축법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건축주(이정치)는 출판용지인 499-2번지에 제본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지금 평원공사(불입 #3)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가 양조 귀 공단 파주시청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내용과 전혀 다른 불법 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만약 이 지역에 제본공장이 들어서면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접한 출판시설의 지속적인 불편발생이 자명하며 앞으로 용도를 무시한 불법건축행위가 관여하여 통제 불능의 사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조합에서는 건축주(이정치)에게 수차례 걸쳐 출판도시의 건축지침을 준수할 것과 지난 2004년 2월 24일 한국산업단지공사 등 필지를 분양(불입 #4) 할 당시 출판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분양하였음을 설명하였으나, 건축주(이정치)는 귀 공단과 정상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축 후 건물의 사용 용도는 본안(이정치)이 판단하는 사항이며 용도에 맞지 않다면 관련

법에 따라 벌과금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합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 17년간 세계적인 책의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출판인과 학내외의 저명한 건축가 40여명이 합심하여 정교한 건축계획에 따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단이 건축주(이정치)가 499-2번지에 제본공장을 건축하도록 계속하여 입주계약을 허가한다면 우리의 지난 17년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귀 공단은 건축 후에 용도에 맞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건축주(이정치)가 명백하게 출판용도가 아닌 제본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니 지금까지도 입주계약을 취소하여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불법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는 귀 공단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만일 입주계약을 취소하지 않아 499-2번지에 제본공장이 건축된다면 그 책임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를 수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1. 출판도시 토지 이용 계획도 1부.
2. 건축허가 도면 1부.
3. 공사현황 사진 1부.
4. 분양공고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11 -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99-2번지(건축주:이정치) 건축심의 및 허가관련건
- 12 - 군부대 주둔지 인근 건물신축(설계)에 대한 답변 건
- 13 - 교하읍 문발리 499-2번지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에 대한 의견



개별명의변경 대상자 명단

NO.	자번	회사명	대표자	법인/주민번호	주 소	비 고
1	499-1	두산산업	이훈용	110111-0332653	서울 서호구 서호동 1641-6	법인
2	499-3	한빛신문	홍지훈	110111-2676835	서울 동대문구 동의동 35-23	법인
3	499-3	한학사	박세원	800508-1041117	서울 은평구 신사동 7-23 15/1	개인
4	500-9	한케이디미디어	신호인	110111-1626063	파주 교하읍 문발리 500-4	법인



출판단지조합 : 제2005 - 32호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
참 조 : 고객지원 부장
제 목 : 산업용지 개별명의변경계약 서류 제출의 건

2005. 9. 6.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개별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3개 필지 (총4개 업체)에 대해 개별명의변경 계약을 권택하고자 서류를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개별명의변경대상자 명단 1부.
2. 업지별 개별명의변경계약서류 각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 2005 - 22호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도로과 담당자
제 목 : 파주출판도시 내 도로 보수 요청 건

2005. 9. 15.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파주어린이 책 잔치' 행사가 9월 30일~10월 9일까지 출판도시 전체를 무대로 10일간 개최됩니다. 금년행사는 출판도시에 입주한 회사들이 사육을 오픈하여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자사의 책을 전시·판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방문객들이 출판도시를 기념하면서 체험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에도 출판도시를 산책하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도시 내 곳곳의 도로가 파손되어 아이들이 보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정교한 건축계획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에 불임과 같이 파손된 도로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오니 행사기간 전 9월 28일(수)까지 보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 파주출판도시 2005년 9월 9일 보수요망 도로 현황 및 위치도 1부
2. 2005 파주어린이 책 잔치 안내자료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14 - 산업용지 개별명의변경계약 서류 제출의 건
15 - 파주출판도시 내 도로 보수 요청 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7 5275 (사무처) 413-837 5276 (주거관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24-3
전화0312555-0001 팩스0312555-0004 E-mail : pajuco@paju.co.kr

출판단지조항 : 제2005-39호

2005. 10. 18.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서울지역본부장 / 파주사업단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개발 관련 의견 제출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환경친화적인 출판문화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출판도시 조성 전에 철저한 다량성 조사를 거친 후, 물론, 건축심계지침을 마련하여 중 지점에 따라 건축물이 완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중 건축심계 지침대로 설계 도면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또한 건축 과정에서 간접 중 디자인적인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와 협의하여 출판단지내 「출판도시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파주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지도는 현행 건축법 및 파주시의 건축조례에 경관지구 지정 중 지구지정이 되지 않아 파주시에서 별도의 건축심계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2단계 개발에 앞서 파주출판단지 1단계 조성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수행했던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형주·황기원 교수 및 서울시립대학교 강종빈 교수(전 서울시행정부시장)의 자문은 물론, 1단계 건설 코드네이티브인 건축가 송효상·민현식·김영준 교수 등 도시계획자, 건축가와 협력하여 1단계 개발에서의 여러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상 상속된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우리 조합의 전문가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하는 방안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세부용도를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중 연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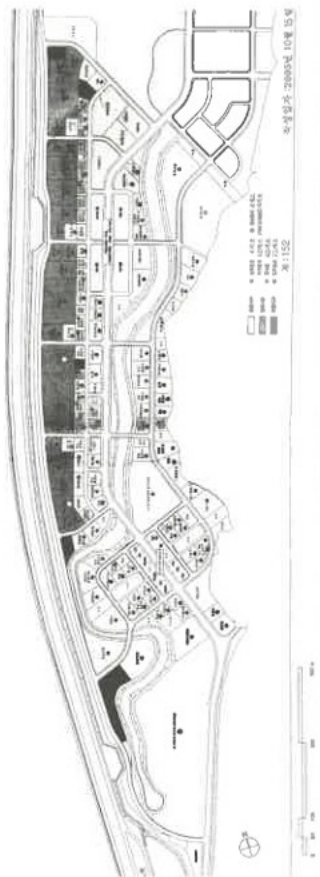
상기 내용에 대한 업무협의 일정이 정해지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건축심계지침 및 입주현황도 각 1부 중.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도시 사옥 건축 및 입주 현황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37 5275 (사무처) 413-837 5276 (주거관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24-3
전화0312555-0001 팩스0312555-0004 E-mail : pajuco@paju.co.kr

문 시 민 호 : 출판단지조항 제 2005-39호

2005. 10. 26.

수 신 : 파주시청

참 조 : 녹지 및 담양지

제 목 : 파주출판단지 내 수로변 관정공사 녹지사용 허가요청 건

귀 시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단지는 단지전체를 가로지르는 선장을 중심으로 모든 시설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간대선장을 자연 그대로 살려, 그 속의 숨겨진 풍광물들을 보호, 보존하는데 파주출판단지 조합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단지 내 선장은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천으로서 해결방법은 수로변에 비상을 관정을 설치하여 갈수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형학적 위치상 필요한 수변에 관정을 설치하여야 선장에 원활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출판단지 535-5번지에 관정을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관정의 설치공사 및 사후 모든 관정시설관리는 조합에서 처리할 것이며, 관정설치에 필요한 전원공급은 인근 출판사의 도움을 받아 설치할 예정이오니 귀 시청의 녹지사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합니다.

첨 부 : 1. 파주출판단지 내 관정설치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관정공사방법 및 시공사진 자료1부.
3. 지적도 1부 중.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단지 내 관정설치위치도



16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개발 관련 의견 제출

17 - 파주출판단지 내 수로변 관정공사 녹지사용 허가요청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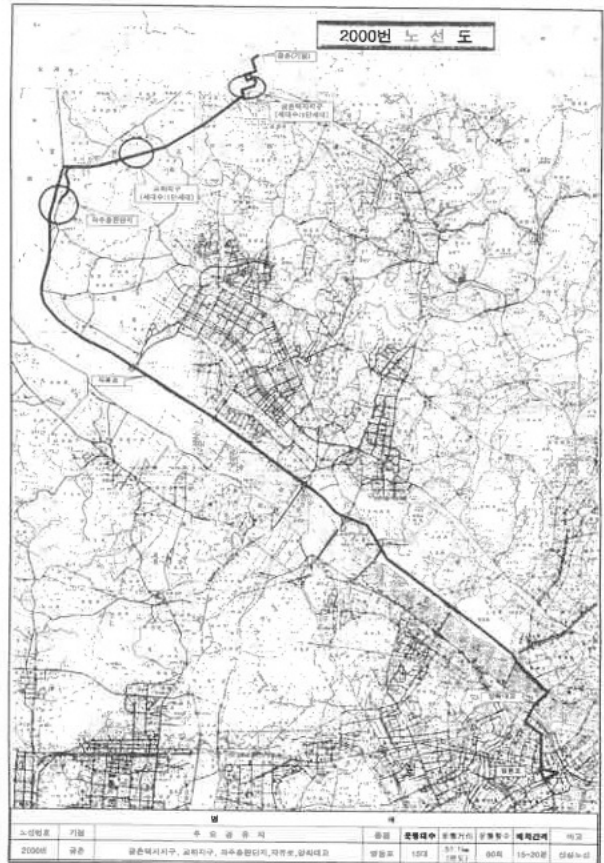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14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000-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55-0251 팩스 031-955-0254 E-mail: pajubook@hanmail.net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5 - 296호 2005. 10. 26.
수 신 : 서울특별시청
참 조 : 교통개선기획단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000번 광역버스 노선 신설 협조 요청

1. 귀사의 투명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산업단지로서 1998년 11월 1단계 26만여평의 조성공사를 착공한 이래 현재까지 출판 및 인쇄사 등 관련 업체 80여개사(임대입주사 포함 150여개사)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말까지 추가로 50여개사가 건축 및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임대입주사를 포함하여 약 400여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들 입주사 대부분이 광화문, 마포, 신촌지역에서 이주한 회사로서, 종사하는 임직원의 70% 이상이 서울거주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3. 이처럼 본격적인 입주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활동에 가장 필수적인 대중교통망이 형성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22건의 자체 셔틀버스를 투입하여 입주사 임직원의 출퇴근을 비롯, 금융업무, 거래처와의 업무, 고객들의 내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근직원들의 증가로 인해 자체 셔틀버스 운행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적인 경기 불황속에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국가산업단지가 고령화 설치업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입주시 뿐만 아니라 입주를 앞두거나 건축중인 입주 예정사로부터 거센 항의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도 상근임직원이 3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건축물 완료하고 입주할 회사가 중견기업(임직원 1천여명)을 비롯, 추가로 400여개사 입주로 중시지하고 1만여명에 이를 전망이어서 대중교통 노선 확보는 출판단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경기도 파주시와 관내 운수업체인 신성교통과 협의하여 서울 영등포에서 출판도시를 거쳐 교하신도시, 금촌택지지구, 금촌읍까지 자유로를 왕래하는 2000번 광역직행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귀사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어 노선이 꼭 신설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1) 2000번 노선버스 노선도면 1부.
2) 출판도시 홍보자료 각 1부, 1.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14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1000-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55-0251 팩스 031-955-0254 E-mail: pajubook@hanmail.net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5 - 315호 2005. 11. 12.
수 신 : 파주시청
참 조 : 산림복지과장
제 목 : 심학산 58-2번지 산림훼손 면적 측량 요청

귀 시의 투명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귀 시에서 공장건축을 허가한 교하읍 산남리 산 58-2번지 심학산 중턱 벌목현장에 대하여 우리 조합에서 측량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 결과 당초 귀 시에서 허가한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벌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정확한 면적측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산림훼손 현장이 귀 시에서 허가한 면적만큼 정확히 벌목된 것인지 면적을 측량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면적 측량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우리 조합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제3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사진 등 관련자료 각 1부,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심학산 산림훼손 현장 4 2005. 6. 1.



- 18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000번 광역버스 노선 신설 협조 요청
- 19 - 심학산 58-2번지 산림훼손 면적 측량 요청

용지매매계약서

용지의 표시

소재지	가치면	지정용도	지목	면적(㎡)	비고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50BL 51BL 52BL 53BL	상업업무용지	대	4,097.0 5,292.0 4,331.0 5,432.0	
계				19,152.0	

위 표시의 용지등(이하 "목적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한국토지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갑은 목적용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매각하며 을은 매매대금을 다음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매매대금 지급요약이원상심확인원정 (₩5,520,390,000)						
대금납부방법						
구분	납부약정일	할부원금	할부이자	납부할금액	미납잔대금	비고
계약보증금	2000.06.26	552,036,000	-	552,036,000	4,968,354,000	
1회 할부금	2000.12.26	621,324,000	-	621,324,000	4,347,000,000	
2회 할부금	2001.06.26	621,000,000	-	621,000,000	3,726,000,000	
3회 할부금	2001.12.26	621,000,000	-	621,000,000	3,105,000,000	
4회 할부금	2002.06.26	621,000,000	107,186,300	728,186,300	2,454,000,000	
5회 할부금	2002.12.26	621,000,000	124,540,270	745,540,270	1,863,000,000	
6회 할부금	2003.06.26	621,000,000	92,894,790	713,894,790	1,242,000,000	
7회 할부금	2003.12.26	621,000,000	62,270,130	683,270,130	621,000,000	
8회 할부금	2004.06.26	621,000,000	31,135,060	652,135,060	0	
납부장소	농림중앙의 금융지원 153-01-265186(예금주: 한국토지공사)					

②을은 매 할부금의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연1할의 할부이자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은행 일반대출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에는 같은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할부이자지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밀할지산한다.

③제2항의 할부이자지는 계약체결일(조성공사준공전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갑이 공보하는 조성공사준공일)로부터 기산한다.

④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전세출당수치는 납부약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거연순배당,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한다.

제2조(지연손해금) ①을이 제1조의 매매대금(할부원금 및 할부이자)을 말하여 정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연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1항의 연체이자율을

3 - 1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각각 밀할 지산한다.

제3조(지정용도 사용허위) ①을은 목적용지를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을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갑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매매대금완납전이라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4조(목적경전) ①조성사업준공전에 기한만료전까지 계약체결한 용지로서 조성공사준공후 지적공부 정리결과 변경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 당시의 정지율 공단당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②갑은 조성공사준공후 확정측량결과 및 정산내역, 정산금납부방법을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정산금을 정산일 이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는 증감금 또는 잔금에 기각하여 수납하거나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조성사업에 대한 승인) 을은 조성사업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을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을 승인하기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을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성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소유권전) ①갑은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준공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완료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이 경우 같은 조성사업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를 심의에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매매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이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담보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③갑은 을의 소유권이전공부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7조(발보전의 행사) 매매대금을 완납한 을은 목적용지에 대한 사용승낙 또는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서 을이 미납잔대금을 약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같은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함보권에 대하여 그 함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을에게 제1조의 분할납부금에 불구하고 미지급잔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을이 분할대금의 지급을 3월이상 지연하였을 때

2. 을에 대하여 회생절차에 관한 회생절차결정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자기신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때

제9조(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자료의 제시, 밀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2.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을이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함에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4. 을이 제8조 각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갑으로부터 전액 즉시 전세의 요구를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을 때

5.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존속으로 이행이 심히 지연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②을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계약의 해제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목적용지의 멸도 및 소유권이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4조의 연체정산결과 면적이 10%이상 증감하는 때

3 - 2

③이 계약체결일 이후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없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의 지연이나 결속중지, 변경, 도시계획의 변경, 중용경수, 원지변동 등으로 이 계약의 존속으로 이행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같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변경이지를 기산하여 을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제4항의 소유권회복비용 등 을이 부담할 비용은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같은 을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변경이지를 기산하여 반환하며 같은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10조(조성공사준공의 부담) ①제1조에서 정한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 등 납부의 의무는 을의 것이나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을이 매매대금완납전에 갑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못한 때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제1항의 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로 본다.

제11조(을의 통지허위) ①을은 이 계약체결일 이후 생형·병형 또는 주소·사투리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받는 불이익은 이를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해석)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목적사항
1. 을은 토지사용시 환경영향평가, 예너지사용계획서, 군부대합의까지 이행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계약서에 환경영향평가서, 예너지사용계획서 및 군부대합의까지 이행조건을 첨부한다.
2. 용지매매계약 체결후 개발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의 형상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본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단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므로 지정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관리대상 국가산업단지로서 중 공단의 입주계약제정 요구시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0년 06월 26일

갑(매도인) 한국토지공사 사장 대리인 유재수
별인등록번호 : 114271-0001818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8

을(매수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등록번호 : 115940-00000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54-25

3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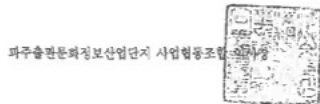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UBLISHING CITY
413-883 8275, 8276, 8288, 8289, 8290, 8291, 8292, 8293, 8294, 8295, 8296, 8297, 8298, 8299, 8300, 8301, 8302, 8303, 8304, 8305, 8306, 8307, 8308, 8309, 8310, 8311, 8312, 8313, 8314, 8315, 8316, 8317, 8318, 8319, 8320, 8321, 8322, 8323, 8324, 8325, 8326, 8327, 8328, 8329, 8330, 8331, 8332, 8333, 8334, 8335, 8336, 8337, 8338, 8339, 8340, 8341, 8342, 8343, 8344, 8345, 8346, 8347, 8348, 8349, 8350, 8351, 8352, 8353, 8354, 8355, 8356, 8357, 8358, 8359, 8360, 8361, 8362, 8363, 8364, 8365, 8366, 8367, 8368, 8369, 8370, 8371, 8372, 8373, 8374, 8375, 8376, 8377, 8378, 8379, 8380, 8381, 8382, 8383, 8384, 8385, 8386, 8387, 8388, 8389, 8390, 8391, 8392, 8393, 8394, 8395, 8396, 8397, 8398, 8399, 8400, 8401, 8402, 8403, 8404, 8405, 8406, 8407, 8408, 8409, 8410, 8411, 8412, 8413, 8414, 8415, 8416, 8417, 8418, 8419, 8420, 8421, 8422, 8423, 8424, 8425, 8426, 8427, 8428, 8429, 8430,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39, 8440, 8441, 8442, 8443, 8444, 8445, 8446, 8447, 8448, 8449, 8450, 8451, 8452, 8453, 8454, 8455, 8456, 8457, 8458, 8459, 8460, 8461, 8462, 8463, 8464, 8465, 8466, 8467, 8468, 8469, 8470, 8471, 8472, 8473, 8474, 8475, 8476, 8477, 8478, 8479, 8480, 8481, 8482, 8483, 8484, 8485, 8486, 8487, 8488, 8489, 8490, 8491, 8492, 8493, 8494, 8495, 8496, 8497, 8498, 8499, 8500, 8501, 8502, 8503, 8504, 8505, 8506, 8507, 8508, 8509, 8510, 8511, 8512, 8513, 8514, 8515, 8516, 8517, 8518, 8519, 8520, 8521, 8522, 8523, 8524, 8525, 8526, 8527, 8528, 8529, 8530, 8531,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39, 8540, 8541,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8549, 8550, 8551, 8552, 8553, 8554, 8555, 8556, 8557, 8558, 8559, 8560, 8561, 8562, 8563, 8564, 8565, 8566, 8567, 8568, 8569, 8570, 8571, 8572, 8573, 8574, 8575, 8576, 8577, 8578, 8579, 8580, 8581, 8582, 8583, 8584, 8585, 8586, 8587, 8588, 8589, 8590, 8591, 8592, 8593, 8594, 8595, 8596, 8597, 8598, 8599, 8600, 8601, 8602, 8603, 8604, 8605, 8606, 8607, 8608, 8609, 8610, 8611, 8612, 8613, 8614, 8615, 8616, 8617, 8618, 8619, 8620, 8621, 8622, 8623, 8624, 8625, 8626, 8627, 8628, 8629, 8630, 8631, 8632, 8633, 8634, 8635, 8636, 8637, 8638, 8639, 8640, 8641, 8642, 8643, 8644, 8645, 8646, 8647, 8648, 8649, 8650, 8651, 8652, 8653, 8654, 8655, 8656, 8657, 8658, 8659, 8660, 8661, 8662, 8663, 8664, 8665, 8666, 8667, 8668, 8669, 8670, 8671, 8672, 8673, 8674, 8675, 8676, 8677, 8678, 8679, 8680, 8681, 8682, 8683, 8684, 8685, 8686, 8687, 8688, 8689, 8690, 8691, 8692, 8693, 8694, 8695, 8696, 8697, 8698, 8699, 8700, 8701, 8702, 8703, 8704, 8705, 8706, 8707, 8708, 8709, 8710, 8711, 8712, 8713, 8714, 8715, 8716, 8717, 8718, 8719, 8720, 8721, 8722, 8723, 8724, 8725, 8726, 8727, 8728, 8729, 8730, 8731, 8732, 8733, 8734, 8735, 8736, 8737, 8738, 8739, 8740, 8741, 8742, 8743, 8744, 8745, 8746, 8747, 8748, 8749, 8750, 8751, 8752, 8753, 8754, 8755, 8756, 8757, 8758, 8759, 8760, 8761, 8762, 8763, 8764, 8765, 8766, 8767, 8768, 8769, 8770, 8771, 8772, 8773, 8774, 8775, 8776, 8777, 8778, 8779, 8780, 8781, 8782, 8783, 8784, 8785, 8786, 8787, 8788, 8789, 8790, 8791, 8792, 8793, 8794, 8795, 8796, 8797, 8798, 8799, 8800, 8801, 8802, 8803, 8804, 8805, 8806, 8807, 8808, 8809, 8810, 8811, 8812, 8813, 8814, 8815, 8816, 8817, 8818, 8819, 8820, 8821, 8822, 8823, 8824, 8825, 8826, 8827, 8828, 8829, 8830, 8831, 8832, 8833, 8834, 8835, 8836, 8837, 8838, 8839, 8840, 8841, 8842, 8843, 8844, 8845, 8846, 8847, 8848, 8849, 8850, 8851, 8852, 8853, 8854, 8855, 8856, 8857, 8858, 8859, 8860,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8867, 8868, 8869, 8870, 8871, 8872, 8873, 8874, 8875, 8876, 8877, 8878, 8879, 8880, 8881, 8882, 8883, 8884, 8885, 8886, 8887, 8888, 8889, 8890, 8891, 8892, 8893, 8894, 8895, 8896, 8897, 8898, 8899, 8900, 8901, 8902, 8903, 8904, 8905, 8906, 8907, 8908, 8909, 8910, 8911, 8912, 8913, 8914, 8915, 8916, 8917, 8918, 8919, 8920, 8921, 8922, 8923, 8924, 8925, 8926, 8927, 8928, 8929, 8930, 8931, 8932, 8933, 8934, 8935, 8936, 8937, 8938, 8939, 8940, 8941, 8942, 8943, 8944, 8945, 8946, 8947, 8948, 8949, 8950, 8951, 8952, 8953, 8954, 8955, 8956, 8957, 8958, 8959, 8960, 8961, 8962, 8963, 8964, 8965, 8966, 8967, 8968, 8969, 8970, 8971, 8972, 8973, 8974, 8975, 8976, 8977, 8978, 8979, 8980, 8981, 8982, 8983, 8984, 8985, 8986, 8987, 8988, 8989, 8990, 8991, 8992, 8993, 8994, 8995, 8996, 8997, 8998, 8999, 9000, 9001, 9002, 9003, 9004, 9005, 9006, 9007, 9008, 9009, 9010, 9011, 9012, 9013, 9014, 9015, 9016, 9017, 9018, 9019, 9020, 9021, 9022, 9023,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0, 9031, 9032, 9033, 9034, 9035, 9036, 9037, 9038, 9039, 9040, 9041, 9042, 9043, 9044, 9045, 9046, 9047, 9048, 9049, 9050, 9051, 9052, 9053, 9054, 9055, 9056, 9057, 9058, 9059, 9060, 9061, 9062, 9063, 9064, 9065, 9066, 9067, 9068, 9069, 9070, 9071, 9072, 9073, 9074, 9075, 9076, 9077, 9078, 9079, 9080, 9081, 9082, 9083, 9084, 9085, 9086, 9087, 9088, 9089, 9090, 9091, 9092, 9093, 9094, 9095, 9096, 9097, 9098, 9099, 9100, 9101, 9102, 9103, 9104, 9105, 9106, 9107, 9108, 9109, 9110, 9111, 9112, 9113, 9114, 9115, 9116, 9117, 9118, 9119, 9120, 9121, 9122, 9123, 9124, 9125, 9126, 9127, 9128, 9129, 9130, 9131, 9132, 9133, 9134, 9135, 9136, 9137, 9138, 9139, 9140, 9141, 9142, 9143, 9144, 9145, 9146, 9147, 9148, 9149, 9150, 9151, 9152, 9153, 9154, 9155, 9156, 9157, 9158, 9159, 9160, 9161, 9162, 9163, 9164, 9165, 9166, 9167, 9168, 9169, 9170, 9171, 9172, 9173, 9174, 9175, 9176, 9177, 9178, 9179, 9180, 9181, 9182, 9183, 9184, 9185, 9186, 9187, 9188, 9189, 9190, 9191, 9192, 9193, 9194, 9195, 9196, 9197, 9198, 9199, 9200, 9201, 9202, 9203, 9204, 9205, 9206, 9207, 9208, 9209, 9210, 9211, 9212, 9213, 9214, 9215, 9216, 9217, 9218, 9219, 9220, 9221, 9222, 9223, 9224, 9225, 9226, 9227, 9228, 9229, 9230, 9231, 9232, 9233, 9234, 9235, 9236, 9237, 9238, 9239, 9240, 9241, 9242, 9243, 9244, 9245, 9246, 9247, 9248, 9249, 9250, 9251, 9252, 9253, 9254, 9255, 9256, 9257, 9258, 9259, 9260, 9261, 9262, 9263, 9264, 9265, 9266, 9267, 9268, 9269, 9270, 9271, 9272, 9273, 9274, 9275, 9276, 9277, 9278, 9279, 9280, 9281, 9282, 9283, 9284, 9285, 9286, 9287, 9288, 9289, 9290, 9291, 9292, 9293, 9294, 9295, 9296, 9297, 9298, 9299, 9300, 9301, 9302, 9303, 9304, 9305, 9306, 9307, 9308, 9309, 9310, 9311, 9312, 9313, 9314, 9315, 9316, 9317, 9318, 9319, 9320, 9321, 9322, 9323, 9324, 9325, 9326, 9327, 9328, 9329, 9330, 9331, 9332, 9333, 9334, 9335, 9336, 9337, 9338, 9339, 9340, 9341, 9342, 9343, 9344, 9345, 9346, 9347, 9348, 9349, 9350, 9351, 9352, 9353, 9354, 9355, 9356, 9357, 9358, 9359, 9360, 9361, 9362, 9363, 9364, 9365, 9366, 9367, 9368, 9369, 9370, 9371, 9372, 9373, 9374, 9375, 9376, 9377, 9378, 9379, 9380, 9381, 9382, 9383, 9384, 9385, 9386, 9387, 9388, 9389, 9390, 9391, 9392, 9393, 9394, 9395, 9396, 9397, 9398, 9399, 9400, 9401, 9402, 9403, 9404, 9405, 9406, 9407, 9408, 9409, 9410, 9411, 9412, 9413, 9414, 9415, 9416, 9417, 9418, 9419, 9420, 9421, 9422, 9423, 9424, 9425, 9426, 9427, 9428, 9429, 9430, 9431, 9432, 9433, 9434, 9435, 9436, 9437, 9438, 9439, 9440, 9441, 9442, 9443, 9444, 9445, 9446, 9447, 9448, 9449, 9450, 9451, 9452, 9453, 9454, 9455, 9456, 9457, 9458, 9459, 9460, 9461, 9462, 9463, 9464, 9465, 9466, 9467, 9468, 9469, 9470, 9471, 9472, 9473, 9474, 9475, 9476, 9477, 9478, 9479, 9480, 9481, 9482, 9483, 9484, 9485, 9486, 9487, 9488, 9489, 9490, 9491, 9492, 9493, 9494, 9495, 9496, 9497, 9498, 9499, 9500, 9501, 9502, 9503, 9504, 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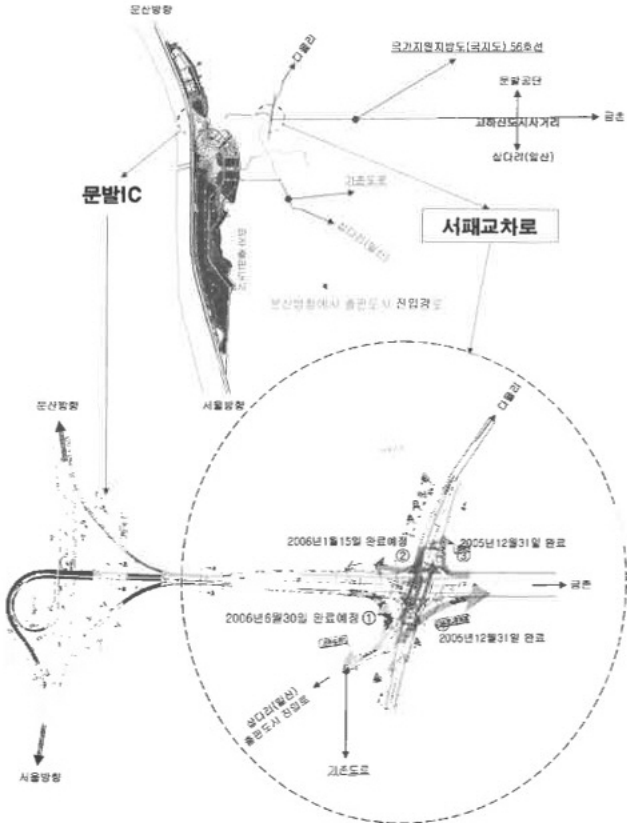
인근으로 지난 17년동안 집념어린 노력의 결실로 가시화되고 있는 출판도시가 접근로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귀 도의 담당관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조기에 서패교차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문 사본을 파주시와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파주시 부으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56호선 서패교차로 개통 현황도 1부 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주) 파주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34-8
전화 02(7755-0001) FAX 02(7755-0004) E-mail : pajuco@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2005-3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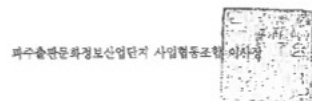
2005. 12. 30.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건설국장
제 목 : 56호 국지선 도로 공사 관련 협조 요청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56호 국지선 도로 확포장공사 서패교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에서 경기도에 발송한 불임의 공문(출판단지조합 제2005-365호, 2005.12.30)을 송부하오니 귀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임 : 출판단지조합 제2005-365호 공문 사본 1부 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주) 파주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34-8
전화 02(7755-0001) FAX 02(7755-0004) E-mail : pajuco@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2005-367호

2005. 12. 30.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 조 : 출판산업과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대책 마련 촉구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이하 "출판도시")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대 48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 문화산업단지로서 1998년 11월 1단계 26만여평의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지난 2003년 12월말 기반시설공사 준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출판도시에는 출판·인쇄·유통 등 출판관련 업체 230여개가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 400여개사가 입주하여 상주인구 2만 5천명, 일일 유통인구 약 4만여명이 왕래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문화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공장의 입주가 완료되고 있음에도 국가산업단지인 출판도시에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전용입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전용입로 개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조성주체인 한국토지공사에 조성공사에 맞춰 전용입로를 개설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지난 2003년말 남측진입로는 완성이 되었으나, 출판도시에서 나가는 인터체인지는 현재까지 개설이 되지 않고 있어 입주업체들의 기업활동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당초 기대했던 56호 국지선 도로의 서패교차로 마저 교차축지개발지구 입주자를 위해 부분개통시키고 기업주인 출판도시 입주자를 위한 진입로는 민원(주택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년 6월말이나 개통예정임을 확인하면서 우리 조합 집행부는 입주자 및 출판도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합 집행부는 출판도시의 관리권자인 귀 부에 230여 입주사들을 대신하여 현 시점에서 국가산업단지 입주사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유로이 출판도시로의 접근로를 대폭 정비해 주는 한편 하루 속히 56호 국지선 도로확장공사(경기도 시행) 및 동측진입로(한국토지공사 시행-800m정장)가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출판도시 현장 실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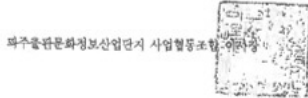
특히 한국토지공사가 출판도시 남측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입체교차로 설치가 아닌 자유로이 출판도시로 진입할 하도폭 개설하여 출판도시에서 자유로이 진출할 경우 약 4km를

- ㉔ - 56호 국지선 도로 공사 관련 협조 요청
- ㉕ -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진입로 대책 마련 촉구

둘아 56호선 서폐교차로에서 U턴해야하는 비효율적, 비경제적인 교통 체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출판단지조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귀 부에서 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 56호선 서폐교차로 개통 현황도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2 8709 4175 4188 4191 4192 4193 4194 4195 4196 4197 4198 4199 4200 4201 4202 4203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10 4211 4212 4213 4214 4215 4216 4217 4218 4219 4220 4221 4222 4223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30 4231 4232 4233 4234 4235 4236 4237 4238 4239 4240 4241 4242 4243 4244 4245 4246 4247 4248 4249 4250 4251 4252 4253 4254 4255 4256 4257 4258 4259 4260 4261 4262 4263 4264 4265 4266 4267 4268 4269 4270 4271 4272 4273 4274 4275 4276 4277 4278 4279 4280 4281 4282 4283 4284 4285 4286 4287 4288 4289 4290 4291 4292 4293 4294 4295 4296 4297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09 4310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4324 4325 4326 4327 4328 4329 4330 4331 4332 4333 4334 4335 4336 4337 4338 4339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4353 4354 4355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 4384 4385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 4392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4399 4400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422 4423 4424 4425 4426 4427 4428 4429 4430 4431 4432 4433 4434 4435 4436 4437 4438 4439 4440 4441 4442 4443 4444 4445 4446 4447 4448 4449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 4456 4457 4458 4459 4460 4461 4462 4463 4464 4465 4466 4467 4468 4469 4470 4471 4472 4473 4474 4475 4476 4477 4478 4479 4480 4481 4482 4483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4499 4500 4501 4502 4503 4504 4505 4506 4507 4508 4509 4510 4511 4512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4523 4524 4525 4526 4527 4528 4529 4530 4531 4532 4533 4534 4535 4536 4537 4538 4539 4540 4541 4542 4543 4544 4545 4546 4547 4548 4549 4550 4551 4552 4553 4554 4555 4556 4557 4558 4559 4560 4561 4562 4563 4564 4565 4566 4567 4568 4569 4570 4571 4572 4573 4574 4575 4576 4577 4578 4579 4580 4581 4582 4583 4584 4585 4586 4587 4588 4589 4590 4591 4592 4593 4594 4595 4596 4597 4598 4599 4600 4601 4602 4603 4604 4605 4606 4607 4608 4609 4610 4611 4612 4613 4614 4615 4616 4617 4618 4619 4620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0 4631 4632 4633 4634 4635 4636 4637 4638 4639 4640 4641 4642 4643 4644 4645 4646 4647 4648 4649 4650 4651 4652 4653 4654 4655 4656 4657 4658 4659 4660 4661 4662 4663 4664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4675 4676 4677 4678 4679 4680 4681 4682 4683 4684 4685 4686 4687 4688 4689 4690 4691 4692 4693 4694 4695 4696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4707 4708 4709 4710 4711 4712 4713 4714 4715 4716 4717 4718 4719 4720 4721 4722 4723 4724 4725 4726 4727 4728 4729 4730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4741 4742 4743 4744 4745 4746 4747 4748 4749 4750 4751 4752 4753 4754 4755 4756 4757 4758 4759 4760 4761 4762 4763 4764 4765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4773 4774 4775 4776 4777 4778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4786 4787 4788 4789 4790 4791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2 4813 4814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4863 4864 4865 4866 4867 4868 4869 4870 4871 4872 4873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4923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4941 4942 4943 4944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4966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5003 5004 5005 5006 5007 5008 5009 5010 5011 5012 5013 5014 5015 5016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5029 5030 5031 5032 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5046 5047 5048 5049 5050 5051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5070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5081 5082 5083 5084 5085 5086 5087 5088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5107 5108 5109 5110 5111 5112 5113 5114 5115 5116 5117 5118 5119 5120 5121 5122 5123 5124 5125 5126 5127 5128 5129 5130 5131 5132 5133 5134 5135 5136 5137 5138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5170 5171 5172 5173 5174 5175 5176 5177 5178 5179 5180 5181 5182 5183 5184 5185 5186 5187 5188 5189 5190 5191 5192 5193 5194 5195 5196 5197 5198 5199 5200 5201 5202 5203 5204 5205 5206 5207 5208 5209 5210 5211 5212 5213 5214 5215 5216 5217 5218 5219 5220 5221 5222 5223 5224 5225 5226 5227 5228 5229 5230 5231 5232 5233 5234 5235 5236 5237 5238 5239 5240 5241 5242 5243 5244 5245 5246 5247 5248 5249 5250 5251 5252 5253 5254 5255 5256 5257 5258 5259 5260 5261 5262 5263 5264 5265 5266 5267 5268 5269 5270 5271 5272 5273 5274 5275 5276 5277 5278 5279 5280 5281 5282 5283 5284 5285 5286 5287 5288 5289 5290 5291 5292 5293 5294 5295 5296 5297 5298 5299 5300 5301 5302 5303 5304 5305 5306 5307 5308 5309 5310 5311 5312 5313 5314 5315 5316 5317 5318 5319 5320 5321 5322 5323 5324 5325 5326 5327 5328 5329 5330 5331 5332 5333 5334 5335 5336 5337 5338 5339 5340 5341 5342 5343 5344 5345 5346 5347 5348 5349 5350 5351 5352 5353 5354 5355 5356 5357 5358 5359 5360 5361 5362 5363 5364 5365 5366 5367 5368 5369 5370 5371 5372 5373 5374 5375 5376 5377 5378 5379 5380 5381 5382 5383 5384 5385 5386 5387 5388 5389 5390 5391 5392 5393 5394 5395 5396 5397 5398 5399 5400 5401 5402 5403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5412 5413 5414 5415 5416 5417 5418 5419 5420 5421 5422 5423 5424 5425 5426 5427 5428 5429 5430 5431 5432 5433 5434 5435 5436 5437 5438 5439 5440 5441 5442 5443 5444 5445 5446 5447 5448 5449 5450 5451 5452 5453 5454 5455 5456 5457 5458 5459 5460 5461 5462 5463 5464 5465 5466 5467 5468 5469 5470 5471 5472 5473 5474 5475 5476 5477 5478 5479 5480 5481 5482 5483 5484 5485 5486 5487 5488 5489 5490 5491 5492 5493 5494 5495 5496 5497 5498 5499 5500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5524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5534 5535 5536 5537 5538 5539 5540 5541 5542 5543 5544 5545 5546 5547 5548 5549 5550 5551 5552 5553 5554 5555 5556 5557 5558 5559 5560 5561 5562 5563 5564 5565 5566 5567 5568 5569 5570 5571 5572 5573 5574 5575 5576 5577 5578 5579 5580 5581 5582 5583 5584 5585 5586 5587 5588 5589 5590 5591 5592 5593 5594 5595 5596 5597 5598 5599 5600 5601 5602 5603 5604 5605 5606 5607 5608 5609 5610 5611 5612 5613 5614 5615 5616 5617 5618 5619 5620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5635 5636 5637 5638 5639 5640 5641 5642 5643 5644 5645 5646 5647 5648 5649 5650 5651 5652 5653 5654 5655 5656 5657 5658 5659 5660 5661 5662 5663 5664 5665 5666 5667 5668 5669 5670 5671 5672 5673 5674 5675 5676 5677 5678 5679 5680 5681 5682 5683 5684 5685 5686 5687 5688 5689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5701 5702 5703 5704 5705 5706 5707 5708 5709 5710 5711 5712 5713 5714 5715 5716 5717 5718 5719 5720 5721 5722 5723 5724 5725 5726 5727 5728 5729 5730 5731 5732 5733 5734 5735 5736 5737 5738 5739 5740 5741 5742 5743 5744 5745 5746 5747 5748 5749 5750 5751 5752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5759 5760 5761 5762 5763 5764 5765 5766 5767 5768 5769 5770 5771 5772 5773 5774 5775 5776 5777 5778 5779 5780 5781 5782 5783 5784 5785 5786 5787 5788 5789 5790 5791 5792 5793 5794 5795 5796 5797 5798 5799 5800 5801 5802 5803 5804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5823 5824 5825 5826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5833 5834 5835 5836 5837 5838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5860 5861 5862 5863 5864 5865 5866 5867 5868 5869 5870 5871 5872 5873 5874 5875 5876 5877 5878 5879 5880 5881 5882 5883 5884 5885 5886 5887 5888 5889 5890 5891 5892 5893 5894 5895 5896 5897 5898 5899 5900 5901 5902 5903 5904 5905 5906 5907 5908 5909 5910 5911 5912 5913 5914 5915 5916 5917 5918 5919 5920 5921 5922 5923 5924 5925 5926 5927 5928 5929 5930 5931 5932 5933 5934 5935 5936 5937 5938 5939 5940 5941 5942 5943 5944 5945 5946 5947 5948 5949 5950 5951 5952 5953 5954 5955 5956 5957 5958 5959 5960 5961 5962 5963 5964 5965 5966 5967 5968 5969 5970 5971 5972 5973 5974 5975 5976 5977 5978 5979 5980 5981 5982 5983 5984 5985 5986 5987 5988 5989 5990 5991 5992 5993 5994 5995 5996 5997 5998 5999 6000 6001 6002 6003 6004 6005 6006 6007 6008 6009 6010 6011 6012 6013 6014 6015 6016 6017 6018 6019 6020 6021 6022 6023 6024 6025 6026 6027 6028 6029 6030 6031 6032 6033 6034 6035 6036 6037 6038 6039 6040 6041 6042 6043 6044 6045 6046 6047 6048 6049 6050 6051 6052 6053 6054 6055 6056 6057 6058 6059 6060 6061 6062 6063 6064 6065 6066 6067 6068 6069 6070 6071 6072 6073 6074 6075 6076 6077 6078 6079 6080 6081 6082 6083 6084 6085 6086 6087 6088 6089 6090 6091 6092 6093 6094 6095 6096 6097 6098 6099 6100 6101 6102 6103 6104 6105 6106 6107 6108 6109 6110 6111 6112 6113 6114 6115 6116 6117 6118 6119 6120 6121 6122 6123 6124 6125 6126 6127 6128 6129 6130 6131 6132 6133 6134 6135 6136 6137 6138 6139 6140 6141 6142 6143 6144 6145 6146 6147 6148 6149 6150 6151 6152 6153 6154 6155 6156 6157 6158 6159 6160 6161 6162 6163 6164 6165 6166 6167 6168 6169 6170 6171 6172 6173 6174 6175 6176 6177 6178 6179 6180 6181 6182 6183 6184 6185 6186 6187 6188 6189 6190 6191 6192 6193 6194 6195 6196 6197 6198 6199 6200 6201 6202 6203 6204 6205 6206 6207 6208 6209 6210 6211 6212 6213 6214 6215 6216 6217 6218 6219 6220 6221 6222 6223 6224 6225 6226 6227 6228 6229 6230 6231 6232 6233 6234 6235 6236 6237 6238 6239 6240 6241 6242 6243 6244 6245 6246 6247 6248 6249 6250 6251 6252 6253 6254 6255 6256 6257 6258 6259 6260 6261 6262 6263 6264 6265 6266 6267 6268 6269 6270 6271 6272 6273 6274 6275 6276 6277 6278 6279 6280 6281 6282 6283 6284 6285 6286 6287 6288 6289 6290 6291 6292 6293 6294 6295 6296 6297 6298 6299 6300 6301 6302 6303 6304 6305 6306 6307 6308 6309 6310 6311 6312 6313 6314 6315 6316 6317 6318 6319 6320 6321 6322 6323 6324 6325 6326 6327 6328 6329 6330 6331 6332 6333 6334 6335 6336 6337 6338 6339 6340 6341 6342 6343 6344 6345 6346 6347 6348 6349 6350 6351 6352 6353 6354 6355 6356 6357 6358 6359 6360 6361 6362 6363 6364 6365 6366 6367 6368 6369 6370 6371 6372 6373 6374 6375 6376 6377 6378 6379 6380 6381 6382 6383 6384 6385 6386 6387 6388 6389 6390 6391 6392 6393 6394 6395 6396 6397 6398 6399 6400 6401 6402 6403 6404 6405 6406 6407 6408 6409 6410 6411 6412 6413 6414 6415 6416 6417 6418 6419 6420 6421 6422 6423 6424 6425 6426 6427 6428 6429 6430 6431 6432 6433 6434 6435 6436 6437 6438 6439 6440 6441 6442 6443 6444 6445 6446 6447 6448 6449 6450 6451 6452 6453 6454 6455 6456 6457 6458 6459 6460 6461 6462 6463 6464 6465 6466 6467 6468 6469 6470 6471 6472 6473 6474 6475 6476 6477 6478 6479 6480 6481 6482 6483 6484 6485 6486 6487 6488 6489 6490 6491 6492 6493 6494 6495 6496 6497 6498 6499 6500 6501 6502 6503 6504 6505 6506 6507 6508 6509 6510 6511 6512 6513 6514 6515 6516 6517 6518 6519 6520 6521 6522 6523 6524 6525 6526 6527 6528 6529 6530 6531 6532 6533 6534 6535 6536 6537 6538 6539 6540 6541 6542 6543 6544 6545 6546 6547 6548 6549 6550 6551 6552 6553 6554 6555 6556 6557 6558 6559 6560 6561 6562 6563 6564 6565 6566 6567 6568 6569 6570 6571 6572 6573 6574 6575 6576 6577 6578 6579 6580 6581 6582 6583 6584 6585 6586 6587 6588

“변화와 경쟁의 파주”
파 주 시

수신자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 이기웅

제 목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통보

1. 항상 시경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구간에 치환 수 식재를 위한 도로점용 완료확인 신청한 사항은
3. 도로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 하오니 점용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 주 시 장

지방토목서기보 이광희 지방토목주사 이기웅 도로과장 이기웅

확인자

시행 도로과 - (2005. 10.) 결수

우 413 - 719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 http://www.pajuro.net

전화 (031)940-4665 전수 (031)940-4659 / maxworks@pajuro.net /



“변화와 경쟁의 도시”

파 주 시

수신자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장 귀하
(경유)

제 목 『출판도시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적용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시정경에 적극 동참하시고 협조해주신 귀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출판도시내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권 인정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며, 다만 귀 조합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참고 반영토록 하겠으며
3. 각종행사에 따른 각종 현수막 설치는 각종 불법광고물 단속권자인 교하읍사무소와 협의할 사항이며, 아울러 도로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안내표지판은 도로법 제4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5항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 설치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도시관리과 광고2계(940-295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지방토목서기보 이광희 광고과장 이기웅 도시관리과장 07/04 전수오

원조자 광고과1담당 장한순

시행 도시관리과-8864 (2005.07.04.) 결수

우 413-670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215

전화 (031)940-2051 / 전수 (031)940-2999 / and13@pajuro.net / 공개



③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통보

④ - 『출판도시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규정 적용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집행위원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이사장 위촉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우창)는 집행위원장에 도서출판 열화당 대표인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이사장(65·사진)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한국출판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 한국출판유통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을 맡고 있다.



1

경인일보

2005년 7월 8일 (금)
20면 사회

파주출판문화단지 2배 확대

사업조합 '2단계시설 개발계획' 승인신청
2008년까지 732억 들어 20만평 늘리기로

파주출판문화단지가 2008년말까지 현재 면적의 2배 가량인 47만1천여평으로 확대돼 명실상부한 출판메카로 거듭난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이기웅)은 732억여원을 들여 파주시 교하읍 문발·신촌리 일대 20만7천여평에 2단계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마련, 시에 승인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시작, 2008년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 시설이 준공되면 파주출판단지는 2003년말 완공된 1단계 26만4천여평과 함께 총 부지 면적 47만1천여평으로 늘어 '꿈의 북토피아'를 완성하게 된다.

특히 남북 문화교류 거점 역할 뿐만 아니라 서울~베이징~도쿄를 잇는 21세기 동아시아 문화삼각벨트의 핵심기지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2단계 부지에는 서적 출판, 영화 방송 관련업, 소프트웨어 관련업 등 150여개 업체가 입주할 전망이다. 파주출판단지는 2003년말 1단계 시설이 완공돼 한길사, 보진제, 화성프린트, 태평양그랜드 등 출판·인쇄·출판유통 등 150개 업체가 이곳에 입주해 있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도 들어서 있다.

파주출판단지 2단계 시설은 당초 올해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에 소요단가가 쉽지 않아 3년 가량 연기됐었다.

파주출판단지 2단계 시설은 당초 올해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에 소요단가가 쉽지 않아 3년 가량 연기됐었다.

파주출판단지 2단계 시설은 당초 올해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에 소요단가가 쉽지 않아 3년 가량 연기됐었다.

파주출판단지 2단계 시설은 당초 올해말 완공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에 소요단가가 쉽지 않아 3년 가량 연기됐었다.

파주/김재영기자·k.jyoung@kysong.com

2

①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집행위원장에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위촉 - 경향신문, 2005.03.16

② 파주출판문화단지 2배 확대 - 경인일보, 2005.07.08



30일부터 열흘간 '파주 어린이책잔치'

'상상의 나라'로 널 초대할게

2005 파주 어린이 책잔치 주요 행사

해마울 오픈 하우스 행사

(* 각 출판사 사옥에서 열림)

출판사	행사
미림사	동행자 김우영, 팽동이 오진화, 신영숙 캐릭터 전시회, 시인회,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이 공연(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다목적홀 10월2일 2시)
보리출판	세밀화 원화 전시, 박지 매력이 좋아, 내 손으로 만드는 '손바닥 그림책', 대형 일러스트 놀이 '잇따라 길따라'
물레개어린이	성태그림책 원화 전시회, 성태그림책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작가와 함께 하는 만들기와 생태놀이(10월1~2일)
장비	<길로 길로 가다가> 일체물 전시, <넋 잠 반> 원화 전시
일화당	세상의 어린이들 사진전 이트북 전시
문학동네	무로타미스 데인팅, <와, 개를잡았다> 원화 전시
보림	장력그림책 원화 전시, 자연마을 전시, 그림책가 유예호와 함께하는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놀이'(10월2일), 티셔츠와 가방에 우리 가족 그리기(10월9일)
정음	경북 60주년 독립운동가 캐리커처 전시회, 북한 화가 사진 및 작품 전시회, 어린이 캐리커처 그리기, 동선 이트
아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관련된 약 100여점 점도의 삽화와 관련도서 전시
주니어 김영사	김이선 선생님과의 재미있는 수학게임(10월1일 오후 2시), 김용만 선생님과 함께하는 '슬라이드로 보는 고구려 역사'(10월2일 오후 2시), 세계 유명 건축물 일체도형전, 놀라운 입체책의 세계전
푸른숲	인형으로 읽는 동화전, 나는 해마야: 책의 변신사와 여러 종류의 책 전시
한솔교육	구름 물장, 액자본 만들기, 책 아바타
모듬이들	크리스티 일러스트 2005 원화전시회, 예수님과 함께 사진찍기, 열타미디어 북 상연과 <디지털 다윗> 증정 행사
사공사	<무자카를고>의 저자 미르코스 포스터 방한, 저자와의 대화, 출판사 간담회 등
국민서관	그림책 <활활 간다>, <도깨비와 밤벼장수> 원화전
시계표	심학산 생태체험
재미미주	홍상전 <풍속도>, <고경숙 <어법에 걸린 밤>, 이호백 <모기보서> 원화와 도서 전(별도 행사장)
달리	엄마가 들려주는 그림책 경연, 감자호 그림 그리기, 통감자구워주기, 그림책 슬라이드 상연(별도 행사장)
씨스아이	어린이영화 상영(폼포코 너구리대적전, 유희형, 행간, 왕후실형, 사크보이, 발리언트)

특별 행사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림)

행사	장소	기간
그래픽 예술의 꽃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주전시장	9월30일~10월9일, 오전 10시~오후 5시 새입장료 1만원
그림책 작가 이우경 회고 원화전	주전시장	30일~10월9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그림책 상상놀이 '책책폭풍 그림책 속 빛의 정원'	빛의 정원	30일~10월9일, 오전 10시부터 정각과 예시 30분
그림책 워크숍(손바닥 그림책 만들기, 이우경처럼 그리기, 만화 캐릭터 만들기)	주전시장	30일~10월9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그림책 역사와 어린이 문화예술행진	대회의실	9월30일 3시
'그림책의 교육성과 예술성' 세미나	대회의실	10월3일~7일 오후 3시

파주 출판도시에 자리잡은 어린이책 출판사들이 마련한 오픈 하우스 축제, 2005 파주 어린이책잔치가 오는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된다. 이번 행사의 주제를 한 눈에 보여주는 테마 전시 '그래픽 예술의 꽃-어린이 그림책의 세계'는 출판도시 한가운데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다. 지난 10년 동안 급성장한 국내 그림책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시대별, 국가별 맥락에 상관없이 발간된 외국 그림책의 역사와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전시는 19세기 말 일본 그림책과 1930~50년대 유럽 그림책을 보여주는 '그림책의 새벽',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이슬람 문화권과 어린이책을 전시한 '아랍의 어린이책', 유럽과는 전혀 다른 미국의 그림책 문화를 살펴보는 '미국 사실주의 그림책의 흐름', 존 버닝햄과 레이먼드 브릭스 등 세계가 인정한 20세기 후반 작가들의 모든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100년 전 한국 어린이들에게는 '빙풍'이 가장 친근한 그림책이었을 것이라는 착상에서 마련된 가희박판 병풍전시와 신데렐라 캐릭터가 나라별, 시대별로 어떻게 달리 표현됐는지 보여주는 '그림책 역사를 통해 보는 신데렐라 캐릭터 변신사' 등 주최, 즉의 발달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시도 곁들여진다.

전시가 열리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지하광장 '빛의 정원'에는 기차를 타고 책의 한 장면 속으로 여행을 떠나 그림책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는 '이색 공간 '그림책 상상 놀이-책책 폭풍 그림책 속으로'가 기다리고 있어, 전시장 전체를 천천히 돌아보면 오감이 즐거운 책나라 체험을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마경 기자

‘책 디자인 대가’ 日 스기우라 특별전

8일부터 파주출판도시서… 심포지엄도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북디자이너인 스기우라 고헤이(杉浦康平)의 책 디자인 자료(도서 및 대형 포스터와 도록)들을 모은 전시회가 오는 8일부터 11월7일까지 경기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특설 전시장에서 열린다.

문화관광부가 후원하고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중·일·대만 등 동아시아 각국의 출판문화와 교류현황

을 점검하는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5-동아시아 책의 현재와 미래’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방한하는 스기우라는 일본의 전통을 살린 북디자인 방식을 연구함과 동시에 북디자인의 모범적 규범을 제시해 국내의 정병규·안상수씨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등의 후학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북디자인의 대가다.

전시회 외에도 스기우라와 중국의 위징런(呉敬人)과 대만의 황용송(黃永松), 한국의 정병규씨 등 동아시아

를 대표하는 북디자이너들이 함께 참여해 각국의 북디자인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출판인들과 토론하는 심포지엄이 8-9일 마련돼 있다. 8일 오전 10시 스기우라 고헤이 한국전을 오픈한 뒤 같은 건물의 대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선 김병익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장의 발제에 이어 이들 북디자이너 4명이 각각 자국의 책만들기 현황과 교류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오전 10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이들과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한 국내 출판인들간의 좌담회 형식으로 열린다. **최영환기자 ychcol@**

동아시아 출판인들 “책의 가치”를 말하다

9일 첫 ‘출판심포지엄’ 스기우라 작품 전시도

한국과 중국·일본·대만의 출판인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출판심포지엄이 올해 처음으로 열린다. ‘책 디자인’을 주제로 한 올해 행사엔 세계 출판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일본 디자이너 스기우라 고헤이(73·고베예술공과대학 명예교수·사진)의 한국전시회가 열리며, 각 지역의 대표 북디자이너 4명이 한자리에 모여 책과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론한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은 “동아시아 출판인들이 모여 책의 문화를 교류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첫 행사인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5-동아시아 책의 현재와 미래’를 9-10일 경기 파주출판도시 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연다”고 6일 밝혔다.

‘책 디자인’이 중심주제인 이번 행사에는 스기우라 고헤이 외에 중국의 위징런(58·칭화대학 미술학원 교수, 타이베이시 황용송(62·잡지 <한성> 발행인), 그리고 한국의 정병규(59·정병규디자인 대표)씨가 각 지역의 대표 디자이너로 참석한다.

특히 11월7일까지 열리는 ‘스기우라의 한국전’은 세계적 디자이너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보는 기회가 돼 국내 출판인과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불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여평 공간에 책·잡지 디자인 작품군 80여점이 전시된다. 스기우라는 1950년대 후반부터 반세기 동안 ‘자기 중심하는 디자인’ ‘움직이며 변화하는 디자인’ ‘혼돈과 질서를 오가는 디자인’ 등의 독창적 수법들을 개척하고 주도해온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전시회에 맞춰 스기우라의 작품과 해설을 모은 <스기우라 고헤이 잡지 디자인 반세기>(박지현 옮김, 값 3만5000원)가 한국 출판마케팅연구소에서 출간됐고, 스기우라가 안상수·정병규를 비롯한 한국·중국·



대만·인도의 디자이너 6인을 만나 나누는 대답 등을 모은 <아시아의 책 문화 디자인>(박지현·변은숙 옮김, 값 2만2000원)도 같은 연구소에서 곧 출간될 예정이다.

8일엔 김병익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장의 위원의 ‘한국도서의 한자표기와 조판제’에 대해 발표에 이어 ‘책과 디자인 예술세계’에 대해 디자이너 4명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9일엔 국내외 출판인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책의 현재와 미래’ 주제 토론회가 열리고, 이어 파주출판도시 안 출판사를 방문하는 ‘현장의 대화’가 마련된다.

이기웅 재단 이사장은 “세계에서 처음 줄이름 만들고 동아시아 문화를 장안한 중국,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세계 최고의 활자본을 지닌 한국, 그리고 근대적 출판강국을 일궈낸 일본 등 동아시아 세 지역에서 책 만들기의 깊은 경지를 이룬 4명이 한자리에 모여 ‘책의 진정한 가치’를 고민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회 입장료 3천원, 기타 무료 참석. (031)955-0060.

오현우 기자 cheolwoo@hani.co.kr

④ 책 디자인 대가' 일 스기우라 특별전 - 문화일보, 2005.10.06

⑤ 동아시아 출판인들 '책의 가치'를 말하다 - 한겨레, 2005.10.07

2006년

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2006년은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의 완성을 앞둔 상황에서 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주도하는 조합과 완성된 출판도시의 관리를 위한 협의회 설립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사업이나 업무 또한 조합과 입주기업체협의회로 이원화하여 각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해 왔다. 기존에 추진했던 주요사업은 사단법인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여 추진기로 하고 입주기업체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출판도시 내 일련의 변화와 더불어 2006년은 새 사옥으로 입주한 입주사들의 임직원들과 출판도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공공기관, 은행 등의 각종 편의시설 도입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도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책잔치를 비롯, 국제출판포럼, 동아시아 책의 교류 심포지엄, 파주북시티책잔치 등 각종 행사 또한 적극 지원했다. 초·중·고·대학생들의 단체 견학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국내 방문객이 줄을 이었으며, 특히 출판도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필리핀, 대만, 터키, 중국, 일본 등 외국 출판관계자와 정부관계자의 방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2006년

2006년 주요행사

01.12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쿤스트하우스에서 출판도시 건축모형 전시회
02.17	2005 프랑크푸르트 주빈국 행사
02.23	제16차 정기총회
03.25	출판도시 2단계 건설을 위한 첫번째 세미나 '출판도시 1단계의 경험, 그리고 2단계 건설을 향하여'
04.14	청문각 입주기념식
05.02	2006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기자설명회
05.04	2006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개막
05.27	이탈리아 레오나르도TV 취재차 방문
06.01	국제출판협회(IPA) 아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회장 방문
06.29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게스트하우스 가공식 개최
07.04	출판도시 긴급 입주자총회
08.23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계획 설명 기자간담회
08.24	출판도시 가족잔치
09.04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광재 의원 방문
09.1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방문
09.22	중앙입시교육연구원 입주기념식
09.26	신흥P&P 입주기념식
09.27	출판도시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 설명회
10.12	파주북시티페스티벌2006 기자설명회
10.19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 개막(국제출판포럼)
10.27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 개막(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6)
10.31	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창립 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11.14	조합 임시총회
11.14	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창립총회
11.17	생능출판사 입주기념식
11.23	한솔교육 입주기념식
12.12	출판도시 가족 송년음악회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① 2006. 03. 25 출판도시 2단계 건설을 위한 세미나 개최



② 2006. 05. 04 2006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개막



③ 2006. 06. 29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내 게스트하우스 기공식 개최



④ 2006. 07. 10 국회 李浩雄 건설교통위원장 출판도시 방문



⑤ 2006. 10. 19 「파주 북시티 페스티벌 2006」 개막



⑥ 2006. 10. 27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6



⑦ 2006. 11. 14 2006년도 조합 임시총회 개최

인쇄 발간된 자료

제16차 정기총회 서류

2006년 2월 23일(목) 오후 2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❶ 제16차 정기총회 서류 (2006. 02. 23)

목 차

1. 정기 총회 회순	3
2. 2005년도 사업보고서	5
3. 2005년도 결산보고서	21
4. 2005년도 잉여금(결손) 처분(안)	55
5. 감사보고서	59
6. 2006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63
7. 2006년도 사업계획서(안)	67
8. 2006년도 수지예산서(안)	79
9.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89
10. 2006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93
11.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97
12. 임원(감사) 선임의 건	101

제15차 정기총회 회순

- | | |
|------------------------|--------------------------|
| —. 성원보고 | —. 의안심의 |
| —. 개회선언 | 1. 2005년도 결산 승인의 건 |
| —. 국민의례 | 2. 잉여금(결손) 처분(안) 승인의 건 |
| —. 개 회 사 | 3. 2006년도 조합회비 책정의 건 |
| —. 축 사 | 4. 2006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
| —. 의사록 서명이사 및 서기 감찰 지명 | 5. 2006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
| —. 제15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 6. 추가 경정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
| —. 보고사항 | 7. 2006년도 기채 한도액 결정의 건 |
| 1. 2005년도 사업보고 | 8.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
| 2. 감사보고 | 9. 임원(감사) 선임의 건 |
| —. 기 타 | |
| —. 폐 회 | |

출판도시 1단계의 경험, 그리고 2단계 건설을 향하여

출판도시 2단계 건설을 위한 첫번째 세미나



일시 2006년 3월 25일 토요일 15:00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대회의실

주제 출판도시 1단계 경험에서 2단계 바라보기

주최 출판도시 2단계건설추진위원회

추진 배경

출판도시의 건설은 2단계가 유기적으로 이행되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1단계 사업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2단계에서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출판문화도시로의 존재 이유를 가시화시켜갈 것이다. 여기에는 1단계 사업의 건축주, 건축가, 도시계획가, 조경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교인들이 두둑한 자산으로 역할하리라 믿는다. 또한 2단계의 새모습일, 활자와 영상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세미나 진행 순서

주제발표

1. 출판도시 1단계 사업 평가의 시각 / 김영준 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대표
2. 출판도시 1단계의 경험과 그 토대에서 바라 본 2단계 추진 / 이진복 동네 대표
3. 출판도시의 미래 / 서현 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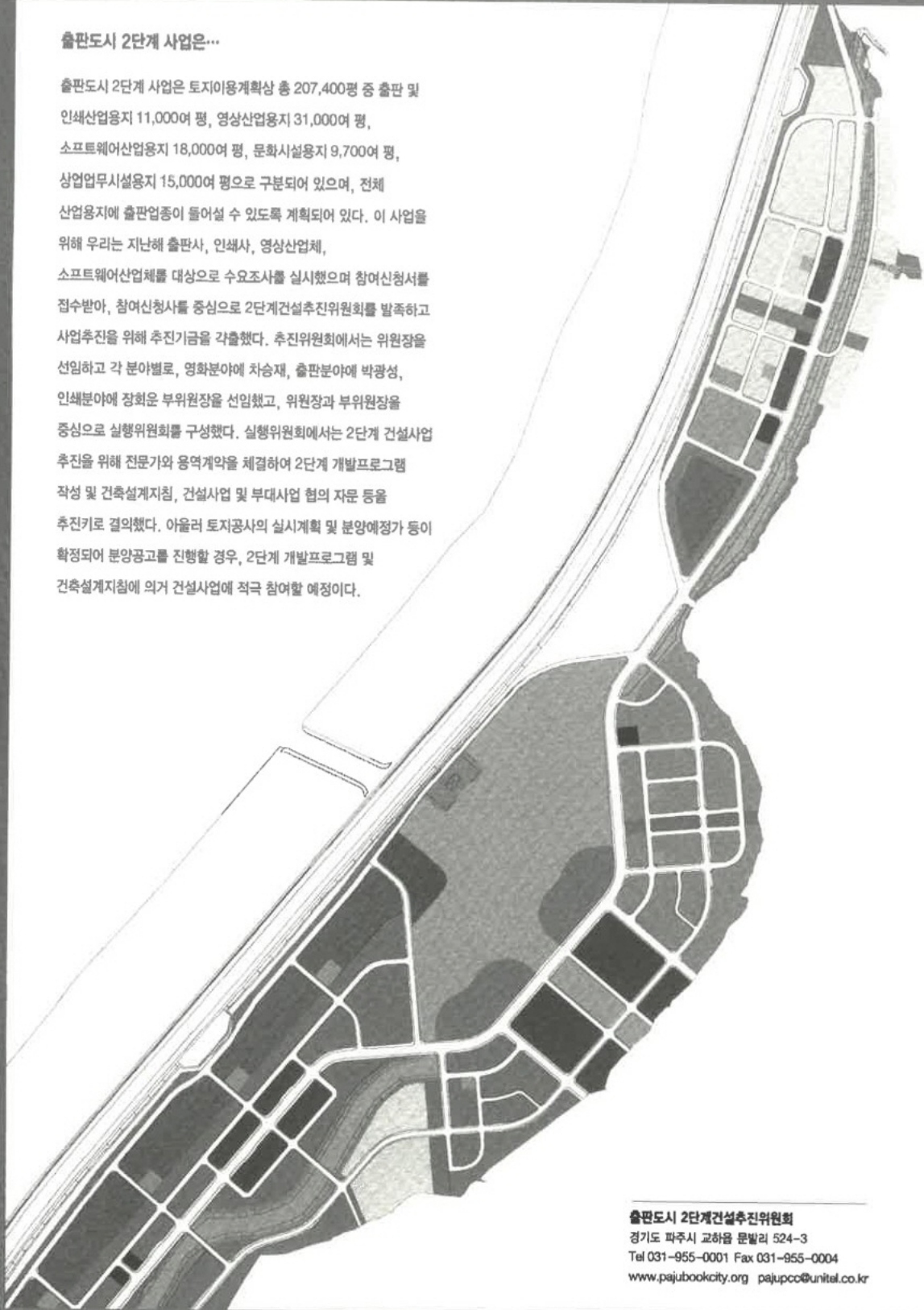
만찬 및 교재의 시간

출판도시 2단계건설추진위원회

② 출판도시 1단계의 경험, 그리고 2단계 건설을 향하여-출판도시 2단계 건설을 위한 첫번째 세미나 (2006. 03. 25)

출판도시 2단계 사업은...

출판도시 2단계 사업은 토지이용계획상 총 207,400평 중 출판 및 인쇄산업용지 11,000여 평, 영상산업용지 31,000여 평, 소프트웨어산업용지 18,000여 평, 문화시설용지 9,700여 평, 상업업무시설용지 15,000여 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산업용지에 출판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우리는 지난해 출판사, 인쇄사, 영상산업체, 소프트웨어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참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참여신청사를 중심으로 2단계건설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기금을 각출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각 분야별로, 영화분야에 차승재, 출판분야에 박광성, 인쇄분야에 장희운 부위원장을 선임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실행위원회에서는 2단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단계 개발프로그램 작성 및 건축설계지침, 건설사업 및 부대사업 협의 자문 등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토지공사의 실시계획 및 분양예정자 등이 확정되어 분양공고를 진행할 경우, 2단계 개발프로그램 및 건축설계지침에 의거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출판도시 2단계건설추진위원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Tel 031-955-0001 Fax 031-955-0004

www.pajubookcity.org pajupcc@unitel.co.kr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 계획(안)

2006.08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출판도시 2단계 건설 추진위원회

우리의 도시문화는 '이웃'이라는 아름다운 우리말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곳 출판도시에서 그동안 잃었던 '이웃'이라는 말을 되찾을 것입니다.

❸ 파주출판도시 2단계 개발 계획(안) (2006. 08. 01)

출판도시 2단계 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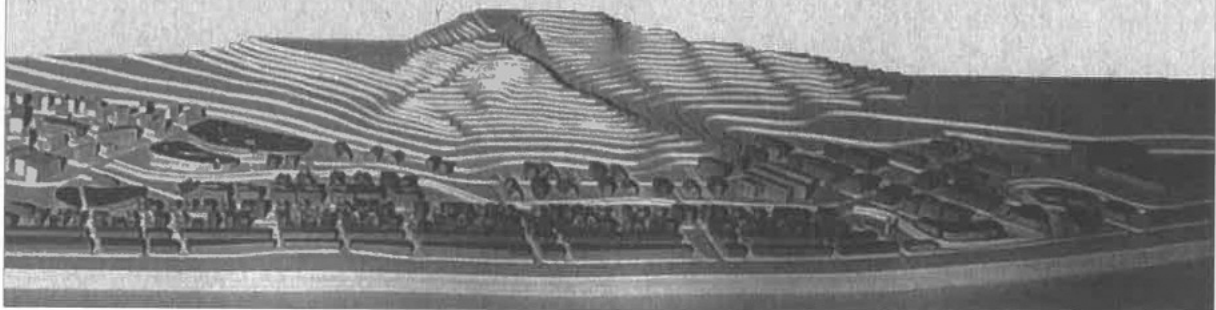
이 계획안은 출판관련 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출판도시를 국가산업단지 수준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즉, 1991년 출판관련업제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인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모체로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당국(경기도)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이 조합의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1997년 이곳 파주 부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는 성과를 얻어냈고, 그 1단계 사업을 9년 동안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 오늘의 성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1단계 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앞두고 그 연장선상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동화사업의 개발프로그램으로 이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출판도시의 개념	6	• 구역별 개발 계획	20
• 파주출판도시 이용계획도	7	• 도로	21
• 도시 개발 유형	8	• 수변 공간	22
• 출판도시 건설 사업의 개요	9	• 주차 공간	23
• 출판도시의 이상과 비전	10	• 영상산업 지역	24
• 출판도시 1단계 건설 사업의 성과	11	• 문화 및 상업 지역	25
• 2단계 출판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의 비전	12	• 폐기물 처리장	28
• 출판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	13	• 소규모 필지	29
• 출판도시 2단계 개발 사업의 목표	15	• 근린 시설	30
• 출판도시 2단계 사업의 성격	16	• 부록_ 위대한 계약서	31
• 출판도시 2단계 사업의 기대 효과	17	_ 2단계 참여신청사 명단	33
• 도입 시설의 선정 기준	18	_ 출판도시 2단계 건설추진위원회	36
• 단지 구획의 기본 방향	19	_ 출판도시 2단계를 기대한다	38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602 3015 (주)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413-602 3015-3011 팩스 413-602 3008 E-mail: pajucoo@nate.com

문서 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6-27호 2006. 2. 6.
수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참조: 고지자원부장
제목: 상업업무용지 매매계약서 제9조(계약해제)에 따른 명확한 회신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출판단지조합 제2005-364호(2005. 12. 29) 및 서울(고)5511-416호(2006. 1. 12.)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와 우리 조합은 지난 2000년 6월 26일 출판도시 내 상업업무용지 가지면 548㎡, 558㎡, 56-08A, 57B, 등 총 4필지 6,824.0㎡(2,064평)에 대해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조합에서는 귀 공사를 비롯,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 등과 협의를 통해 이 상업업무용지를 출판도시 조성목적과 성격에 맞는 특화된 테마상가로 조성하기 위해 등 용지를 분할하여 용지매매(분할)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02년 4월 4일 출판도시 테마상가 조성이 동장을 약속한 바지, 데코, 소다 등 관련업자를 '별'으로 하는 컨퍼런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처럼 출판도시 성격에 맞는 테마상가 건축을 전제로 상업업무용지를 우리조합으로부터 권리 의무를 승계 받아 귀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썬더, 소다, 데코 등 해당업체가 이 상업용지를 업종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제) 2항, 3항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귀 공사의 회신이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제) 2항, 3항에 의거 계약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을 뿐 더러 회신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한번 분명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5. 아울러 귀 공사에서 입주업체들과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내용의 이월여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602 3015 (주)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413-602 3015-3011 팩스 413-602 3008 E-mail: pajucoo@nate.com

문서 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6-28호 2006. 2. 6.
수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참조: 파주시부장
제목: 상업업무용지 무단매각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회신 내용 전달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과 기원 드립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불임의 출판단지조합 제2005-364호(2005. 12. 29.)를 통해 당초 목적대로 상업업무시설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지를 무단으로 매각한 출판도시 523-1-3, 530-5-7, 531-1, 531-4-6번지 등 총 4필지 6,824.0㎡(2,064평)의 소유회사인 썬더, 소다, 데코 등 용지매매계약회사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의 용지매매계약서 제9조(계약의 해제) 2항, 3항에 의거 계약 해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에서 불임의 서울(고)5511-416호(2006. 1. 12.)를 통해 귀 공단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회신해 용에 따라 관련 문서를 송부하시니, 정황을 인지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 문서 사본 각 1부,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602 3015 (주)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413-602 3015-3011 팩스 413-602 3008 E-mail: pajucoo@nate.com

출판단지조합: 제2006-38호 2006. 02. 17.
수신: 문화관광부장관
참조: 출판전문기자
제목: 파주출판단지 우편불편사항 관련 보고

1. 귀 부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의 공문(출판문화-225, 2006.02.06) 및 서울재신청 공문(우정계획과-772, 2006.01.31)과 관련하여 지난 2006년 2월 13일(월) 우리 조합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 파주지부가 파주교하우체국을 방문하여 협의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 래 ·

가. 운영방안: 교하우체국에서 직원을 파견하여 출장검수

나. 업무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1층 로비

(출판도시문화재단 무료제공)

다. 업무시간: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1일 2시간

(우편불량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라. 업무개시: 2006년 3월 2일(목) 예정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602 3015 (주)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413-602 3015-3011 팩스 413-602 3008 E-mail: pajucoo@nate.com

문서 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6-90호 2006. 5. 17.
수신: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참조: 건설과장
제목: 자유로 출판도시 교통안내표지판 존치 기간 연장 요청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건설과-5616호(2006. 5. 12.)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도시는 1단계 26만 4천평의 조성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상황에서 5월 중순 현재 출판사, 인쇄사, 저류회사, 유통회사 등 출판관련 업체 110개사가 사옥 건축을 완료하고 입주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입주사를 포함하면 총 240개 업체가 입주하여 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가 완성되어 감에 따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세계 유일의 책의도시를 견학하기 위해 외부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365일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 문화도시로서 출판도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관람객의 발길 또한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판도시 진입로에는 작은 교통표지판만 세워져 있어 방문객과 행사관람객, 입주공사원, 그리고 거래처 종사자들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함으로써 현재의 출판도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출판도시에서는 지난 5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2006파주출판도시 이력 이력잔치를 성황리에 끝마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동아시아책의교류 2006 국제심포지엄을 비롯, 국제출판포럼, 어른들을 위한 출판도시 혁신 등 문화관광, 경기, 파주시 등의 정책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크고 귀중한 행사들이 줄을 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 청의 관내 자유로상에 설치된 출판도시 교통안내표지판의 존치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금년도 행사가 마무리되는 연말에는 자진 철거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오니, 아낌 없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1 - 상업업무용지 매매계약서 제9조(계약해제)에 따른 명확한 회신 요청
- 2 - 상업업무용지 무단매각에 대한 한국토지공사 회신 내용 전달
- 3 - 파주출판단지 우편불편사항 관련 보고
- 4 - 자유로 출판도시 교통안내표지판 존치 기간 연장 요청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6-55호 2006. 06. 09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교통정책과장
제 목 : 버스노선변경 협조 요청의 건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우리 파주출판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관심양원으로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귀시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미 어시는 마하 같이 현재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인쇄·유통 등 출판관련업체 250여개사가 이미 입주하여 역동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말경에는 400여개사가 입주하여 일일 유통인구 약 4만여명이 왕래하는 유례없는 세계적인 출판문화도시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완성되어가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1단계의 참여하는 파주출판도시 2단계건설을 위해서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통인구가 증가하고, 서울 도심권에서 파주출판단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주출판단지를 경유하여 서울 도심권까지 운행되고 있는 노선은 단지 200번 버스 6대과, 2200번 버스 4대 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번 버스와 2200번 버스는 기동성이 떨어진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불일시 및 일산신도시 구간에서 다르게 운행되고 있어, 파주출판단지 및 합정역에서 배차간격이 길어져 불편 수 많은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200번 버스노선은 일산신도시의 중앙로를 경유하지 않고, 호수로를 경유하여 운행되고 있어 일산신도시에서 저하점 및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환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망무선하게 운행되고 있는 2200번 버스노선을 200번 버스노선과 통합하여 운행한다면 기존 200번 버스노선의 배차간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단계도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일산신도시 중앙로를 이용함으로써 저하점 및 타 노선과도 환승이 용이 할 수 있어 파주출판도시, 고라신도시, 배여리 및 영아마을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2200번 버스노선을 200번 버스노선으로 통합운영 될 수 있도록 해당운수업체와 협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출판단지조항 : 2006-107호 2006. 06. 26.
수 신 : 고양시장
참 조 : 건설과장
제 목 : 국지도23호선(자유로) 안내표지판 설치 관련 질의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고양시 일산서구 건설과 - 3435(2006.03.24), 5190(2006.05.02), 5615(2006.05.12), 6089(2006.05.24), 6877(2006.06.13) 및 출판단지조항 제2006-56(2006.03.20), 제2006-57(2006.05.08) 호와 관련입니다.

3. 귀 시 일산서구청은 국지도23호선(자유로·자동차전용도로) 상에는 어떤 시설 안내표지판 설치도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불합과 같이 귀시의 덕양·일산동·서구 관할의 국지도23호선 도로상에는 오래전부터 20여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에서 설치하려는 안내표지판과 국지도23호선 도로상에 설치된 사설 표지판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산업의 중흥을 위해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건설되고 있으며, 이미 안내표지판은 일반적인 사설표지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 상기 건과 관련하여 일산서구 건설과 신라식 지방기계주사료와 통과하였으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협의하오니 본 문제를 일산서구 건설과로 이첩하여 처리하지 마시고, 귀시 본청장 명목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붙 임 : 1. 관련 공문 1부.
2. 사설안내 표지 1부,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

고양시 일산서구

2006년 제1회 지방선거
mayor election 2006. 6. 1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파주시 교하읍 본말리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 524-3
제목 자유로상 무단 사설안내표지판(파주출판단지) 시정 중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국지도23호선(자율차전용도로) 자유로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파주출판단지)은 규격 및 색상이 「고양시표지기반계획」에 맞지 않으며, 아울러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5호 나목규정에 의거 자율차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가 불가한 도로로서 자진철거를 요청하오니 2006년 05월 12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의 제1항에 의거 행정조치 및 도로법 제82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현공견경 1부, 끝.



고양시 일산서구청

*지방기계주사료 신라식 지방기계주사료 황규형 건설과장 2006.06.02
인송재

청조사

시행 건설과-5190 (2006. 06. 02) 접수
주 기안·청정 고양시 일산서구 (국문) 2부
전화 031-930-5943 (전송 031-930-5943) / shir9399@gyang.go.kr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

고양시 일산서구

2006년 제1회 지방선거
mayor election 2006. 6. 1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파주시 교하읍 본말리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 524-3
제목 출판단지 진입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출판단지조항 제2006-56호(2006. 03. 20)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국지도23호선(자유로·자율차전용도로)상의 파주출판도시 사설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결과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5호 나목규정에 의거 자율차 전용도로에는 사설안내표지판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기타 공정한 사항이 있을 시 생활민원2담당(930-6943)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체 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출조사

시행 건설과-3435 (2006. 03. 24.) 접수
주 기안·청정 고양시 일산서구 (국문) 2부
전화 031-930-5943 (전송 031-930-5943) / shir9399@gyang.go.k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6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31-9991 팩스: 031-931-9994 E-mail: paju@pajubookcity.com

문 사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6 - 140호

2006. 8. 14.

수 신 : 경기도지사

참 조 : 감사관

제 목 : **고양시의 민원요청 묵살행위와 일산서구청의 불공정한 행정집행 고발 및 현황조사 후 시정조치 요청**

1. 귀 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귀 도의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에 위치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출판도시」)는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산업단지로서 1998년 11월 1단계 25만여명의 조성 공사를 착공한 이래 출판계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 2006년 7월말 현재까지 출판 및 인쇄사 등 관련 업체 250여개사가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말까지 임대입주사를 포함하여 약 300여개사가 입주할 예정으로 상근임직원만도 수 만여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3. 이 출판도시는 출판관련 업체들이 기업하는 출판산업도시로서만이 아니라 건축물이 아름다운 건축도시, 감성적공간을 가진 생태환경도시, 365일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 문화도시로 완성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출판도시 진입로에는 「파주출판단지」라는 작은 교통표지판만 붙어 있어, 기업활동과 관련한 거래처 및 관련회사 방문객, 각급 공무원, 학생 등 전파방문객, 행사관람객, 입주시 종사원들이 출판도시를 찾는데 불편과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로부터 출판도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아 왔습니다. 특히 금년 5월에 개최되어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2006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기간에 외부 방문객들이 안내표지판을 찾지 못하여 출판도시를 그대로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수도 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불편과 특리가 빚어져, 우리 조합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자유로에 디자인이 뛰어난 출판도시 안내표지판(붙임 1)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고양시 일산서구청 건설과(당당 신각식)에서는 이 안내표지판의 철거를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므로 우리 조합에서는 가솔에 있을 「중아시아 책의교류 국제심포지엄」, 「북시티 국제출판포럼」, 「북시티 가을책잔치」 등 공직관 국제행사 가산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일산서구청에서는 자유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그 어떠한 표지판도 설치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를 내세워 철거를 요청하면서, 우리 조합의 입원 및 담당자를 일산경찰서에 고발조치하여 처벌(과태료)까지 받게 하였습니다.

5.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사기업의 안내표지판도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를 안내하는 교통안내표지판 설치에 같은 경기도의 인근 지자체에서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자유로변에 세워진 각종 광고판, 교통표지판, 홍보물 등을 조사한 바 자동차 전용도로인 자유로상에 개인시설광고판이 20여개(붙임 2)나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산서구청에서는 이를 사실광고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국가산업단지인 출판도시 교통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강제 철거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행정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조합에서는 일산서구청을 견제하는 고양시에 이같은 내용에 대해 현황 조사를 한 후, 명쾌한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지난 2006년 6월 26일 등기로 발송(붙임 3)하였습니다. 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우기 사실청고판과 국가산업단지 안내표지판은 행정성과 공정성에 있어 단순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일산서구청에서는 오히려 국가산업단지 안내표지판만 문제 삼는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집행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6. 이에 귀 도에 귀할 고양시(건설과)의 민원요청 묵살행위와 일산서구청(건설과)의 불공정한 행정집행 내용을 고발하오니,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명쾌하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출판도시 안내표지판 사진 1부.
2) 자유로변 불법 사실광고판 및 교통안내판 설치현황 사진 1부.
3) 고양시 및 일산서구청과의 수월문서 사본 각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6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전화: 031-931-9991 팩스: 031-931-9994 E-mail: paju@pajubookcity.com

문 사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6 - 167호

2006. 9. 18.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참 조 : 파주지부장

제 목 : **한국토지공사의 계약해제 통보에 대한 회신 내용 전달**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귀 공단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조합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출판도시) 내 시범지구 상업용지 4필지에 대하여, 용지매매계약서 제8조 3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법으로 무단 매각한 일체를 상대로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당초 시범지구 상업용지 계약의 당사자로서 한국토지공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의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불임과 같이 최초 분양계약 완료 후 산업단지 내 용지의 처분 등의 관리권한이 귀 공단에 있으므로 귀 공단과 협의하라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의 공문 회신 내용을 일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이에 대한 귀 공단의 회신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한국토지공사의 회신공문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파주사업단 단장 송광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37

발 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413-63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출판단지조합 : 제2006-167호

2006. 9. 22.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 파주사업단장

참 조 : 개발담당

제 목 : **파주출판도시 2단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관련 통보**

1. 파주(가)6111-15628호(06.08.25) 및 「파주출판문화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관련 합니다.

2.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에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일원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1991년 부터 출판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협동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협동화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의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주) 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사실을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권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라고 명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는 협동화사업에 대한 이해도 없이 자기방어적인 시리에서 자기 문서를 우리 조합 및 협동화사업 참여자에 발송하여 필요로 정해진 협동화 사업을 조지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4. 우리 조합은 지난 9월 12일 출판도시 2단계 사업성공을 위한 당정협의회(귀 공사의 단지사임직자 감할대 참석)의 합의내용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동화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일러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의 협동화사업과 관련하여 별적으로 간섭할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강력대응」 「엄정경고」 은온하는 것은 원천행위로서 계속하여 합법적인 협동화사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 ⑦ - 고양시의 민원요청 묵살행위와 일산서구청의 불공정한 행정집행 고발 및 현황조사 후 시정조치 요청
- ⑧ - 한국토지공사의 계약해제 통보에 대한 회신 내용 전달
- ⑨ - 파주출판도시 2단계 사업 참여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관련 통보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6-19호

2006. 09. 26

수신 : 경기북부지회

참조 :

제목 : 중소기업협동조합원장지원단 지원신청서 건

귀 지회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경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1998년 11월 1단계 26만평의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006년 9월 현재 출판·인쇄·유통 등 출판관련 업체 250여개사가 입주하여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공적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감에 따라 출판도시 2단계 사업지구 20만 7천평의 개발을 위해 1단계 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단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2단계가 하나의 협동화 사업프로그램에 의해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 사업지구 신규입주자로부터 추가 출자를 받아 1단계 개발 사업의 성과를 확장하고, 영상과 책의 본격적인 만남과 결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 르네상스를 이뤄내고자 출판인과 영화인의 합력을 구체화하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에 1, 2단계 협동화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개발사업과 관련된 원장지원단의 지도가 필요하여 불임과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중소기업협동조합원장지원단 지원신청서 1부, 끝.

• 지원희망일자 : 2006년 9월 29일



파주출판문화경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수신 : 한국도자공사 김재현 사장

463-73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자동 217

발신 : 파주출판문화경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암리 524-3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6-182호

2006. 10. 9.

수신 : 한국도자공사 사장

참조 : 단지사업처장

제목 : 파주출판도시 진행상황으로 본 조합의 위상 설명 및 2단계 협동화사업 방해 중지 촉구

1. 귀 공사 파주시사업장에서 우리 조합원들과 2단계 참여회사들에게 보낸 불임 7) 『파주출판문화경보산업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한 안내말씀』 및 청문회 파주(06)611-15628호 (06.08.25)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업구역에 파주시 교하읍 송암리 일원으로 하여 동면 시범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으로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출판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협동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협동화사업은 출판관련 업체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출판산업도시로서만이 아니라 건축물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건축도시, 강대세상을 가진 생태환경도시, 365일 문화행사가 끊이지 않는 문화도시로 완성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방문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으며, 각계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이같은 1단계 사업이 이만큼의 성과를 올리기까지 협동화사업 주체로서 우리 조합은 1991년 조합 설립 이후 출판산업정책화도시의 기획, 구성에서부터 출판도시 조성이 결정되기까지 청와대, 국회, 문화체육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얻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조합에서는 [붙임 1]과 같이 대동령에 드리는 호소문과 『출판도시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출하고 이기를 이사장이 직접 대동령에 주재하는 청와대 조합로 임에서 출판도시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1994년 7월 1일 대동령으로부터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출판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특별지시(대통령 지시사항 코드번호 06-26-10)를 받는 성과를 얻어낸 바 있습니다. 같은 해 7월 16일 [붙임 2]와 같

(별지 제6호 서식)

중소기업협동조합원장지원단 지원신청서

1. 협동조합 개요

협동조합명	파주출판문화경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송암리 524-3	사무이사	이관구
연 락 처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04 E-Mail		
자 본 금	1,901백만원	임여금	4백만원
예 산 액	1,423백만원	결산액	1,325백만원
		조합원수	187
		임직원수	7

주요 공동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실적 및 금액
1, 2단계 협동화사업	단순한 산업시설의 클러스터를 넘어서는 문화예술도시의 완성 출판과 영상을 결합한 21세기형 문화산업도시의 건설 한류유투드 및 케이리와 연계되는 첨단 출판도시의 건설 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미래형 생활도시의 건설	사업추진중

2. 지원신청 현황

신청분야	세 부 내 용	비 고
협동화 사업의 운영 및 개발사업	1, 2단계 협동화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2006년 9월 26일

지원 신청인	경리부 직위	주임	성명	김일오 (인)
--------	--------	----	----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이 문화체육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귀 조합 자체의 추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 강구 등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까지 받았습니디. 이후 도시 설계와 관련 우리 조합에서 출판사, 인쇄사를 대상으로 수요설문조사를 비롯, 업체 심의 등 기초데이터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임장 황기원 교수)에 제시하여 그 데이터를 통해 귀 공사에서 현 부처에 출판문화경보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구상도, 토지이용전통배치 구상도, 교통구상도, 조정기본구상도, 기반시설구상도 등 우리 조합과 귀 공사가 협의하여 출판도시 실시 설계도면을 작성했었습니다. 이 계획은 출판문화도시의 배치와 후 일상의 융복합 계획에서 현 부처인 파주출판도시의 활발한 계획으로 정리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귀 공사에서도 잘 알고 있을 터입니다. 이후 조합에서는 전설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심의 시 출판도시 조성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를 위해 [붙임 3]과 같이 직접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농업부로부터 해당 부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군부대 동의부본에서도 [붙임 4]와 같이 사업추진 주체로서 우리 조합은 1995년 4월 27일 심학산 현장회의에서 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문화체육부 차관, 청와대 비서관, 합동참모부 작전참모부장, 3군사령관, 1군단장, 9사단장, 한국도자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고도제한 등 현안사항에 대해 업무협의를 하고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군사동의를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붙임 5]와 같이 1995년 10월 20일 우리 조합이 주최하고 문화체육부와 귀 공사의 후원으로 그동안 다양하게 불려진 파주출판도시 명칭을 우리 조합에서 지은 이름인 『파주출판문화경보산업단지』로 공식화하여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행명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행명식에는 [붙임 6]과 같이 대동령에서 천히 주회자인 조합의 이사장에게 축하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4. 이처럼 출판도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합은 청와대를 비롯 정부로부터 출판도시 협동화사업 주체로 인정받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 공사에서도 예전에는 출판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관련산업들의 협동화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파주시로서, 상당부분 우리 조합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출판도시가 가진 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현재까지 긴밀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조합을 귀 공사 파주시사업장이 마치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는 단체인가, 1단계 입주조합원을 비롯 2단계 협동화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들에게 협동화사업을 방해하는 문서를 보낸 것만 봐도 우리 조합은 도저히 특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협동화사업의 개념도 모르면서 우리 조합을 불법단체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귀 공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동화사업 계획이란 사업들간의 협

조를 통해 산업효과를 극대화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업체들의 특성을 사이의 상호간의 교섭과 정보교류 - 물류비의 절감적 전략계획, 인적 - 기술적 교류를 상호 협력 조정에 분업적 요소들이 통합되면서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동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 그것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가운데 그동안의 실적이 다소 미약하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이 분명한 입찰인 경우, 그 계획을 정밀 심의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두 원칙, 입주희망업체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들 업체들 사이에 협업, 특히 이업종(異業種)간의 협동화사업 계획이 성립하고도 비현실적으로 수립되고, 그것에 따라 산업체치를 하지 않으면, 국가산업 단지의 소기의 목표, 즉 출산 및 영장산업의 집적화(集積化)를 통한 관련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처럼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무계획하게 그저 토지만 적당히 팔아 매각하는 일이야말로 공정의 탈을 쓴 비공정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된다면 모든 산업단지, 특히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는 번번히 실패하거나, 큰 회사를 치료코셔도 온전한 산업단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은 전문가뿐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터입니다. 물론 몇몇 대기업의 경우에는 토지를 분양받은 후, 자체의 힘으로 단지 및 도시의 형태를 띠는 산업체치를 스스로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정교하게 수립된 협동화사업을 통해서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6 이 협동화사업 프로그램과 관련,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2005년 5월 18일 출판도시의 관리권자인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당시 신문국)과 주무관이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이강찬 출판도시 2단계 개발은 1단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출판도시의 완성도를 높여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조합의 2단계 협동화사업의 사업계획으로 1단계 조합에서 2단계 개발을 위해 번 출판도시를 비롯, 영산, 소프트웨어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여회사들을 중심으로 협동화사업 프로그램을 수립토록 승인한 바 있으며, 이 협의결과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는 1단계보다 더 정교한 방식으로 참여신청사들과 함께 2단계 협동화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협동화사업은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수립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조합은 그것을 1단계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문가와 참여회사들로부터 더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들이고 그 계획을 공개하게 경청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정과정에서 인원을 통한 검증 또한 중요함입니다. 물론 2단계 협동화사업 프로그램에 대해 출판 및 영장관련 업체는 물론 각급 언론사에서 2단계 개발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는 2단계 개발계획의

개념을 알리는 기자회견회를 개최하여 협동화사업 프로그램 개념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 기자들의 기사작성의 속성을 감안해서 바 주시 야 함에도 우리 조합에서 2단계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꼭 무슨 특별한 바라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신 점에 대해서도 남음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조합에서는 사전에 귀 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2단계 개발과 관련 업무협의를 했으나, 그때마다 무슨 비밀을 감추듯이 내태를 해 왔습니다. 물론 기자회견회의 취지는 비롯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건교위원장, 문화관광위원장,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귀 공사, 우리 조합이 참여하여 개최된 당정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해서도 귀 공사 파주시업단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동화사업을 해방이라도 놓는 것처럼 언어이 문서를 보낸 것에 대해 우리 조합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7 이에 귀 공사 사장께서 직접 파주시업단의 협동화사업 실패 문제와 관련 하여 진상을 확인하시고, 남독할 만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특히 어떤 의도로 1단계 사업에 입주한 조합원들에게까지 보낸 것인지, 여간의 사정을 공문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안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통해 귀 공사와의 오랜 우의가 지속적으 이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조합의 합법적인 협동화사업을 계속 방해를 경우, 귀 공사 파주시업단 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우리 조합이 청와대에 보낸 '개발계획에 드러난 호소의 글' 사본 1부
- 2) 문화체육부가 우리 조합에 보낸 출판도시 조성계획 통보 공문 사본 1부
- 3)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우리 조합에서 직접 도면에 수기로 표시하여 제출한 도면으로 문화체육부에서 그 도면을 그대로 활용하여 농업진흥지역 업무협조를 요청한 공문 사본 1부
- 4) 군부대 동의를 위해 심학산 현지에서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 공문 사본 1부 (우리 조합이 협동화사업 주체로서 고도제한 관련 설명을 하도록 기술되어 있음)
- 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 브로셔 사본 및 행사 사진 각 1부
- 6) 명명식 주최자인 조합의 이상찬 앞으로 보낸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사본 1부
- 7) 귀 공사 파주시업단에서 1단계 입주조합원 및 2단계 참여사들에 보낸 문서 사본 1부
- 8) 우리 조합이 파주시업단에 보낸 달신 문서 사본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9-0212 영산 744-1 24시간 상담: 112-11211111-11211111 FAX: 112-11211111-11211111

문 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6-197호

2006. 11. 17.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단지사업자장

제 목 : 파주출판도시 협동화사업 회신에 대한 의견 제출

1. 출판단지조합 제2006-182(2006. 10. 9.) 및 단지(제)6116-1488호(2006. 10. 19.)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문서를 통해 출판도시 2단계 사업시행자로서 신의 피려 자가 발생될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귀 공사 용지를 개발, 직접 분양 한다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실만을 알렸다고 해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공사와 파주시업단에서 보내는 문서를 살펴보면, 우리 조합을 마치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령상 근거없는 단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 공사에서 이까지 중소기업의 협동화사업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면서, 그 협동화사업 주체로서 우리 조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협동화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 협동화사업계획이란 중소기업체들이 모여, 그 업체들의 특성을 사이의 상호간의 교섭과 정보교류 - 물류비의 절감적 전략계획, 인적 - 기술적 교류를 상호 협력 조정에 분업적 요소들을 통합하면서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자본력과 자회력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용지를 구입하여 산업시설, 협력업체, 문화시설,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산업체치를 비롯 용지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동화사업을 하도록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조합을 구성토록 한 것이며, 조합에서는 토지를 분할하여 중소기업체들의 규모에 맞게 부지에 배치하는 일을 비롯 그 토지에 맞는 건축계획 및 자금계획이 그 일체의 사업계획과 협동화 사업계획에 맞추어 조율하도록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것입니다.

4. 귀 공사에서 아무런 개발계획이나 입주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수제비 끓이는 아낙네가 송아위로 수제비 반죽을 때이 냄비에 넣듯이, 무계획

하게 그저 토지만 적당히 팔아 매각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출판도시 2단계 사업에서도 그런 일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개경쟁이라는 명명으로 포장한 공경심으로, 실은 국가사업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인지 아닌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5. 귀 공사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조합의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이고 독창적인 협동화사업의 성공 사례로 국내외적으로 유서한 도시 건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각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간담회에서 한 국회의원에서 '출판도시 1단계 사업은 민간인들 스스로가 협동화사업계획을 세워 눈물길도록 어렵게 진행해 성공한 사례로, 국가가 해준 일이 무엇인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라 지적하며, '앞으로 국가가 두고 두고 빛을 갈아아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던 말을 단지사업자장은 분명이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1단계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도시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언론을 비롯, 2단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회사로부터 우리 조합 집행부에 2단계 사업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졌으므로, 이 지에서 입주프로그램을 계속 수립하도록 설립된 우리 조합으로서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정교한 협동화사업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기본개념을 작성하여 우선 대내외에 알렸던 것입니다.

6. 이처럼 우리 조합의 협동화사업 수립(현) 개념설명에 대해 귀 공사 파주시업단장이 마치 협동화사업을 방해하는 듯한 악의적인 문서를 2단계 참여회사들에게 보낸 다음, 국회 간담회가 있었던 이후에도, 뒤이어 1단계에 입주를 완료한 우리 조합원들에게까지 발송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이 문서를 받은 우리 조합원들이 파주시업단장을 협동화사업 방해로 법적 조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귀 공사 파주시업단장이 우리 조합 이사에게 불칙하여 공적으로 사과와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합니다. 만약 이 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조합에서는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파주시업단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간 예정입니다. 이런 법적 조치가 거처 귀 공사의 그동안의

관형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사업 및 앞으로의 사업의 정당성과 경제성을 규명하는데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노력은 국회를 비롯, 각 정당, 사회 시민단체, 감사기관과 사법당국, 언론,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귀 공사의 협동화사업에 대한 무지 및 무계획하고 무책임한 용지공급 방식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8. 아울러 귀 공사 문서 5항의 지난 9월 12일 국회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되짚어보면, 출판도시 2단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기업활동 내용이나 사업비전, 기업의 성장성 등을 엄격하게 심의한 후 협동화사업계획에 합당한 기업들로 구성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협동화사업프로그램을 정밀히 수립하여 관리권자인 문화진흥부가 이 계획을 검토한 후 추천하면 귀 공사에서 용지를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실무회의를 통해 진행기로 하였음을 명확히 알려 드립니다.

대기업이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입주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체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어 일을 대행하는 것이며, 토지를 어느 특정단체에 알릴 분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협동화사업계획에 참여한 개별업체에 직접 분양되는 것임은, 1단계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임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공사는 조건부 군동의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공사로, 미량이라도 훼손현상은 모두 원상 복구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심학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귀 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붙임 : 1) 조건부 군동의의 내용 사본 1부.
 2) 육군 1군단감찰부 민원회신 내용 사본 1부.
 3) 민원인 서명록 사본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413-8537 (주) 파주 출판도시 관리공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1-3
 TEL: 0939-939-4623 FAX: 0939-939-4624 E-mail: paju@paju.co.kr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6-002호
 수 신 : 제29보병연대 3대대장
 참 조 : 참모장
 제 목 : 심학산 불법 공사차량 작전도로 통행차단 협조 요청

2006. 11. 27.

국도방위에 여념이 없으신 대대장님 이하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판도시의 가산(加山)이며, 귀 부대가 위치한 심학산이 불법건축공사로 인해 심각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학산은 관악산, 감악산 등 경기도의 오악중의 하나이며, 웅장한 산림과 온갖 동식물의 보금자리로 예전에는 도읍지로서까지 논의될 만큼 비주의 명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 이 공사는 군부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얻어 세주시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곳에 공장을 건축한다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 등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사장입니다. 특히 군동의 과정에서 귀 부대 울타리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고, 50m 이내의 산림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건부 동의를 준수하지 않아, 군동위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조건부 동의 내용 별첨 1) 이러한 사실은 귀 부대의 상급부대인 육군 1군단 감찰부를 통해서도 불법 산림훼손 및 건축건물의 50m 이격을 하지 않아 조건부 군동의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불법 건축공사인 것으로 확인(확인 내용 별첨 2)된 상황이기 때문에 군동위는 무효이며, 곧 원상복구를 해야 할 공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심학산은 불법공사로 인해 계속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출판도시 가족들은 심학산이 불법으로 계속 파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행정적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더 이상 불법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물리적 시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사를 대표하는 우리 조합과 월임의 서명인들은 귀 부대에 이같은 불법공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도록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이 귀 부대 울타리 옆 도로를 비롯 관할 군작전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행을 차단하여 주실 것을 요청

문화관광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내 신규입주허용 업종발굴 의견조회

1.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입지담당관-368(06.3.2.) 및 우리부 기획총괄담당관 815 (2006.3.3) 관련입니다.

2.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 신규입주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관한 수요조사를 요청해왔습니다.

3. 귀 조항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1의 현행 산업단지 산업시설규모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찾고하시어 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부합하며 추가 입주현황이 필요한지를
 제2의 양식에 의거하여 08.3.9(목)까지 우리부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임주허용업종
2. 배출양식, 끝.



문학과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파주지부장)

조부과 장현익

서지과 이기정

● 11월 11일 3:30 전월 03/05

원산지

시원 출판산업교-083 (2006.03.06.) 정수
무 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관광부 문화OIC(어국
전화 3704-0830 전송 3704-5069 / pranchelnet.co.kr



<첨부2> 제출양식

소속기관 및 부서			
담당자 직위 및 성명		연락처	
입주 필요업종	한국표준분류산업표상 분류 (분류불가시 근접업종 혹은 31명분류로 표기)		사 유
○			
○			
○			

- 120



건설교통부

수신자 이사장 귀하 (우413-832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24-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경유)
제목 민원서 회신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의 진·출입로(장원교차로~출판단지 간)의 확·포장을 요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는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조치하고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
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수신자

전달 07/28

사무관대우 **한서욱** 담당 **박영석**

협조자

시행 산업입지법-1795 (2006.07.26)

원주

우 427-712 경기 파주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http://www.moct.go.kr

전화 02-2110-8512

전송 02-503-7309

/ byhan@moc.go.kr

/ 공개



건설교통부

수신자 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우413-832 경기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경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524-3)
제목 민원서 회신

귀하께서 우리 부에 제출하신 경기도 파주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국지도 56호선 시배교차로 조기사공 등 산업단지 진입도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처리하고 그 결
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하였으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장관



수신자

전달 01/05

사무관대우 **한서욱** 담당 **이희재** 담당 **박영석**

협조자

시행 산업입지법-25 (2006.01.05)

원주

우 427-712 경기 파주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http://www.moc.go.kr

전화 02-2110-814750

전송 02-503-7309

/ byhan@moc.go.kr

/ 공개



건설교통부

수신자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의 다수인) 귀하 (우413-832 경기
(경유)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24-3)
제목 민원(다수인) 이송 알림

1. 귀 출판단지조합 제2006-99호(06.6.12)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문제로 논의이던 물건을 꺼치드린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우리부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자 합니다.
3. 민원 제기하신 파주에서 서울간 버스노선 신설 및 증설의 경우 여객차
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시·도)
에서 처리토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버스노선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
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시·도지사)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동 건은 우리부에서 직접 처리가 곤란하여 붙임과 같이
관할관청에서 조사·처리토록 경기도(파주시)로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귀하께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5. 다시한번 교통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대중교통팀(02-2110-8679 담당 권희열)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 이송 공문 사본 1부. 끝.



건설교통부장관



수신자

전달 05/16

사무관 **권희열** 담당 **김정중**

협조자

시행 대중교통법-2505 (2006.05.16)

원주

우 427-712 경기 파주시 관문로 88 (중앙동 1번지)

/ http://www.moc.go.kr

전화 02-2110-9679

전송 02-504-9148

/ hllwn@moc.go.kr

/ 공개

- ③ - 민원서 회신
- ④ - 민원서 회신
- ⑤ - 민원(다수인) 이송 알림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수신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경유)

제목 국지도 56호선 서폐교차로 마무리공사 측구에 대한 회신

1. 도경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건설교통부, 파주시에 제출하신 민원서류가 우리본부로 이송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본부에서 2005.12.20. 개통한 국지도 56호선 교하~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중 지장물(주택) 보상 협의자연으로 개통하지 못한 서폐교차로 연결로의 조기개통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서
3. 우리본부에서는 당초 2006.6.30. 준공예정인 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개통시기를 파주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계획을 6개월 단축하여 교하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2005.12.20.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4. 동 도로의 개통시 파주 출판문화단지(주) 진출입로인 서폐교차로를 포함한 전구간을 완전 개통코자 노력하였으나 서폐교차로에서 출판문화단지로 나가는 연결도로상에 저속되는 주택부지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동 구간의 개통을 하지 못하였으나 우리본부에서도 서폐교차로의 조기개통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재 도로에 저속되는 주택부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과 병행하여 주택 소유자와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이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5. 주택 이주시 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준공기한과 관계없이 주택 철거 및 연결로 공사를 즉시 실시하여 서폐교차로가 빠른 시일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건설본부



* 지방투자사업: 박승철 지방도책사무관 김경기 건설1부장

문/문
01/13
박성경

협조자

시행 건설1부-575 (2006.01.13.) 전수 ()
우 441-46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781-2 / http://www.gyeonggi.go.kr
전화 031-290-6363 / 전송 031-290-6375 / bus4992@gg.go.kr / 공계



에너지 절약, 미래는 실현입니다.

산업자원부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유)

제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진출입로 대책마련 요구에 대한 회신

1. 출판단지조합 제2005-369호('05.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조합에서 요청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진출입로에 대한 예로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신단공 파주지부등을 방문하여 입주기업체의 예로사항과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현지 실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산업활동 보장과 물류비용 등의 절감을 위하여 56호 국지도 확포장공사와 동축전입로의 조속한 완공, 56호 국지도 선 사폐교차로 구간 완공시까지 자유로 U턴 구간의 폐쇄 시기를 연기도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및 한국토지공사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산업자원부장



수신자

직관 장영기 주무관 윤종민 기계사무관 정승우 과장 01/13

협조자

시행 지역투자지원담당관-68 (2006.01.13.) 전수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용암동 산업자원부 지역투자지원담당관 /
전화 02-2110-5303 전송 02-2110-5602 / garun68@ecie.go.kr / 공계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오스트리아 그라츠 시 쿤스트하우스에서 열린 '파주출판도시' 전시회에 참석한 이기웅 파주출판산업단지 이사장(왼쪽)과 건축가 김영준 씨.

그라츠=전송훈 기자 raphy@donga.com

“파주출판도시는 도시건축 새모델”

오스트리아서 건축양식展 김영준씨 등 40여명 작품

경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건설 과정 및 건축양식을 보여주는 '파주출판도시(Paju Book City)' 전시회가 12일 오후 7시(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그라츠 시 쿤스트하우스에서 개막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9, 10월 독일 베를린과 11, 1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세 번째 순회 전시회로 한 달간 열릴 예정이다.

쿤스트하우스 로비에는 파주출판산업단지의 전체 모형과 함께 송효상, 민현식, 정기용, 김승희, 최문규, 이종호, 서현, 알레한드로 자에라, 스탠 앨런, 비센테 파야르도 등 국내외 건축가 40여 명의 건축 설계 작품이 영상과 모형으로 선보이고 있다. 전시 작품은 파주출판산업단지를 상징하는 책상 서랍 형태의 박스에 담긴 후 또 하나의 거대 도시처럼 집합적으로 형상화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그라츠 시 관계자를 비롯해 현지 언론과 인근 국가의 건축가 등 300여 명이 참

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기웅 파주출판산업단지 이사장은 개막 축하사에서 “이번 전시회가 단순히 파주출판산업단지를 알리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도시 간 문화 교류를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 점에서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 도시가 한두 개의 명품 건축물로 도시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방식과 달리 파주출판산업단지는 개성이 강한 건물의 ‘집합적 브랜드’로서의 도시 건축을 추구해 세계 건축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9월 ‘메타 시티’를 주제로 글로벌 시대의 도시 건축을 소개할 예정인 이탈리아 베네치아 비엔날레가 파주를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막식에 참석한 건축가 김영준 씨는 “5년 동안 파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계의 많은 건축가가 궁금해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출판인과 건축가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라츠(오스트리아)=전송훈 기자

raphy@donga.com



편집자레터

파주출판도시가 성공하려면

서울에서 경기도 파주까지 이어지는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오른쪽에 멋진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책의 도시’를 한국에 만들려는 출판인들의 꿈의 산물인 파주출판도시입니다. 지난 1988년 이기웅 열화당 대표 등 8명의 출판인들이 북한산 등반 도중 처음 논의했다는 출판도시는 17년이 지난 지금 26만평의 1단계 부지에 출판·인쇄·유통회사 230여 개와 각종 대형 부대시설들이 들어선 멋진 모습으로 실현됐습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올해 안으로 600개 회사로 예상되는 1단계 입주를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2단계 20만 7000평의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건축전시장’ ‘생태환경도시’를 목표로 하는 출판도시는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건축전시회에 초대되는 등 도시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각종 도서전시회는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출판계의 대표적 소식지인 ‘출판저널’ 2월호는 불편한 교통망, 의료·우편시설의 부재, 과속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보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서울에서 너무 떨어진 위치 때문에 상당수 회사들이 서울에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2원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들도 한편에서는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올라서 좋아하는가 하면 입주에 필요한 경비 부담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파주출판도시에서는 1단계 사업을 평가하고 2단계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첫 세미나가 열립니다. 출판인·건축가·도시계획가 등이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가 파주출판도시의 현안들을 고민하고 백년대계를 세우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선민 출판팀장 (블로그)smilee.chosun.com

① “파주출판도시는 도시건축 새모델” - 동아일보, 2006.01.14

② 파주출판도시가 성공하려면 - 조선일보, 2006.03.25

“파주 책잔치엔 책만 있지 않아요”

영상·음악·생태 등과 연계 내달 개최

파주출판도시가 어린이 책잔치(5월5일~14일) 준비로 부산하다. 사람(어린이)과 책과 공간이 한 데 어울려 꿈과 생명의 미래로 도약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될 모양이다.

출판도시문화재단은 4회째를 맞는 올해 행사의 주제를 ‘새로운 환경과 영상으로 만나는 어린이책의 세계~놀이 배워요’로 정했다. 축제의 주인공이 어린이와 어린이책만이 아니라 5월의 하늘, 한강으로 이어지는 샛강, 군데군데 무리지는 갈대밭, 삼학산의 산길에 되게 한다는 취지다. 그 사이에 자리잡은 ‘작품’으로서의 출판사 사옥들과 전시·문화공간들도 빼놓을 수 없는 축제의 공간이자, 주역이다.

출판도시 내 영화관 ‘씨너스 이채’에서는 세계 어린이 명작영화를, 별도의 영상 전시홀에서는 ‘어린 왕자’ 등 동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를 이어 상영할 예정이다. ‘도시’에 입주한 140여 개의 출판사들은 저마다 독특한 제형행사를 마련해 어린이를 앞세운 가족 방문객들을 유인할 참이다. 어떤 곳은 전통 용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중이고, 어떤 출판사는 ‘도시’를 품은 삼학산의 산길을 걸으며 생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한다. 각종 음악회와 콘서트, 영국과 프랑스의 그림책 전시회, 연극 및 인형극 놀이, 유명 작가들과 함께하는 동화·동시 낭송회도 있다. 출판도시 전역을 두루 돌며 각 출판사 사옥을 방문, 다양한 실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북시티 프롬나드’(Promenade·산책) 행사도 놓치면 안



지난해 어린이 책잔치 행사장에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책을 읽고 있다.

까울 볼거려다.

행사 기간 내내 도시 내 ‘다목적홀’에는 퍼질러 앉거나 누워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연을 담은 도서관’이 선다. 또 출판사들마다 자기네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책들을 엮기·함인 판매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더 재미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잔치 날 전까지 계속 채워나갈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최은필기자

3

한겨레

문 화

2006년 5월3일 수요일 19



“책잔치 가서 함께 놀아요”

‘파주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내일부터 열흘간



여러다 가을엔 열렸던 파주출판도시에서 이번이 ‘책잔치’가 4년째를 맞는 올해는 특별히 바퀴벌레를 열었다. 어린이날인 5월에 맞춰 경기 파주시 문화재단이 세계 첫 출판도시인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리는 어린이 책잔치 행사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진다.

인근 삼학산과 한강 및 샛강이 펼쳐지는 강변주변에 도라지의 갈대밭 등 특유의

주변 풍광이 주는 가을 분위기를 더해 열려온 어린이 책잔치 시기를 봄으로 옮긴 것은 역시 “무엇보다 어린이날이 꽃구기 위해서”라고 행사 기획자는 밝혔다. 1단계 환경을 살린 생태도시 지향 출판도시의 봄 신흥도 특산물에 어울린다. 잔치가 어린이 책사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와 교사, 어린이책 전문가들을 위한 행사들도 따로 기획해 있다.

행사기간 출판도시 전역에서 벌어질 책

마을 전시’는 올해부터 ‘북시티 프롬나드’ 산책이라는 네 이름으로 30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원작영화 전시와 문화 이벤트, 바자회 등을 선보인다. 어린이날 선물 증정, 코마 요리사, 독서교육 캠페인-삼국지 어린이 위조할 신법대회, 재해피와 사 진영기, 테다죽 그림 그리기, 생태 새말화 그리기, 원화 전시회, 삼학산 숲 체험, 출판 과장 견학, 만수리화 고전 놀이기, 어린이 영화 및 다문화문화 상영, 강연회, 도서관 시 및 판타 등이 준비돼 있다.

출판도시 내 아시아문화정보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책잔치’는 올해 처음으로 프랑스 국가를 주정했다는, 프랑스가 첫 초청국가로 됐다. 프랑스의 현대 그림책, 그리고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 어린이책, 신간 그림책이 전시된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삼학지열 ‘내게와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전파라 어린이책센터 소장 주노, 비에르 파르, 프랑스인 출판사 ‘공 세마 리’ 대표 엘리자베르 로르피르가 강사로 참여한다. 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 기획, 즉

도서관 환경 디자인 전시회 ‘자연을 담은 도서관’도 행사기간 내내 계속된다. 이밖에 출판도시 내 영화관인 ‘씨너스 이채’에서 선 <살롱의 거미줄> <영국트렌드 안론> <어린 왕자> 등을 상영하며, ‘독서는 놀이’-‘용기 만들기 시간’-‘우물쭈물 수와 세계 만들기’-‘아기책 읽어버리기’-‘아르다인’으로 펼쳐주는 등요기책 등의 공연행사도 펼쳐진다.

책잔치 참가자에서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다수의 직장인, 국내외 건축가들이 참여한 각기 독특한 자체의 건축물들. 일반 도시건축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적인 건축물들이 집안으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출판도시다.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안

의 ‘책이력 문화예술마을’도 출판도시와 연계되어 있는 장소인데, 그곳 역시 개성있는 고급 건축물들과 각종 문화행사들을 구경할 수 있어 두 곳을 한꺼번에 둘러보는 것도 좋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공식 홈페이지 www.pajucb.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준 기자 shun@han.co.kr



4

3 “파주 책잔치엔 책만 있지 않아요” - 한국일보, 2006.04.06

4 “책잔치 가서 함께 놀아요” - 한겨레, 2006.05.03

영화계의 힘 “충무로서 파주로”

영상단지 포함 출판도시 2단계사업에 영화사 18곳 참가

충무로에 집중돼 있는 한국 영화계의 힘이 파주로 중심 이동을 시작했다. 국내 굴지의 영화사들이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파주출판도시 측은 최근 ‘영상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영상 출판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싸이더스 FNH를 포함한 18개 영상 관련업체가 참가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기용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영상부문 차승재 싸이더스 대표, 출판부문 박광성 생각의 나무 대표, 인쇄부문 장화은 예안미술 대표를 아우르는 출판도시 2단계 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참가업체의 면면은 ‘영화계의 대이동’이라고 부를 만큼 중랑구 영화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국내최대의 영화 제작사이면서 최근 배급업에까지 도전장을 낸 싸이더스 FNH, 영화 ‘괴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청어람을 비롯, MK픽처스, LJ필름, 마술피리, 보람엔터테인먼트 등 대표적 영화사 18개가 이전대상으로 올라 있다.

이들 영화사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

차승재 싸이더스 대표등 건설추진위 발족



국내 굴지의 영화제작사 18개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종합영상문화단지로 다시 태어나게 될 파주출판도시.

울 66만㎡ 규모로 조성되는 2단계 사업단지에 오는 2009년까지 입주하게 된다.

이번 이전 계획은 영화계의 이전 사업은 서울시와 영화제작가협회가 추진하던 영화사들의 상암디지털문화단지 이전이 무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

게 됐다. 당초 영화파주출판도시에 영화산업용 유치하는 계획은 출판도시건설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기획됐던 사업이지만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채 갖추지 못한 도시의 현실상 영화계의 참여부는 불투명했다.

영화계에서는 앞으로 제작은 물론 편

집·녹음 등 영상산업 전체가 파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돼 영화 산업 전반에 큰 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한편 지난 1989년 첫 출발해 2006년 8월 말 현재 210여 출판사와 인쇄사가 자리잡은 파주출판문화단지는 영화계의 이번 계획에 따라 영상과 텍스트를 아우르는 종합문화단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특히 계획도시로서 수려한 미관을 자랑하는 출판단지에 영화관련산업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 미 윌리우드에 버금가는 종합문화·관광단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출판도시측은 ‘기존의 1단계 개발사업의 목적이 출판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개발된 출판도시를 안정하고 확장하는 동시에, 21세기의 첨단 문화예술 산업 부문인 영상과 미디어 산업을 동시에 집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향후 출판도시의 비전은 ‘출판과 영상을 아우르는 미래형 문화도시’라고 밝혔다.

【서울신문기자 peterpig@sed.co.kr

국내 영화사 “우린 파주로 간다”

싸이더스FNH 등 18개업체 영상단지 입주 신청서

국내 주요 영화사들이 경기도 파주출판도시에 조성되는 영상산업단지에 새 둥지를 마련키로 했다.

출판도시 2단계 건설추진위원회는 “영상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영상 출판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싸이더스FNH를 포함한 18개 영상 관련업체가 참가신청서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참가신청서를 낸 영상 관련업체 중에는 싸이더스FNH 비롯, MK픽처스·모호필름·청어람·청년필름·

LJ필름·김기덕필름·마술피리·보람엔터테인먼트·KINO2·필름포에타·아이필름코퍼레이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영화사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울 66만㎡ 규모로 조성되는 2단계 사업단지에 2009년까지 입주하게 된다.

영화사들의 이번 파주행은 제작가 협회와 서울시가 추진하던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센터)로의 이전이 무산되면서 이뤄졌다. 영화계에

서는 앞으로 제작사는 물론 편집·녹음 등 후반작업 관련 영상산업 전체가 파주로 이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출판도시 2단계 건설추진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이기용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과 차승재 싸이더스FNH 대표, 영화배우 박종훈 등이 참가한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⑤ 영화계의 힘 충무로서 파주로 - 서울경제, 2006.08.22

⑥ 국내 영화사 우린 파주로 간다 - 전자신문, 2006.08.22

‘영화마을’ 파주

2단계 출판도시에
18개 영화사 입주

서울 충무로와 강남을 거쳐 경기 파주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영화단지가 조성된다.

국내 최대 영화사인 싸이더스FNH의 차승재 대표는 ‘파주 출판도시 2단계 추진위원회’와 함께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사들의 파주 이전 계획을 밝혔다.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차 대표는 “한국 영화가 산업적으로는 체질 개선이 이뤄졌지만 내적 성장이 동반됐는지는 의문”이라며 “영화 역시 서사의 한 형태이고, 서사의 근원이 문학이라면 서사의 젖줄을 대는 이곳 출판단지에 같이 동지를 묶으로써 내적 성장을 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차 대표는 “강남시대가 열리면서 영화를 그냥 산업으로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됐다”며 “예전 충무로처럼 한 동네에 모두 모여 아옹다옹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파주 이전 계획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파주에 동지를 틀기로 한 영화사는 현

재 18개사. 싸이더스FNH를 비롯해 MK픽처스, 청어람, L.F필름, 모호필름, 김기덕필름 등 유명 영화사들과 함께 세방현상, 라이브톤 등 후반작업 업체들도 포함돼 있다. 영화 제작을 단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차 대표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작품 편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 영화를 통해 문화적 기여를 한 회사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많은 업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사들은 2단계 출판도시가 들어서는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의 20만7400평의 대지 내 3만~5만 평의 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다. 2008년까지 입주를 완료하는 게 목표다.

영화당 이기웅 대표를 주축으로 출판인들이 17년간 공을 들여 세운 파주 출판단지에는 26만4400평의 대지에 현재 400여 개의 출판 관련 업체가 들어서 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7

파주에 책의 향기 북시티 페스티벌 내일부터

경기 파주출판도시에서 19일부터 열흘간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이 열린다. 다매체 시대를 맞이해 출판의 위상에 대한 고민부터 저자와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출판도시문화재단 주최.

▽국제출판포럼(19~21일)=유럽과 아시아 8개국에서 40여 명의 출판 전문가가 참여해 디지털 시대의 책 만들기과 서점 경영 전략 등 출판 현안을 논의한다. 러시아 모스크바출판대의 A M 치카넨코 총장이 ‘다매체시대 출판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

▽‘종이에서 책으로’ 특별전(19~29일)=아날로그 문화의 뿌리인 종지와 책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전시회다. ‘종지의 경쟁력 2006’전과 일본의 스기우라 고헤이(杉浦康平) 씨를 비롯해 동아시아 북디자인자들이 선정한 책들을 전시하는 ‘동아시아 북디자인전’ 등. 27, 28일에는 한중일의 북디자인자들이 모여 심포지엄 ‘동아시아 책의 교류 2006’을 연다.

▽책 잔치(27~29일)=헌책과 중고 음반, 비디오를 사고파는 책 벼룩시장이 열린다. 27일 시인 나희덕 씨가 참여하는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전국대학생 독서토론회(28일) △저자와의 만남(28일 신영복 공지영, 29일 임동주 이우혁) △작은 영화제(28, 29일) △‘영화감독, 책을 말하다’(29일) 등 행사가 마련됐다. www.pajubookcity.org, 031-955-0061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8

7 ‘영화마을’...파주 2단계 출판도시에 18개 영화사 입주 - 동아일보, 2006.08.24

8 파주에 책의 향기... 북시티 페스티벌 내일부터 - 동아일보, 2006.10.18



파주북시티 페스티벌 2006
Paju Bookcity Festival 2006

내일 파주 '책거리'로 오세요

북시티 페스티벌 29일까지

파주 출판도시 최대 책잔치인 '파주 북 시티 페스티벌 2006'이 19일부터 29일까지 파주출판도시에서 열린다.

책을 좋아하는 시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행사로는 기간 내내 단지 안 웅철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책거리'를 꼽을 수 있다. 책 전시회를 구경하면서 다양한 책을 시장보다 싼 값에 살 수 있으며 각종 기획행사들이 곁들여진다. 경영사, 김영사, 돌베개출판사 등 여러

출판사들이 책을 깎아 판다. 21일 토요일과 22일 일요일에는 색소폰 연주와 통기타 공연, 파주시청 밴드 공연 등 음악행사가 열린다.

평소 일반인들은 집에서만 구경할 수밖에 없었던 출판사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보는 '오픈 하우스'도 눈길을 끈다. 파주출판도시 출판사 사옥들은 대부분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들이어서 건축적 측면에서도 문화적 경험이 될 만하다. 김영사, 돌베개, 문공사, 사계절, 한길사 등이 역시 기간 내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

반 독자들에게 연관문을 연다.

젊은 대학생들이 논리와 지적 능력을 겨루는 독서토론회도 논술과 독서에 관심있는 학부모들과 중고생 자녀들이 함께 참관할 수 있는 흥미로운 행사다. 본선에 오른 2인조 대학생 참가자들이 '폭력에 대한 성찰'을 주제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토너먼트식으로 토론 능력을 겨룬다.

이밖에 제지회사들이 여는 종이전시회 등을 묶은 특별전 '종이에서 책으로, 젊은 영화감독들이 나오는 '영화감독 책을 말한다', 헌책방 벼룩시장 등도 함께 열린다. 문의 조직위원회 (031)955-0065, 인터넷 사이트 www.pajubookcity.org.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파주의 가을, 책장 넘기는 소리 '사락사락'

내일부터 파주북시티 책잔치

경기 파주출판도시의 가을이 문근한 책의 향기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 심학산 자락의 길대와 임진강 물역새, 자유로 노변을 따라 늘어진 코스모스의 하늘 거림보다 더 아절한 유혹. 내일(27일)부터 사흘간 펼쳐질 '파주북시티 책잔치 2006'이다.

이 행사는 책의 축제다. 드넓은 행사 공간의 광장과 구석구석이 책의 숲으로 꾸며지고 책을 쓰고 만들고 파는 이들, 책을 사랑하는 여러 분야의 문화인들이 그 아득한 숲길 여행의 안내자로 나선다. '전국 대학생 독서토론회'가 열리고, 공지영(소설가) 나 희덕(시인) 신영복(성공회대 석좌교수) 등 여러 작가들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독자들을 만난다. KBS 아나운서들(정용실, 성기영, 윤지영 등)이 책을 들고 나와 밑줄 그은 구절들을 읽어주고 통기타 듀엣 '나무 자전거'가 노래를 부르는 코너도 있다. 젊은 영화인들(김용균 박광현 손재곤 감독)이 활자와 영상이 만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영화감독 책을 말한다', 문학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영화 <경마장 가는 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을 골라 볼 수 있는 '작은 영화제'도 마련됐다. 미술 전생님들과 동화책 주인공을 길라잡이로 만들기는 아이들과의 나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 개막공연으로 준비된

● 파주북시티 책잔치 2006 행사 일정

27일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막공연 (국악 시를 읊다) • 출판도시 가족파티 • 작가와의 만남- 대화의 시간
28일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대학생 독서토론회 • 저자와의 만남-신영복, 공지영 • 작은영화제-문학과 영상의 만남 • 과학자와 만나다-이은희, 김소희 • 동화책 속 주인공 만들기
29일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막공연 (아나운서와 함께 하는 책 읽는 카페) • 영화감독 책을 말한다 • 저자와의 만남-임동주, 이우혁 • 작은 영화제-문학과 영상의 만남 • 과학연극-보이지 않지만 움직여요

※ 매일 행사 (책거리) (책 베풀기) (여가, 책시리의 자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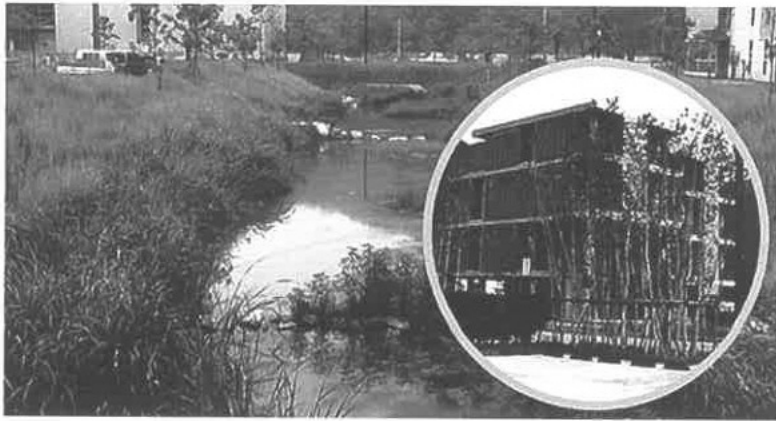
'국악, 시를 읊다', 인디밴드들의 음악 속에서 마음껏 일크러져도 좋을 '출판도시 가족파티'도 있다. 그러니까 이 축제는 책이 매개하는 모든 문화와 인간의 교감 잔치다.

주최 측은 이 잔치의 테마를 '출판도시, 청년정신과 접촉하다'로 정했다. 출판도시가 단순히 책을 생산하는 인프라 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정신과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고 교류하는 중심이 고자 한다는 희망과, 그 정신과 가치를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영원한 청년'들이 때로 모여 어지럽게 점

속하자는 의지를 담은 문구다.

행사가간 동안 출판도시에 입주한 100개 출판사 사옥들 대부분이 나름의 프로그램과 책 판매행사, 볼거리 등을 마련해두고 손님을 맞고(오픈하우스), '책거리' 30여 개의 부스와 천 책방 '보물섬'과 함께하는 벼룩시장에서는 신·구간, 중고 서적들을 할인 판매한다.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약 1,500대), 지하철2호선 합정역 2번 출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출판도시로 떠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된다. (031)955-0055 최윤필기자



최우수상 / 토지공사 '파주출판문화단지'

샛강·억새군락 복원 운치더해

조경이라고 하면 흔히 어떻게 잘 꾸미었는지, 얼마나 잘 또는 아름다운 공경을 떠올린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야케르 조경'이 조경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경향과는 사뭇 다른 '남기고 바퀴를 조경'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파주출판문화단지'의 조경이다. '파주출판문화단지'는 출판도시(북시티)에 적용된 조경이다.

출판단지 조경철학은 '습지도시 만들기'와 '변지(良地)의 미학'이다. 습지도시 만들기는 출판단지 중심에 자리잡은 갈대샛강을 거둬서 지키고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데서 출발한다. 샛강에서 발원한 불꽃기가 단지와 도로를 지나 샛강에 연결되고 모든 단지 빌딩이 제방된 수로로 따라 자연경관과 샛강으로 흘러드는 불꽃네트워크다.

변지의 미학이란 건축가 철학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제로 조경, 잘 꾸미진 조경이 아니라 마치 가난한 지가 주어진 공간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 공간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비워둔 조경을 말한다. 수목과 야생화 같은 기법이다.

실제로 파주출판문화단지에 들어서면 건물 사이로 딱 트인 내문 경관과 새빨개 남색대

는 집대와 억새군락이 펼쳐진다. 빙동궤에 회계 기대하고 예상했던 폭이름 구조물이 나 눈길을 끄는 한탄한 사슴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곳이 종잡이로 언저를 일으키며 딱지개를 뿜는 곳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다.

자연스럽게 펼쳐진 두툼 샛강과 드넓은 초지, 그리고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 천인 풍경이 펼쳐진다. 복원된 샛강-갈대군락과 불꽃네트워크 사계절 상수리나무 가로수와 가조동, 외지, 목교 등이 운치를 더한다.

출판단지가 지닌 가장 큰 매력은 2.6km에 이르는 갈대샛강이 보존·복원된 점. 갈대샛강을 자유로 건설 이전에는 홍강과 연결된 갯물형태(tidal creek) 지류였다. 하지만 자유로가 건설되고 홍강과 단절되면서 습지형 수로로 변했다.

갈대가 있고 물억새와 부들, 자라는 생령 보고인 습지. 이런 천연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일부 훼손된 구간을 복원하는 것이 갈대샛강 복원 과제였다.

출판단지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한토)는 생태적 조사와 함께 진단을 하고 직접한 처방을 위해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했다. 생태복원에 이워자는 전 과정을 전담하고 평가하기 위해 공사 착공 전부터 완공 후 관리

시작까지 3년에 걸쳐 모니터링했다.

갈대샛강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녹지를 샛강을 따라 조성했다. 남문역은 샛강변 보도를 따라 거닐다 보면 수변식물 사이로 갈대밭을 다룬 목재데크를 볼 수 있다. 이 데크에 올라 남간에 기대면 샛강을 건너는 조망하면서 경치를 만끽할 수 있다. 풍력세와 어우러진 관람데크, 고즈넉한 목교, 세세 산책로 등 전원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출판단지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물거리·관역시설을 자랑하는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조경을 선보인다. 자연에 순응하고, 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관된 주장이 있다.

출판단지 내 관원은 다른 도시 공원과는 다르다. 문수도 있고, 단풍향 포장이나 눈에 띄는 별다른 구조물도 없어서다. 대신 풍기루 포장과 숲길, 수목과 사슴이 늘어놓은 풍경 등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관공서적공간인 물나무 데크와 물 데미를 조성했고, 배수로 자갈수로를 연결해 소연못(소생물 서식지)을 만들었다. 공원 안에는 외지와 수변비행, 파와 갈대, 산책로만 있다. 가벼운 산책과 휴식, 그리고 시애틀이 전부인 공원이 셈이다.

출판단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언뜻 보면 마치 녹슨 것처럼 보인다. 눈에 띄는 화려한 색채 도장도 없다. 이들 시설물은 도장에 필요 없는 내구성 강인한 철재로 만들어져 표면에 산화가 진행되면 더 이상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산화된 철재와 주철색상은 마치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출판 단지 내 조경은 모두 이렇다. 습지도시 만들기를 위한 도시개발 철학은 일관되게 모든 계획과 시설을 설계에 적용했다. 개발취부 방식에서 보존과 재생이랑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실험이었고 적지않은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❶

발행일 ————— 2016. 11. 20

발행인 ————— 이 은

편집인 ————— 이환구

발행처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문발동 637-1)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서축공업기념관)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65

편 집 ————— 전기석 · 조용진 · 박경신 · 이진희

인쇄처 ————— 스크린그래픽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발간된
〈자료집 ❶〉은 부정기 간행물로 조합원을 비롯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사업에 관계되는
사회 각계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